

3280  
340.911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關係-統一政策

北韓人民 革命戰略에 대한  
韓國安保 確立方案

研究執筆責任 金 準

*Handwritten signature*

(略歷) 陸士9期

國防大學院 教授部長 (1971~1973)

陸軍綜合行政學校副校長 (1974年~現在)

북한혁명전략  
한국안보문제  
북한인민혁명전략  
"인민민주주의혁명"

刊行責任 李 杔 熙 (調查研究室 補佐官)



# 目 次

序 論	1
第1章 人民革命戰略의 本質	3
第1節 共產主義 赤化戰略으로서의 人民革命戰略	3
第2節 맑스·레닌·스탈린의 理論	13
第3節 毛沢東과  세계바라  理論	25
第2章 各國에 있어서의 人民革命戰略의 展開	33
第1節 東歐諸國	33
第2節 東南亞諸國	49
第3章 北韓의 人民革命戰略	69
第1節 概 要	69
第2節 6·25 戰爭前의 人民革命戰略	72
第3節 第3次黨大會以後의 50年代後半期에 있어서의 人民革命戰略	75
第4節 60年代의 人民革命戰略	79
第5節 70年代의 人民革命戰略	93
第6節 小結論	101
第4章 問題點 및 對備策	103
第1節 問題點	103
第2節 對備策	107
建 議	122



## 序 論

그간 北韓의 金日成共産集團은 機會있을 때마다 平和攻勢를 展開해 나가면서도 基本的으로는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 目標達成을 위하여 全力을 傾注해 왔었다. 그러나 그들은 武力挑發에 依한 赤化統一이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北韓의 武力挑發에 依한 赤化統一이 不可能하게 된 데에는 韓國의 鉄桶같은 防衛에 直接的인 原因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間接的으로는 60年代를 고비로 하는 持續的인 經濟成長에 依한 國力の 培養에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70年代를 맞이하면서 國際情勢도 強大國들의 突利追求의 現實主義的外交로 말미암아 一大轉換을 가져와 對決의 時代는 사라지고 平和指向的인 時代로 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開催된 1970年 11月の 第5次 北韓勞動黨大會는 앞으로 展開할 韓國에서의 赤化革命戰略은 이른 바 〈人民民主主義路線〉임을 明白히 하였던 것이다.

北韓은 北韓地域에서 이미 1958年을 기하여 〈人民民主主義革命段階〉를 거쳐 〈社會主義革命段階〉로 들어 갔다고 宣傳하면서 南韓地域에서는 아직도 人民民主主義革命의 前段階인 所謂 民族民主主義革命段階에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60年 初에 있어서 北韓은 〈民族解放民主主義〉를 提示한데 對하여 7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人民民主主義〉를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슬로간은 그들의 人民革命戰略의 質的變化를 意味한다해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의 對南戰略은

예나 지금이나를 莫論하고 人民革命戰略임에 틀림없으나 그 人民革命戰略의 內容은 時間과 空間을 前提로한 狀況에 따라 差異點을 露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狀況에 따라 北韓이 提示하고 있는 人民革命戰略概念은 變質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對兩人民革命戰略은 韓國의 安全保障에 큰 威脅要素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本質을 把握하고 그것이 韓國安全保障에 미치는 影響과 對備策을 講究한다는 것은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이 課題를 解決함에 있어서는 여러 接近方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共產主義이네올로기의 創始者인 맑스·레닌을 비롯한 代表的인 共產主義者들의 人民革命戰略에 關한 理論을 檢討하여 人民革命戰略의 本質을 究明한 다음 人民革命戰略이 各國에서 어떻게 展開되었는가 하는 것을 分析함으로써 共通點과 個差的인 差異點을 推出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背景的인 知識을 前提로 한다음 北韓이 展開한 人民革命戰略概念을 時代別로 分析하고 끝으로 이것이 提起시키고 있는 韓國安保上の 問題點과 그 對備策을 講究하도록 試圖하였다.

그러나 研究者들의 能力의 限界성과 아울러 旣히 各國의 人民革命戰略展開에 關한 資料의 制限性은 이 課題를 研究함에 있어서 하나의 큰 阻害要因이었음을 우리는 率直히 實坦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研究者들이 相互緊密한 協調關係를 維持하면서 共同作品을 만들려고 努力하여 하나의 結實을 맺었다는데 이 研究의 意義가 있음을 自負하며 나아가 이러한 結實이 政策立案者들에게 조금이라도 參考가 된다면 研究者들로서는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 第 1 章 人民革命戰略의 本質

### 第 1 節 共產主義赤化戰略으로서의 人民革命戰略

#### 第 1 項 共產主義革命의 本質

現代 「人民革命戰略」의 理論과 體系를 確立하고 또한 實際에 適用하여 成功한 것은 共產主義者들이다. 〇 共產主義者들은 地上에 맑스·레닌主義를 實現하기 위하여 武裝鬪爭에 依한 政權의 奪取를 革命의 最高形態로 상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革命理論은 지난 一世紀에 걸쳐 상당한 進化를 하여왔다. 때문에 「人民革命戰略」의 本質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우선 共產主義革命의 本質을 살펴 볼 必要가 있다. 共產主義者들에 依할 것 같으면,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의 革命에 關한 定義와는 달리 「社會의 急激한 暴力的 質的 變化」狀態를 「革命」이라고 본다. 이것은 크게 나누어 본다면 革命의 社會的 內容에는 반드시 「質的 變化」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鬪爭手段面에서 「暴力性」이 內在한다는 것이다. 革命의 社會的 內容에 包含되는 「質的 變化」는 共產主義者들이 「革命의 前進性」이라고도 稱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概念은 共產主義 唯物弁證法에 土臺를 두고 있다.

弁證法的 唯物論의 이른바 3大法則 가운데 하나인 「量的 質로 의 轉化 및 送轉의 法則」은 共產主義者들이 즐겨 쓰는 「革命」의 理論的 根拠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 法則은 事物의 發展을 同質的인 것의 單純한 成長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微細한 量的 變化가 集積하여 어떤 點에 이르면 그 事物은 돌연히 質的으로 變化한다는 것이다. 이와 同一하게 人類社會의

發展도 점진적인 成長過程을 거쳐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돌연한 「飛躍」에 의해 도달된다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飛躍」을 「革命」이라 解釋하고 以上の 法則에서 社會은 반드시 革命을 거쳐서만 發展하는 것이라는 무리한 結論을 끌어낸다. 「스탈린」은 이 法則을 社會發展에다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만일 서서한 量的 變化가 급격하고 突然的인 質的 變化로 넘어가는 것이 發展의 法則이라면 被壓迫階級이 遂行하는 革命的 變革은 아주 自然的이며 必然的인 現象인 것이 明白하다. 그러므로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 넘어가는 것. 資本主義壓迫 밑에서 勞動階級을 解放하는 것은 徐徐한 變化에 依해서가 아니라 卽 改良의 手段에 依해서가 아니라 오직 資本主義制度의 質的 變化에 依해서 卽 革命에 依해서만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共產主義者들이 規定하는 革命의 한가지 特徵은 社會制度의 「質的 變化」乃至 「再編成」에 찾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다. 例컨대 「부르조아革命」「社會主義革命」이라는 概念도 어디까지나 封建制度와 資本主義社會制度의 質的 變化로부터 各各 招來되는 革命의 社會的 內容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의 特徵으로 들 수 있는 것이 「革命의 階級性」이다. 共產主義革命本質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主權所在의 階級的 變更」 與否를 가지고 「革命」의 定義를 내린다는 것이다. 卽 政治權力 担当者의 階級的 變更이 없을 때 共產主義者들은 여하한 方式의 政權交替일지라도 革命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特別히 共產主義革命이란 所謂「프롤레타리아」階級을 支配階級으로 올리는 것이랄 한다. 따라서 東洋의 易性革命도 한낱 封建支配階級 相互間의 權力變更에 不過한 것으로 보고 있다. 例컨대 1789年의



仏蘭西大革命을 「부르조아」革命이라 하는 것도 「부르조아」階級이 封建支配階級에 代身하여 權力担当者로 올라 간 것으로 解釈하고 있으며 오늘날 「프롤레타리아」革命, 人民民主主義革命 等の 概念도 其實은 「프롤레타리아」와 「人民」을 支配階級으로 올리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이러한 「革命的 階級性」의 理論的 根拠는 人類의 歷史를 階級 鬭爭의 歷史로 規定짓는 共產主義「도그마」에 있지만 어하튼 오늘날 이 같은 共產主義革命의 階級的 本質論은 共產化戰略의 여러가지 樣態와 戰術을 남고 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特徵이 共產主義革命의 「國際的 性格」이다. 階級鬭爭은 國境을 초월한다는 것으로 全世界的 規模에서 「抑壓階級」과 「被抑壓階級」의 鬭爭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共產主義者들의 赤化戰略이 國際的 規模에서 展開되는 理由가 있으며 「全世界의 共產化」가 바로 共產主義革命의 窮極目標이기도 한 理由이다. 「암스」가 主唱하는 所謂 「全世界의 勞動者여 團結하라」는 口號는 바로 共產主義革命의 國際的 性格을 意味하고 있는 것으로 理論上으로는 階級鬭爭에 關한 한 國境을 超越하여 存在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國家의 國民의 性格은 民族으로서의 外延的 同一體와 階級面에서는 內包的 鬭爭이 並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共產主義革命戰略이 外勢의 侵略을 排除하는 「民族解放戰爭」과 國內의 「階級戰爭」을 混用하는 가운데 展開되고 있으므로 國際的 民族戰爭과 國內的 階級戰爭을 區別하기가 困難하다. 그러나 共產主義革命의 本質이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階級을 權力担当者로 提高함에 立脚한 上部構造와 下部構造의 「社會主義化」(質的 變化)를 「國際的 規模」로 達成함으로서

世界赤化를 窮極目標로 삼고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할 때 「民族戰爭」도 其實은 「階級鬭爭」의 일환으로서 把握되는 共產主義者들의 革命戰略의 一局面에 不過하다. 以上에서 共產主義革命本質의 3大特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이 이러한 共產化革命을 達成할 수 있는 基本命題를 「階級鬭爭」에서 찾고 있으며 이 地球上에 나타난 共產國家 그리고 共產化하려 하는 對象國家에 있어서도 共產主義階級鬭爭의 理論과 實際가 反映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共產主義革命理論과 戰略이 이러한 「階級鬭爭理論」의 具體的 適用이며 現實的 變容이다. 따라서 本題가 取扱하려 하는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도 共產主義 階級鬭爭의 本質로부터 把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 第2項 階級鬭爭과 프롤레타리아 革命

共產主義者들에 依할 것 같으면 階級鬭爭 (Class Struggle) 이라 함은 한 階級이 行動으로써 다른 階級에 對立하는 鬭爭을 말한다. 卽 搾取階級에 對한 被搾取階級, 壓迫階級에 對한 被壓迫階級の 鬭爭이 바로 階級鬭爭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階級鬭爭은 왜 일어나는가? 共產主義者들의 唯物史觀에 依할 것 같으면 階級鬭爭의 發端의 要素를 '物質'이라는 單一要素로 處理하고 있다.

原來 原始共同社會에서는 自家消費를 爲한 日用品의 調達에 그쳤다. 그러나 物質的 生産力의 發展 (生産手段의 改良, 勞動分化) 에 따라 自家消費를 하고도 남는 「剩餘」의 物品이 存在하게 되자 이것을 蓄積하게 되고 또한 다른 物品의 交換을 爲하여 商品으로 利用하게 되었다. 이러한 剩餘의 私的 所有가 發生되고 또한 이를 爲하여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가 發生되는 순간에 生産手段의 所有者

와 이를 갖지 않은자의 區別이 생기게 됨으로써 「갖인자」와 「갖지 않은 자」의 階級이 分化되는 契機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卽 生産手段의 所有關係에서 近代的 階級이 나타난다. 그러나 問題는 이러한 階級の 單純한 意味의 存在가 아니라 한 國家에서의 社会, 經濟 乃至는 政治的 存在樣式이다. 이것은 單的으로 表現한다면 階級の 存在가 國家의 起源이 된다는 階級國家觀이다. 다른 말로 表現한다면 「階級鬭爭」의 歷史的 必然性, 一步를 나아가 共產主義 社会의 歷史的 必然性을 強調하고 있는 「도그마」이기도 하다.

國家는 階級이 存在하게 됨으로써 發生하는 階級對立의 產物로서 階級支配의 道具라고 共產主義者들은 理解한다. 卽 「갖인자」가 「갖지않은자」를 經濟的으로 搾取하고 政治的으로 抑壓하기 爲하여 만든 強制裝置라는 것이다. 따라서 階級이 없는 곳에서는 階級支配機構가 必要가 없기 때문에 國家의 存在가 必要없다고 한다.

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階級國家觀에 依해서 古代國家에서는 奴隸所有者가 奴隸를, 封建國家에서는 貴族이 農奴를, 資本主義國家에서는 資本家가 賃金勞動者를 各各 搾取하고 抑壓하기 爲한 階級支配의 道具로서 國家를 說明하고 있다.

여기에 唯物史觀的 階級鬭爭論의 本質이 存在한다. 卽 抑壓과 搾取道具로서의 國家를 廢止시키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階級對立을 解消시켜야 하고 또한 이 階級對立을 消滅시키려면 그 原因인 生産手段을 資本家의 私有에서 社会的 所有로 轉換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一聯의 生産手段을 社会的 所有로 轉換시키는 過程은 努力없이 自動的으로 招來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資本家에 對한 鬭爭으로서 만이 戰取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롤레타리아」의 資本家에 對한 鬭爭의 勝

리가 바로 「프롤레타리아」革命이며 이러한 革命後에 樹立되는 國家形態가 바로 「프롤레타리아」獨裁라 한다. 좀 더 具體的으로 階級鬭爭論과 「프롤레타리아」革命과를 關聯시켜 說明하기로 한다.

近代工業의 發達 卽 生産力의 發達에 따라 自己의 勞動力을 商品으로 팔지않으면 안되는 勞動者의 數가 늘어남에 따라서 全社會는 直接 對立되는 2大 階級으로 分裂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가 바로 그 것이다. 勞動者들은 自己들의 結束된 힘을 自覺하게 되며 (階級意識) 이러한 階級意識으로부터 勞動條件의 向上과 賃金引上等 經濟的 鬭爭에서 始作하여 그것이 차츰 政權 奪取라는 政治的 鬭爭으로 發展하게 된다. 政治的 鬭爭에 이르면 벌써 合法的 鬭爭의 段階를 지나 武裝力에 依한 流血鬭爭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武裝鬭爭이라는 階級鬭爭의 決戰段階에 이르면 支配階級內部的 分解過程은 매우 심각한 樣相을 띠게 되며 支配階級の 一部는 스스로 所屬階級을 離脫하여 革命的 階級에 加担한다. 한편 中産階級の 大部分도 결국 「프롤레타리아」階級에 從屬된다. 그들은 將來의 利益을 爲하여 「프롤레타리아」로 轉身한다. 이러한 鬭爭은 「프롤레타리아」階級이 階級鬭爭에서 勝利를 거둘 때까지 卽 「부르주아」階級을 暴力으로 누르고 支配階級으로 올라갈 때까지 不可避하다고 보는 것이 階級鬭爭論의 本質이다. 이로서 본다면 階級鬭爭의 本質은 「프롤레타리아」革命論의 理論的 根柢를 提示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階級鬭爭論 그 自体가 바로 「프롤레타리아」革命理論과 不可分の 關係에서 同一視되고 있는 것이다.

### 第 3 項 프롤레타리아 革命과 人民民主主義革命

共産主義革命本質의 한 要素로 든 「프롤레타리아」階級の 權力階級에의 提高는 共産主義革命發展論에 立脚해 볼 때 그렇게 單純한 것이 아니라 史的 唯物論이 提示한 歷史發展의 一聯의 圖式, 古代社會→封建社會→資本主義社會→社會主義社會에의 發展을 各 段階의 階級鬭爭-革命-에 依해서 止揚(aufheben) 한다는 것 自体가 現實에 적용될 때는 理論上的 修正이 不可避하였다. 例컨데 「부르조아」國家를 打倒한 「프롤레타리아」革命後에 樹立되는 「프롤레타리아」國家란 理論上的 假定에 不過한 것이지 「맑스」·「엔겔스」의 엄밀한 共産主義 理論的 Model에 立脚한 共産主義國家가 地球上에 存在해 본적이 없다. 그러한 理由로서는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共産革命이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한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遂行되지 않았다는 點이다. 소련을 비롯한 東歐, 中共, 北韓等 이러한 나라에서는 生産力이 發達되지 못해 多數의 「프롤레타리아」(工場勞動者)가 存在할 수 없기 때문에 真正한 意味의 「프롤레타리아」가 主導하는 革命이란 期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첫째의 生産力 發展과 關聯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共産革命이 成立된 國家의 生産力發展段階가 封建的 要素와 資本主義的 要素가 並存하는 狀態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生産力發展이 未熟한 段階에서의 共産主義 革命이란 「革命力量」이 欠乏되었기 때문에 唯物史觀에 立脚한 「社會革命」이 될 수 없고

「政治革命」으로서 社會主義에의 「短縮革命」을 講究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점이 바로 「부르조아」革命과 「프롤레타리아」革命을 時間과 空間面에서 一致시켜 短縮해야 했던 理由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이 말하고 있는 弱小國家의 帝國主義의 사슬이다. 即 共產化 革命을 爲해서는 階級의 矛盾을 解決하는 「프롤레타리아」階級鬭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外勢(帝國主義國家)를 排擊하는 民族間的 矛盾도 解決해야 하는 所謂 民族解放鬭爭도 同時에 遂行해야 할 立場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共產革命本質의 第一 要因이라 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階級の 權力階級の 提高의 問題는 共產主義革命路線에 多樣性을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革命과 人民民主主義革命의 意義를 區別해 두어야 할 必要가 있다. 먼저 共通點으로는 赤化 戰略이라는 面에서 社會主義國家를 樹立하는 過度期的 性格을 두가지의 革命이 共通的으로 갖고 있다. 「부르조아」國家를 打倒하고 社會主義國家를 樹立하는 段階에 거쳐야 하는 革命으로서 어디까지나 既存政府의 權力을 奪取하기 爲한 共產赤化革命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革命以後에 樹立되는 國家形態는 「프롤레타리아」國家와 人民民主主義國家로서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依하면 이 두개의 國家는 「半國家」라는 것이다. 即 「부르조아」國家(正國家)를 廢止, 共產主義國家(無國家)로 昇揚시키기 爲한 過渡期的 國家라 한다.

그러나 權力の 階級的 性格에는 差異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國家인 경우 權力の 所在가 「프롤레타리아」에 있는 反面 人民  
 民主主義國家의 경우 勞動者를 指導階級으로 하는 特定階級(農民, 小  
 市民, 民族資本家, 學生, 인텔리 等)에 두는 「聯合獨裁」를 意味하  
 고 있다. 따라서 鬭爭의 範圍도 「프롤레타리아」革命的인 경우  
 「프롤레타리아」와 農民을 同盟階級으로 하는 것임에 反하여 人民  
 民主主義革命的인 경우는 그 範圍가 全人民的 性格을 띠게 마련이  
 다. 그러나 「부르조아」革命과 다른 것은 全人民的 鬭爭이라 하  
 더라도 鬭爭의 主体는 어디까지나 勞動者階級이 장악하는 것으로서  
 「부르조아」階級이 主動이 되어 이룩한 民主主義革命을 다시 社會  
 主義革命으로 轉換시켜야 할 2段階 革命을 短縮시켜 共產化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革命的인 社會的 內容에 있어서도 「프롤레타리  
 아」革命的인 경우는 資本主義的 殘滓를 一掃하는 것. 即 生産手  
 段所有의 社會化라는 面에 主眼點을 두는데 反하여 人民民主主義  
 革命的인 경우는 反封建, 反帝國主義要素를 除去하는 民主主義 變革  
 에 第一次의 重點을 두고 다음에 社會主義革命的인 實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로서 본다면 人民民主主義革命的인 第一段階는 民族的 民主主義  
 革命이며 第2段階가 社會主義革命이다. 革命勢力의 階級的 構成  
 面에서도 勞動者階級的인 主導하는 制限된 人民의 性格을 지닌다.  
 이러한 論理위에서 金日成이 主張하고 있는 人民民主主義革命的인 意  
 義를 第5次黨大會 金日成報告文에서 發해함으로서 그 概念을 明

白히 해두기로 한다.

「南朝鮮革命은 美帝國主義侵略者에 反對하는 民族解放革命임과 同時에 美帝國主義의 壓迫자인 地主 荒井資本家, 反動官僚 等の 壓迫의 支配에 反對하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이다. . . . .」

「南朝鮮革命의 原動力은 勞働者階級과 그의 信賴하는 同盟者인 農民을 비롯한 美帝國主義와 그 壓迫에 反對하는 進歩的 青年學生, 知識人, 愛國的 軍人, 一部の 愛國的 民族資本家와 小市民이다...」

즉 「民族解放」과 「民主主義革命」으로 對南赤化戰略의 目標을 내 걸고 이를 主導하는 階級으로 勞農同盟에 依한 諸階級の 聯合戰線을 強調하고 있다. 이것은 民族矛盾과 階級矛盾을 同時에 解決함으로써 南韓의 共產化를 短縮시키려는 底意가 엿보이고 있다. 또한 革命의 主体勢力은 共產黨의 使喚을 받는 勞農同盟下の 諸階級 聯合戰線이 担当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人民革命後에 樹立되는 政權이란 우선은 共產黨主導下의 聯合獨裁의 國家일 것이고 다음은 社會主義革命으로 이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이행과정에 共產黨 以外の 諸黨派는 徐徐히 除去되고 社會的으로는 共產主義體制로 變革되어 갈 것이다.



## 第2節 맑스·레닌·스탈린의 理論

### 第1項 맑스·엔겔스의 「社会革命論」

오늘날 共產主義者들이 世界赤化를 爲하여 後進諸國에서 使用하는 主要한 奪權形態인 「人民革命戰略」은 맑스·엔겔스의 理論으로부터 始作하여 레닌·스탈린의 革命理論과 經驗을 現代의 後進國 實情에 맞도록 辯証法的으로 結合하여 集大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 「人民革命戰略」의 本質을 理解하기 爲하여 먼저 맑스·엔겔스와 레닌·스탈린의 革命理論을 간추려 살펴보고 난 다음에 毛沢東의 革命理論과 그 亞流인 체·게바라의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맑스·엔겔스의 史的 唯物論에 依하면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나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革命은 모두 다 스스로 發展하는 物質的 生産力과 既存生産關係와의 矛盾에 依하여 생겨나는 歷史發展의 必然的인 過程이다. 하나의 社會體制는 物質的 生産力이 그 社會體制 內에서는 더 以上 發展할 余地가 없을 程度로 充分히 發展하지 않는 限 결코 沒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生産力の 發展과 더불어 剝奪은 少數의 부르조아에게 集中되고 人口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大衆은 날로 貧困에 허덕이게 된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프롤레타리아大衆의 反抗도 增大하여 이들은 階級意識을 覺醒하고 團結하고 組織化된다.」 生産手段의 集中과 勞動의 社會化는 드디어 資本主義的 體制와는 兩立할 수 없는 時點에 이르게 되어 資本主義體制에 弔鐘이 울리게 되며 革命을 통하여 社會主義體制가 出現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社會主義革命은 物質的 生産力이 高度로 發達한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만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原理」(1847)에서 에겔스는 當代的 先進資本主義國家인 英國·佛蘭西·美國·獨逸에서 早晚間에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일어날 것이라 預言한 바 있고, 露西亞나 스페인같은 後進國에서의 革命可能性은 否認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맑스나 에겔스가 史的 唯物論에 根柢를 두고 資本主義의 矛盾을 파헤치는 데 專念하여 資本主義崩괴의 歷史的 必然性을 強調한 나머지 革命發勃의 "場所"를 資本主義 發達地域으로 指摘한 것에 不過하다. 後日 共產化革命의 "場所"가 史的 唯物論의 立場을 떠나 後進國 乃至는 資本主義가 무르익지 않은 곳으로 代置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史的 唯物論을 特定國(露西亞를 비롯한 余他 共產國)의 客觀的 狀況에 創造的으로 發展시킨 共產主義者들의 影響이었다. 또한 革命의 "時期"面에 있어서도 맑스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生産力發展에 따른 既存의 生産關係와의 矛盾이 極度로 達한 時期를 指摘하였다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資本主義가 發達함에 따라 貧困增大의 法則에 依해서 社會的 矛盾이 高調된 時期가 바로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일어날 수 있는 時点이라는 것이다.

革命主体階級面에서도 맑스는 社會主義革命을 主導할 階級을 두말할 나위도 없이 人口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階級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革命은 圧倒的 多數者의 利益을 爲한 圧倒的 多數者의 自主的인 運動이라는 것이다. 農民階級이나 中産階級은 모두 다 歷史的 수레바퀴를 逆轉시키려는 反動階級이요 프롤레타리아階級만이 부르주아지를 打倒할 수 있는 革命階級인 것

이다. 革命의 主役을 담당할 프롤레타리아階級の 發生, 成長 그리고 이들에 依한 革命의 遂行도 역시 物質的 生産力의 反映에 依한 것이지 결코 人間意識의 産物이 아니다.

맑스·에겔스가 그의 史的 唯物論에 土臺를 두고 展開한 革命理論은 物質的 生産力의 發展에 依한 「아래로부터의 革命」이었다. 몇몇 革命家들에 依한 「위로부터의 革命」과는 对照를 이루고 있다. 맑스는 人間이 歷史를 創造한다고 하였으나 그 것은 결코 人間이 자기가 願하는 대로 任意로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歷史的 狀況內에서만 即 歷史의 必然的 法則에 順應하면서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資本의 集中이 貧困을 增大하고 資本主義의 沒落을 招來한다는 經濟理論에 土臺를 둔 맑스·에겔스의 社會革命(Social Revolution)은 종래 實現되지 않았다. 이들의 予言과는 달리 産業革命期의 爆發現象을 克服한 先進資本主義諸國은 1870年代 以來 急進의인 富의 蓄積과 함께 프롤레타리아의 括目할만한 生活水準의 向上을 가져왔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은 暴力革命을 通하여 부르조아政權을 打倒함으로써만 자기들의 利益을 保障할 수 있다는 政治鬭爭보다는 現秩序內에서 漸高하는 生活水準의 促進과 享有를 爲한 經濟鬭爭에 더 関心を 기울이게 되었다.

## 第2項 레닌의 「볼셰비크革命論」

맑스·에겔스의 革命論은 레닌에 依하여 修正이 加해지고 發展된 形態에서 이른바 볼셰비크革命論으로 定立된다. 레닌은 革命發勃의 場所, 時期, 主体, 그리고 分法面에서 맑스·에겔스의 社會革命과는

달리 위로부터의 革命이라는 政治革命의 實際를 러시아에 具現시키었다.

먼저 "場所" 면에서 볼 것 같으면 맑스·엔겔스의 予言과는 달리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의 社會主義革命 實現 可能性이 稀薄해지자 레닌은 새로운 解釈을 내려 後進國에서의 革命을 主唱하고 나섰다. 東方迂迴戰略이 바로 그 것이다. 그에 依하면 19世紀末부터 西歐 資本主義는 自由競爭대신에 独占形態로, 商品輸出대신에 資本輸出로 變質하여 植民地爭奪과 世界分割을 爲한 「帝國主義」段階로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結果 帝國主義段階에 들어선 先進資本主義諸國의 프롤레타리아階級은 植民地擄取를 通하여 얻은 超過利潤의 一部를 받아 먹고 배가 불러져 革命意識을 喪失하게 되었다고 診斷하였다. 이와같은 「帝國主義論」에 立脚하여 레닌은 社會主義革命이 可能的 곳은 資本主義가 가장 發展하고 프롤레타리아階級이 人口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先進資本主義國家가 아니라 오히려 資本主義發展이 가장 弱한 곳이라는 새로운 定式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定式 위에서 植民地를 비롯한 後進國에서 社會主義革命이 發勃하여 先進資本主義國家의 超過利潤의 蝕食이 끊겨질 때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內部矛盾 即 勞資間의 矛盾에 依하여 이곳의 社會主義革命이 可能하다는 理論을 내세웠다. 이러한 東方迂迴戰略은 後述할 毛沢東의 「農村으로부터 都市包圍」戰略에 影響을 미친바 크다고 하겠다.

둘째는 革命이 발발할 수 있는 "時期"의 問題이다. 맑스가 革命의 時期를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으로 生産力이 더 以上 發展할 余地가 없을 때로 본데 反하여 레닌은 生産力の 發展程度

에는 關係없이 戰鬪的 革命集團인 共産黨이 組織되고 社会的 混亂이 極度에 達하여 支配階級の 勢力이 弱화되었을 때라고 主張한다. 이것은 러시아의 特殊狀況 (로스투우에 依하면 1890年代 러시아는 Take off 段階) 下에서 社会主義革命을 成功시켜야 했던 레닌의 創造的 革命發展論이라 할 수 있으나 오늘날 北韓이 노리는 越南 赤化戰略을 비롯한 東南亞地域에서 일어나고 있는 共産主義運動이 資本主義成熟段階와는 關係없이 "階級間的 힘"의 關係에서 決定的 時期를 맞이하려는 共産化戰略에 커다란 理論的 根柢를 提示하고 있다. 또한 레닌은 러시아의 特殊性을 強調하여 부르조아革命과 프롤레타리아革命을 거의 同時에 遂行할 수 있다는 革命一段階論 或은 短縮된 革命二段階論을 提示하였다. 레닌에 依한 것 같으면 러시아에서는 資本主義는 밝으나 西歐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前提 하에서 러시아農村共同体(Mir)의 社会主義性格으로부터 革命的 力量이 있음을 主張하였다. 이러한 短縮된 革命二段階論은 오늘날 東歐의 人民革命戰略이나 金日成이 내걸고 있는 民族的 民主主義革命과 社会主義革命을 결부시킨 人民革命戰略과 그 理論的 構造가 같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共産主義者들이 내걸고 있는 人民革命戰略이 바로 民族的 民主主義革命을 資本主義 生産關係위에서 遂行하면서 바로 社会主義革命으로 連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後述하겠으나 階級的 힘의 關係에서 共産化 戰略을 끌어내는 共産主義教義의 융통성을 바로 說明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는 革命의 主体問題이다. 맑스는 農民을 革命의 保守 乃至 反動階級으로 看做하고 오로지 프롤레타리아階級만을 主體로 反하여 레닌은 貧農과 同盟한 勞動者를 革命의 主導階級으로 보았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0年代 이미 跳躍段階의 後半에서 프롤레타리아

階級이 存在하였으나 農業後進國의 位置에서 머무르는 段階에서 農民의 重要性이 부각된 것이 었다. 1828 ~ 54年사이 574回의 農民叛亂으로부터 農村에 있어서의 革命力량이 잠재되어 있는 狀態이었다. 그러나 레닌의 革命理論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精粹는 革命的 黨組織理論을 提示하고 그 實効性을 立證한 것이라 하겠다. 레닌은 當時 러시아社會의 大衆과 知識人사이에 介在하는 커다란 罅를 認定하고 革命을 組織化하는데 있어서 少數의 精銳(Nucleus)가 大衆을 指導할 수 있는 少數로 構成되는 革命의 前衛部隊의 重要性을 主張하였다. 레닌이 展開한 革命的 黨으로서의 共產黨의 組織原理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武裝鬭爭을 展開하여 政治權力을 掌握하고자 하는 戰鬭的 政黨인 共產黨은 첫째로 共產主義 目的에 献身할 수 있는 「職業的 革命家」들로서 構成되어야 하며, 둘째로 「訓練된 少數의 精粹分子」로서 構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共產黨員은 革命에 있어서 數 많은 兵士들을 戰場터에서 現地調遣하여 이들을 指揮統率할 職業的 學校요 下士官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黨은 「閉鎖式 組織」을 特性으로 한다. 希望者는 누구나 加入할 수 있는 西歐式 政黨과는 달리 嚴格한 테스트를 通하여 敝選된 少數人의 精銳集團인 것이다. 이 것은 異質分子나 試練속에서 變節될 可能性이 있는 者는 事前에 除去하리는 것이다. 또한 이 黨은 「秘密」에 土음을 들으로써 外部世界에서는 그 内部를 드러다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共產黨 運營의 두드러진 特性은 이른바 「民主的 中央集權制」요 「自我批判과 相互批判制度」이다. 民主的 中央集權制란 黨의 支配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모든 黨員은 黨命에 絶對服從해야 한다는 위로부터의 獨裁를 말하는 것이다. 無條件的인 服從과 絶對的인 規律은 黨員의 生命

이다. 모든 黨員은 黨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必要時엔 언제나 기꺼히 어떠한 派閥主義도 不許하고 黨은 오직 하나의 集團임을 強調한다. 따라서 黨路線에로의 完全한 合致를 實現하기 爲하여 黨員들은 自我批判과 相互批判을 통해 自己의 過誤를 黨앞에 是認하고 批判을 받아야 한다. 黨으로부터의 어떠한 處罰이나 심지어는 出黨이나 廢黜에도 異議를 提起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레닌은 共産黨이 必要時에 언제나 使用할 수 있는「武裝部隊」를 黨이 直接 갖고 있어야 한다고 強調한다. 政權의 奪取가 共産黨의 窮極的 目標이고, 이 目標의 實現은 武裝鬭爭을 통해서만 可能하며, 따라서 武裝鬭爭의 手段으로서의 武裝部隊의 確保는 決定的으로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武裝部隊는 奪權鬭爭形態와 方式面에서 어떠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가? 레닌은 奪權鬭爭의 具體的 方法을 提起하는 面에서 맑스에 比하여 政治的인 形態를 내세우고 있으나 戰術的인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레닌은 決定的 時期에 短期間의 都市暴動戰術에 依해 既成政權을 打倒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그렇지만 빨치산活動의 革命鬭爭에의 適用問題에 있어서는 戰術的 段階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나 그 意義의 重要性은 無視할 수 없다.

레닌에 依하면 빨치산活動의 目標은 첫째 軍과 警察 및 政府의 高級官吏나 下級官吏를 射殺하려는 데 있고 둘째 政府나 特定個人으로부터 資金을 奪取하는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테러活動과 資金의 奪取活動으로 局限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빨치산活動은 「自由

獲得의 鬭爭手段이며, 危機가 深刻해짐에 따라 守勢로부터 攻勢로 移行할 것, 메모나 파업같은 活動은 蜂起의 從屬手段으로 할 것, 戰鬪隊는 黨의 것뿐 아니라 無黨派의 것도 組織할 것, 軍隊에 對한 侵透工作을 強化할 것, 勞動者와 農民의 行動을 統一할 것」 등의 原則과 빨찌산 活動을 「黨의 統制下에서 展開」할 것도 아울러 強調하고 있다. 特히 레닌이 들고 있는 빨찌산 鬭爭의 制 限事項으로서의 다음의 세가지는 오늘날 毛沢東의 革命戰爭理論의 核心과 同一하다.

即 빨찌산 鬭爭은 “① 大衆의 무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② 地域의 狀況 特히 그 地域에 있어서의 勞動運動의 狀況을 반드시 熟考해야 한다. ③ 프롤레타리아의 勢力이 不必要하게 混費 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한다”라고 列挙하고 있다. 이 밖에도 레닌은 빨찌산戰이 經濟政治的 目的에 立脚한 內戰의 한 形態이며 그것은 不可避하게 全國的인 規模로 長期戰의 性格을 띠는 點을 主張하고 있음은 오늘날 毛沢東을 비롯한 諸 國에 對하여 보 구엔 贊의 革命戰略에 많은 示唆을 주고 있는 點이라 하겠다.

### 第3項 스탈린의 「兩大障礙論」

스탈린이 發展시킨 共產化革命의 理論은 “空間”의 面에서 一國 社會主義論으로 歸着되고 “時間”의 面에서는 先建設 後革命이라는 2. 段階論으로 展開되었다.



또한 一國社會主義를 소련에서 完成한 이후 스탈린은 2차世界大戰의 終末과 同時에 東歐에 進駐한 赤軍을 背景으로 하여 東歐赤化를 完成하였고 東南亞地域의 일원에 戰後 赤化攻勢를 敢行하였으며 그 理論的 背景은 兩大障當論에 두었다.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은 資本主義國家의 包圍속에서 한 國家(소련)의 社會主義 建設이 可能하다는 理論과 그 것의 歷史的인 實証이다.

왜냐 하면 맑스·에нг엘스에 依하면 先進資本主義國家(英·仏·美·獨)가 거의 同時에 社會主義革命을 일으키고 世界的으로 同時에 社會主義를 建設할 수 있다는 世界社會主義 建設의 可能性만을 暗示해 왔다. 또한 러시아革命時 레닌의 初期 假定도 러시아革命은 他國의 支援(社會主義革命)없이 勝利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그 理由로서 經濟的으로 異質的인 兩體制의 共存은 不可能하며, 소련의 異質的 體制를 打倒하려 하는 부르주아國家의 武力干涉을 強調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경우 現實的으로 西歐의 革命은 到來할 수 없다는 假定 밑에서 一國(소련)에서 社會主義建設이 可能하다는 몇가지 理由를 提示하였다.

그 理由의 첫째는 프롤레타리아가 權力을 掌握했다는 것, 둘째 勞農同盟의 利害가 一致되었다는 것 셋째, 生産手段이 國有化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스탈린의 「先建設 後革命輸出」이라는 段階論이 대두하게 된다.

一次의으로 소련의 革命基地를 強化한 後에 國際共產化革命의 育成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 것은 主觀的 力量을 強化한 後에 客觀的 情勢를 共產化 革命의 方向으로 改造하자는 것으로 오늘날 北韓이 北韓의 革命基地를 철통같이 強化하고 南韓의 客觀的 情勢, 卽 階級間的 矛盾을 利用, 能動的으로 革命的 大事變을 맞이한다는 論理的 構造와 一致하고 있다.

2次世界大戰의 終末과 함께 스탈린은 一國社會主義建設의 土臺를 가지고 資本主義의 包圍로부터 벗어나기 爲하여 소련의 周邊地域에 可能한 限 많은 衛星國을 세우려는 戰後赤化攻勢를 펼치기 始作하였다.

스탈린은 東歐 8個國과 北韓 等の 占領地域에서 軍事力을 背景으로 民族主義勢力을 除去하고 共產政權을 樹立하는데 成功하였다. 또한 中國과 北部越南의 共產化를 支援하고 아시아 및 中東諸國의 民族主義運動에 便乘하여 이들 諸國을 共產化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스탈린의 戰後赤化攻勢의 理論的 基礎가 된 것이 兩大陣營論이다.

이 要旨은 이러하다. 1917年 10月革命以後 世界는 死後一途에 進 資本主義陣營과 새로운 成長一途를 달리고 있는 社會主義陣營으로 對立 分裂되어 있다.

弁證法的 唯物論의 法則에 따라 兩陣營間的 矛盾 對立鬭爭은 不可避하다.

이 兩者間의 對立鬭爭은 歷史發展의 必然的 法則에 따라 이미 老朽해 버린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를 그 特徵으로 하고 있다. 特히 第2次大戰으로 말미암아 이들 資本主義諸國은 沒落 直前に 廻하여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의 沒落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資本主義障營內的 矛盾을 激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資本主義障營內的 矛盾 즉 資本家와 勞動者間의 矛盾 帝國主義列強과 이들의 植民地 및 從屬國間의 矛盾, 그리고 帝國主義列強 相互間의 矛盾을 激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世界各國의 프롤레타리아革命과 植民地諸國의 民族解放運動 및 帝國主義諸國內에서의 共産黨의 活動을 最大限으로 支援하고 또한 이를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可能的 限 많은 나라에 소비에트國家를 樹立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理論을 基礎로 하여 共産化革命의 새로운 類型인 東歐赤化類型이 생겨나게 된다. 經戰後 소련은 占領 또는 解放地域에 進駐한 赤軍의 軍事力을 背景으로 하고 現地 共産主義者들을 僥倖로 내세워 이들 諸國의 共産化를 推進하였다.

소련의 敵對國이었던 (東部)獨逸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헝가리 그리고 獨逸軍의 被占領國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및 알바니아 등 東歐 8個國과 日本의 植民地였던 北韓이 이러한 범주에 屬한다.

이러한 스탈린의 赤化政策은 三段階論으로 擧着되는바 이 것은

어디까지나 階級的 힘의 關係를 正確히 評價하여 弱勢인 共產主義勢力으로 하여금 民族主義者들과 聯合戰線을 破고 聯立政府를 세워 마지막으로 民族主義者를 除去해 나가는 共產化戰略이다. 다만 여기서 強調해 두어야 할 點은 共產主義者들의 主導下에 民主主義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을 結付시키는 所謂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採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人民民主主義革命은 맑스·에겔스의 社會革命이나 레닌의 볼셰비크革命과는 根本적으로 그 質을 달리하는 共產化革命의 한 類型으로 存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金日成이 내걸고 있는 聯印制案도 東歐赤化過程의 聯合戰線運用의 角度에서 共產主義赤化戰略의 一面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 第 3 節 毛沢東과 세계바라 理論

#### 第 1 項 毛沢東의 「革命戰爭論」

맑스·엥겔스의 社会革命論이 레닌, 스탈린에 依해 發展되어 러시아에서 볼셰비크革命으로 土着化되었지만 毛沢東은 이러한 맑스, 레닌主義를 中国革命의 具体的 實踐에 다시 한번 적용하여 獨特한 奪權鬭爭을 爲한 戰略概念으로 發展시키었다. 毛沢東의 革命戰略의 兩大支柱는 持久戰論과 農村으로부터 都市包圍戰略이라고 하나 이에 對한 理論的 基礎는 矛盾論과 實踐論에 있다고 하겠다. 實踐論을 戰略立案에 必要한 事態把握의 基本的 要領 즉 認識論에 관한 講和라고 한다면 矛盾論은 把握된 事態에 여하히 適應하고 또 이것을 利用하여 여하히 共產化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戰略戰術에 關한 著述이라 할 것이다. 軍事的인 비유를 든다면 實踐論은 情報論에 해당하고 矛盾論은 作戰論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과연 아니다.

毛沢東은 實踐論의 基本 意義를 正確한 現實把握 卽 正確한 "현" 關係를 把握함으로써 中国 共產化에 利用 可能한 現實을 파헤치려는 狀況判斷公式에 두고 있다. 主觀的 情勢와 客觀的 情勢를 正確히 認識함으로써 피블 풀리는 革命鬭爭에서 教条主義 乃至는 經驗主義, 機會主義의 過誤를 犯하지 않고 共產化를 達成하려는 戰略的 體系를 위한 理論的 基礎가 바로 實踐論이다. 그리고 矛盾論에서 事物의 矛盾의 法則을 다루는 論理위에서 革命戰略의 윤곽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다면 毛沢東의 中国革命을 爲한 現實認識에서부터 毛沢東의 革命戰略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毛沢東은 1930年代의 中国社会를 半封建 半殖民地로 해석하였다. 半封建的 社会라는 面에서 地主와

農民間的 階級矛盾과 부르조아와 勞動者間的 階級矛盾이 存在하고 半殖民地라는 面에서는 帝國主義者에 對抗하는 中國民族主義者들의 民族間的 矛盾이 存在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對立階級과 對立 民族間的 힘의 關係에서 볼때 農民과 勞動者의 힘이 부르조아나 地主에 對한 힘에 比較하여 弱勢에 있으며 中國民族의 힘이 帝國主義勢力의 힘에 比較하여 劣勢에 있다는 것이다. 毛沢東은 이 더한 主·客觀的 現實認識으로부터 弱勢인 共產主義者들의 힘을 蓄積하면서 共產革命을 達成할 수 있는 戰略概念을 만들어 낸 것이 바로 革命戰爭 戰略이다.

그의 革命戰爭戰略의 時代的 背景은 맑스·엥겔스의 社會革命論의 背景이 된 物質的 生産力이 高度로 發達한 先進資本主義社會나 레닌의 볼셰비크革命의 背景이 된 資本主義發達이 虛弱한 後進的 資本主義社會가 아니라 아직도 資本主義의 發達이 시작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先進資本主義列強의 壓迫狀態에 놓여 있는 半封建的 半殖民地의 後進社會임을 그 特徵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에서는 歷史發展의 普遍的 段階에 따라 「부르조아民主革命」과 民族解放革命이 當面의 課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부르조아階級 및 民族主義勢力과의 「聯合戰線」을 펴고 民族主義運動에 便乘하여 共產黨의 勢力을 扶植하고 擴大 強化함으로써 民族主義運動과 부르조아民主革命의 成果를 擷取하여야 한다는 戰略의 成立根拠가 存在한다. 즉 共產黨은 부르조아民主革命의 主導權을 장악하여 이 革命을 社會主義革命으로 終結시켜야 하며 따라서 初期 共產主義運動은 우선 民族主義運動으로 둔갑한 形態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矛盾解決의 優先順位面에서 볼때 民族矛盾을 民族解放戰爭

의 方式으로 解決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러한 民族解放鬪爭의 主導權은 어디까지나 共產主義者들이 잡고 그 傘下에 聯合戰線을 펴고 있는 것이 하나의 두드러진 特徵이다. 왜냐하면 民族解放鬪爭을 成功的으로 끝나치고 成立되는 國家의 形態로서 부르조아國家가 成立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毛沢東은 新民主主義論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の 主導下에 國家權力이 부르조아지와 小市民等 諸階級에 共有되는 第3의 國家形態를 指摘하였다.

따라서 革命的 발달時期에 있어서도 레닌의 支配階級이 高度로 政治的 混亂과 취약성을 지닐 때라고 하는 主張과는 달리 毛沢東은 民族解放戰爭이 高潮에 達한 時期를 들고 있다. 왜냐하면 이 時期야말로 主,客觀的 힘의 關係에서 共產主義勢力에 有利하고 民族解放戰爭이 종료됨과 동시에 民族主義政權이 들어서는 轉換點에서 共產主義者들이 權力을 橫取할 수 있는 絶好의 時期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論理는 毛沢東의 「戰爭에 依한 革命理論」을 成立하게 하는 根拠이기도 하다. 毛沢東은 中國과 같은 後進國의 革命이 資本主義諸國에서의 革命과 다른 點은 "後進國에서의 主要한 鬪爭形態는 戰爭이요, 主要한 組織形態는 軍隊이다"고 強調하고, "革命의 中心任務와 最高의 形態는 武裝에 依한 政權의 奪取요, 戰爭에 依한 問題의 解決이다"고 勸박하고 있다.

革命의 主体勢力에 關한 限 毛沢東은 中國社會의 封建性의 特質 때문에 農民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勢力의 形成을 보지 못한 勞動者階級이란 革命力量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一次的 革命階級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 있지만 中國革命의 性格이 부르조아民主革命과 民族解放革命을 同時에 遂行하는 新民主主義革命이기 때문에 民族부르조아지와 小市民의 勢力도 無視할

수 없는 狀況에 놓여있다. 여기에 社會主義移行過程에 必然的으로 提起되는 過渡期的 階級聯合의 時期가 存在하게 된다.

毛沢東은 人民革命戰略의 勝利의 關鍵을, 大衆의 支持여하에 두고 있는 것이 하나의 特徵이다. 이것은 弱勢인 共產黨의 勢力을 擴張하기 위하여 時間과 空間을 弁証法的으로 應用하는 人間의 意志라는 面에서도 強調되는 革命精神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毛沢東은 프롤레타리아 鬪爭手段은 人間의 意志이며 이러한 人間意志의 集結은 共產黨이 最多數의 大衆動員을 할 때 達成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게릴라戰의 경우 불과 불고기의 關係는 大衆과 게릴라의 關係와 同一視하는 毛의 비유는 너무나도 有名하다. 大多數의 大衆이 共產黨側에 설때 人民革命은 共產黨의 勝利로 끝난다는 것임을 強調하면서 大衆動員을 爲한 政治活動을 共產黨이 遂行해야 할 最大의 問題로 提起하고 있다.

다음으로 毛沢東이 強調하고 있는 것이 「革命根拠地」와 關聯된 「農村으로부터 都市包圍戰略」이다. 그에 依하면 革命根拠地로 農村을 들고 있다. 農業後進國인 中國의 경우 革命의 主体가 農民이기 때문에 그 革命根拠地로서 農村이 重要視되지 않을 수 없지만 다음의 몇가지 理由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첫째, 弱勢한 革命勢力의 保存과 擴張을 爲해 農村의 革命根拠地가 必要하며 이곳에서 共產主義者들은 人員, 食糧, 情報를 획득하고 軍需工場 等を 設立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後進國에는 勞動者階級이 形成되어 있지 않으며 人口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것은 農民임으로 革命運動은 農民에 依存하고 農村을 舞臺로 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셋째, 政府의 統治力이 갈 미치지 못하고 政府軍이 兵力을 分散



하여 이 地域 全部를 占領할 수 없다는 弱點을 지니고 있다. 또한 험준한 地形을 利用하여 政府軍의 討伐을 避하고 또한 決定的인 戰鬪를 避할 수 있으며 革命軍의 勢力을 育成 擴大할 수 있기 때문에 農村에 革命根據地를 建設하고 나중에는 都市로 包圍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持久戰論에 對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毛沢東은 통상 人民革命戰爭이 持久戰의 性格을 띠는 理由로서 첫째, 弱者가 强者에 對한 싸움은 弱者側의 蓄力을 爲한 活動期間이 必要하기 때문에 短期間에 勝利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따라서 作戰 運用의 面에서 弱者는 强者의 힘을 조금씩 磨滅시키는 長期間에 걸친 苦難의 抵抗을 通하여 勢力을 增大하는 長期戰의 戰略總勢를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長期戰遂行을 爲한 戰略方針이 바로 持久戰戰略이다. 毛沢東에 依하면 持久戰은 通常 다음과 같은 三段階를 거친다는 것이다.

第一段階: 敵側의 戰略的 攻勢, 我方의 戰略的 防禦時期

第二段階: 敵側의 戰略的 守勢, 我方의 反擊準備時期 - 戰略的 對峙 段階

第三段階: 我方의 戰略的 反擊, 敵側의 戰略的 後退時期

第一段階는 毛沢東의 十六字戰法을 빌어 說明한다면 敵進我退의 時期로서 運動戰이 主이고 地雷戰과 陣地戰이 副的이다. 또한 狀況判斷面에서는 「敵이 優勢하고 我方은 劣勢하다」는 根據위에서 軍事活動보다는 大衆動員을 強化하는 政治活動이 主가 된다는 것이다.

第二段階는 「敵擾我擾」「敵疲我打」의 時期로서 政治活動에 軍事活動이 從屬되나 軍事活動이 한층 그 意義를 가지는 時期이다.

地雷戰이 主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運動戰과 陣地戰이 이를 補助한다. 그러나 毛沢東은 全 戰爭期間中 蓄力을 爲한 過渡期의 段階로서 가장 困難한 時期임을 強調하고 있다. 또한 이 段階의 時間上의 長短은 「彼我間의 힘의 增減·變化의 程度 및 國際情勢」의

如何에 따라 決定된다고 한다.

마지막 第三段階는 「敵退我進」의 天地回復을 爲한 反擊段階이다. 運動戰이 主要한 形態가 되고 陣地戰과 게릴라戰이 이를 補助한다. 戰鬪은 이미 雙方이 正規軍編制에서 大規模의 作戰을 展開함으로써 反擊段階로 突入 軍事的 勝利로 이끄는 時期이다. 따라서 政府와 叛徒에 對한 政治活動은 成熟되어 結集된 힘으로 大舉 軍事活動에 依存하기 때문에 政治活動은 相對的으로 그 意義가 減少된다.

以上の 持久戰의 第三段階論은 單純히 公式的으로 展開되는 發展段階가 아니다. 毛沢東은 항상 주어진 歷史的 狀況을 重視하였고 그러한 條件속에서 프롤레타리아 鬪爭手段을 升証法으로 適用하였다.

따라서 客觀的 狀況이 프롤레타리아側에 有利할 때 반드시 三段階의인 奪權方式이 適用될 必要性은 없다. 또한 客觀的 狀況을 歷史의 흐름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主體的으로 有利한 革命情勢가 무르익도록 造成하는 義務를 共産黨이 擔當해야 한다는 것도 強調하고 있다.

아무튼 毛沢東은 共産化革命을 爲한 革命戰略面에서 그 時期와 主体, 展開過程 그리고 이를 指導할 共産黨의 意義를 後進國共産化의 特性에 알맞게 랍스. 레닌主義를 發展시켰다고 하겠다.

## 第2項 체 게바라의 「革命戰爭」

毛沢東의 革命戰略思想이 中國의 獨特한 狀況 即 광활한 地域과 中日戰爭과 國共內戰이라는 環境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체, 게바라의 革命理論은 1958년의 쿠바革命의 經驗의 所産이다. 따라서 게바라의 경우 人民革命을 展開하는 過程이나 主体面에서 毛沢東과 다른 性格을 지니고 있다. 原來 게바라의 革命戰爭理論의 根源은 毛沢東의 革命戰略思想에 淵由하고 있으나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場所」와 1950~60年代라고 하는 「時代的 狀況」에서 表現되는 毛沢東 革命戰略思想의 變種이다. 게바라는 다음의 3가지 點에서

毛의 理論을 修正하여 라틴아메리카의 狀況에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革命戰爭의 三段階論 解釈에서 差異點을 들어 내놓고 있다. 毛沢東이 持久戰 三段階의 發展에 主要關心을 가져 革命戰爭의 時間上의 概念을 作戰運用面의 運動戰, 게릴라戰, 陣地戰과 結付시키고 있음에 反하여 게바라는 第一段階를 가장 重要視하여 3段階論에는 關心을 別로 表明치 않고 있다. 게바라는 一般의으로 武裝行動의 惹起가 革命에 必要한 條件을 造成해 나갈수 있다는 立場을 갖임으로서 수어진 條件을 能動的으로 或은 叛亂集團에 有利한 狀況을 主動的으로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게바라의 경우 게릴라部隊 즉 武裝集團의 組織을 爲한 初歩의이며 槓極의인 第1段階가 가장 重要視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少數의 革命指導者들과 幹部級 게릴라戰士들의 엘리트主義가 重要視되었고 다음으로 이들 周圍에 大衆의 水準에서 充員할 수 있는 革命勢力을 構築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게바라는 情報網과 造兵廠의 設立, 그리고 公公然한 抵抗의 實際的 着手까지의 絶對的인 秘密의 保持等に 必要한 精巧한 計劃의 必要性을 역설한 것이다. 이리하여 게바라는 毛沢東이 看過한 革命戰爭의 第一段階에 重要關心을 가졌다. 게바라는 勝利를 爲해서는 게릴라戰에서 正規戰에 轉換해야 한다는 것을 是認하면서도 毛沢東에 比하여 革命全體의 實質的인 段階的 發展에는 關心이 적었던 것 같다.

둘째는 軍事的 次元의 根拠地와 軍需産業問題이다. 毛沢東은 恒久的인 根拠地 地域을 高度로 重要視하는 反面에 또한 交戰後에 게릴라를 敎訓 充員할 수 있는 大衆動員의 求心의 場所로서 根拠地를 강조했다. 그러나 게바라의 경우, 物質的 支援과 情報를 위하여 大衆的 基地에 高度로 依存했으나 毛沢東처럼 게릴라를 大衆속에서 定期的으로 充員하는 問題보다 交戰後에 게릴라를 再編成 訓練, 再供給 그리고 次期 攻擧를 爲한 休息地라는 軍事的 次元에서 重要視하였다.

게릴라部隊의 軍需産業問題에 관해서 게바라는 毛沢東보다 훨씬 뛰어났다. 毛沢東은 第一段階 및 第二段階의 作戰期間중 수시로 根據地를 變更했기 때문에 補給廠 創設의 重要性을 충분히 評價하면서도 實現치 못했다. 게바라는 쿠바革命期間중 다행히도 敵軍의 近接을 허용치 않는 恒久的인 戰略的 根據地를 시에라·마에스트라에 갖고 있었다. 따라서 카스트로가 이끄는 쿠바叛亂軍은 小火器, 구두, 담배등을 生産하는 軍需産業을 可能케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게바라의 著作은 이러한 軍需産業의 設立에 관한 經驗들을 자세히 反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게바라의 獨自性은 「게릴라戰에 있어서의 都市的 次元의 賦與」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革命戰爭의 主體를 人民=農民大衆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都市의 사보따주組, 市外게릴라部隊등을 높이 評價하는 一種의 엘리트主義에 게바라가 陷入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통상 게릴라式 게릴라戰의 展開方法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都市的 次元」의 問題는 레닌의 單期間의 都市暴動戰術과도 一脈 相通하는 點이 있다.

아무튼 게바라의 人民革命戰略의 展開方法은 1967年11月 西部 볼리비아의 峽谷에서 게바라가 이끄는 17名의 게릴라部隊가 討伐됨으로써 終末을 告하게 되었지만 以上 3가지 指稱한 理論上的 프레임은 맑스·엔겔스 以後 所謂 人民革命戰略의 理論과 實際를 發展시킨 共產主義革命理論과 함께 北韓 金日成의 人民革命戰略에 示唆되는 點이 많다고 하겠다. 다음章에서는 이러한 理論的 構造를 가지고 歷史的으로 展開된 人民革命戰略의 具體的 實例를 地域別로 檢討하기로 한다.

## 第 2 章 各國에 있어서의 「人民革命」戰略의 展開

### 第 1 節 東 歐 諸 國

#### 第 1 項 情勢의 背景과 赤化戰略의 特徵

1917年 레닌의 볼셰비크革命以後 지금까지 地球上에 많은 共產政權이 들어섰지만 東歐 8 個國만큼 第 2 次 世界大戰의 聯合國側 勝利를 橫取하여 進駐한 소련軍隊를 背景으로 共產化된 地域은 없다. 물론 北韓도 이 側에 屬한다. 東歐 8 個國의 衛星化는 國際적으로는 소련의 對東歐赤化政策의 一環으로서 世界赤化의 總本部인 코민포름의 活動에 屬하는 것이지만 對內的으로는 東歐地域內的 政治, 社會, 經濟, 軍事等 諸狀況속에서 出現한 共產政權의 性格을 지닌다. 特別히 地域內的 共產化革命의 一段階가 거의 48 年末에 끝나고 全地域衛星國에 所謂 人民民主主義政權이 들어선다. 그렇다면 이러한 人民民主主義政權을 세우기 위한 人民民主主義革命은 무엇을 意味하며, 무엇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獨裁國家를 樹立하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國家의 3 形態인 프롤레타리아國家에의 過渡의 國家形態로 移行해야만 했는가 등의 人民革命戰略의 實際의 展開過程을 살펴보기로 한다.

前述한바 있으나 人民民主主義革命은 反파스의 民族解放鬪爭과 半封建的 民主主義鬪爭을 第一段階의 革命으로 내걸고 이러한 狹義의 브르죠야民主主義革命을 社會主義革命으로 連結시켜야 하는 短縮된 共產化革命이었다.

東歐國問題 專門家인 휴지, 셋튼·왓슨教授는 이러한 共產化의 새로운 類型인 東歐赤化類型을 볼셰비크共產化類型과 區別하고 그 特

徵을 「東歐革命」이라는 著書에서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終戰後 소련은 占領 또는 解放地域에 進駐한 赤軍의 軍事力을 背景으로 하고 現地 共產主義者들을 傀儡로 내세워 이들 諸國의 共產化를 推進하였다. 尤지, 셋른·왓슨教授에 依하면 東歐赤化類型을 漸進的 三段階政策이라 特徵지우고 있다. 그렇다면 漸進的 三段階 赤化政策은 무엇인가?

第一段階에서는 劣勢한 共產黨이 赤軍의 힘을 背景으로 하여 強大한 民族主義 諸政黨과 聯合戰線을 펴고 聯立政府를 세워 共同計劃을 遂行한다. 이 段階는 흔히 聯立政府 (Coalition Government) 段階로서 真正한 民族主義者와 共產主義者가 區別되기 어려운 時期로서 共產黨은 그 勢力을 日益增大하는 한편 強大한 民族主義 諸政黨에 浸透하여 內部的 分裂과 弱화를 企圖한다.

第二段階는 가면의 聯立政府 段階 (Bogus Coalition Stage) 이다. 이 段階에 이르면 有能한 非共產主義的 指導者들을 하나씩 除去하고 民族主義政黨들을 無力한 傀儡政黨 乃至는 둘러리 政黨으로 變質시켜 名目上的 議會民主主義를 維持한다.

軍隊와 警察을 비롯한 모든 要職은 共產黨과 共產黨의 偽裝政黨에서 장악한다. 外面上으로만 假裝된 假面의 聯立政府가 存在하는 段階로서 權力的 階級的 性格面에서는 勞動者 農民의 指導下에 부르코아民主主義革命에 利用할 수 있는 階級만 둘러리階級으로 남겨 놓는다.

第三段階가 共產黨의 一黨獨裁의 段階이다. 이른바 人民民主主義라는 이름아래 反對黨은 帝國主義의 安잡이로 몰아 말살하여 버리고 한두개의 장식용 둘러리 政黨을 남긴채 거이 完全한 共產黨의 一黨獨裁가 實現되고 이로서 共產黨의 專權鬭爭이 終了된다.

특히 이 段階의 權力的 階級的 性格은 브르조아民主主義 革命에 利用될 階級이 아니라 社會主義革命에 利用될 階級에 限定하여 聯合戰線을 破는 所謂 人民民主主義革命의 社會主義的 履行에 必要한 階級獨裁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漸進的 赤化政策이 採択되었으며 共產化革命의 結果가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規定되어야만 했는가? 共產黨의 奪權鬭爭面과 社會, 經濟的 側面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奪權過程上에 이러한 穩健한 政策이 採択된 理由로서는 ① 歷史的으로 東歐國에서는 反露感情이 強했다는 것 ② 戰後處理를 論議한 알타會談(1945)에서 이들 諸國의 自決權을 公言한 바 있는 소련의 立場 ③ 유고슬라비아를 例外로 한다면 共產黨의 勢力이 未弱한 點 ④ 人民 同調를 爲한 穩健한 措置라고 解釋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列挙한 理由 가운데 共產主義運動의 本質과 關聯하여 強調하고 싶은 것은 東歐國諸國에서는 一般的으로 共產主義運動이 劣勢에 있었던 點이다. 後述하겠으나 共產主義者들의 立場에서 볼때 強調하고 있는 所謂 第2次 世界大戰時의 東歐諸國의 民族解放運動의 主体가 共產主義者는 아니었다. 때문에 三段階政策을 거치지 않고 바로 第2次 世界大戰의 終了와 함께 共產政權의 樹立이 可能했던 곳은 國內共產主義勢力이 相對的으로 強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뿐 餘餘는 他意에 依해 強要되고 外勢에 依해 造作된 革命에 不遇한 性格을 지닐 수 밖에 없었다.

다음은 生産力 發展程度에 따른 社會, 經濟 構成面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내걸지 않을 수 없었던 理由이다. 前術한 바 있으나 맑스는 歷史發展의 法則을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으로서 解決하려 했다. 때문에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이 무르익지 않은 곳에서의

社会主義革命이란 不可能한 것이었다. 이러한 도그마가 東歐諸國에서 위로부터의 革命에 依存할 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便法이라고 본다. 第2次大戰을 基點으로 하여 본 東歐諸國의 社会經濟構成은 封建的 要素와 初期資本主義的 要素가 混合된 狀態下에서 多様な 性格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外國資本의 浸透와 파시즘의 支配, 影響力이라는 外勢의 桎梏을 打破해야 할 微妙한 民族 乃至 階級問題를 안고 있었다.

工業은 發達되었지만 아직도 農業國의 地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체코슬라키아, 아직도 農業革命이 未解決된채 남아있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農業部門에 있어서 反封建土地革命의 課題가 산적된 불가리아 등이 있었다.

獨. 伊파시즘과의 關係에서는 거의 모든 東歐國家가 그 支配나 影響下에 있는 狀態이었다. 例컨대 民族的 國家機構가 崩壞되어 히틀러 파시즘의 直接 占領下에 놓인 폴란드, 체코슬라키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파시스트와 同盟關係에 있었으며 알바니아 역시 파시즘의 支配下에 있었다.

이러한 情勢의 背景下에서 事實上 東歐人民民主主義革命에 積極的으로 支柱役割을 한 것은 소련의 볼셰비크 이메울로기와 戰後에 進軍한 赤軍이었다. 東歐人民民主主義의 成立과 發展에 對해서 소련이 끼친 影響力은 다음과 같다.

(1) 소련軍은 中東歐諸國을 파시스트의 侵略으로부터 直接 解放한 解放軍으로서 自如할 수 있었으며 占領軍으로서 그 地域 共產主義者들을 直接的으로 援助하고 反對派를 除去할 수 있는 背景勢力이 되었다는것. (유고와 알바니아는 除外)

(2) 히틀러의 同盟軍인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의 武裝力을 粉



碎하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나치스占領軍의 國家機構를 破壞하였다는 것.

(3) 英國과 美國의 干涉計劃을 挫折시켰다는 것.

(4) 成立된 人民民主主義諸國에 精神的 經濟的 政治的 援助를 행하였다는 것.

(5) 그의 變革과 社會主義建設에 소련이 經驗과 先例를 提供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東歐國에서 展開된 人民民主主義革命的 類型을 살펴보기로 한다. 問題處理의 便宜上 東歐國에 屬하고 있는 各國別의 社會, 經濟構成, 當面하고 있는 革命的 段階, 獨·伊파시즘과의 關係, 民族統一戰線의 構成과 그의 綱領 및 所謂 民族解放鬪爭의 發展과 그 사이의 프롤레타리아前衛黨의 체계모니 確立 程度에 따라 4구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東歐에 있어서의 人民民主主義의 發展過程은 特히 反파시즘 民族解放鬪爭의 特殊性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체계모니 程度 如何에 따라 移行의 速度가 다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第1類型: 共産黨이 指導하는 人民解放戰線이 發展하여 1944年 가을, 國土의 解放과 함께 政權을 獲得하고 즉시 소련을 모방한 社會主義建設에 着手할 수 있었던 國家로서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독일에 對한 레지스탕스運動에 있어서 共産黨이 國內의 主黨派나 民族主義勢力에 主導權을 가진 채 黨勢를 擴張한 例이다.

第2類型: 독일에 對한 抵抗運動의 勢力이 強하여 全國의 武裝蜂起에 이른 國家, 共産主義政黨은 民族戰線의 指導權을 장악하였지만 小市民에 基盤을 둔 政黨이 큰 영향력을 發揮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軍을 背景으로 쿠데타에 依해 政權을 獲得한 例에 屬한 國家이다.

( 불가리아 )

第3類型 : 共產黨 主導下의 對獨抵抗 運動이 弱화된 國家로서 直接 獨逸의 占領下에 있어서 民族的 國家機關이 存続할 수 없었기 때문에 解放後 一時 亡命政權과 統一政府를 樹立한 例에 屬한 國家로서 民主主義的 要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 체코슬라비아, 폴란드 )

第4類型 : 広範한 反獨소 活動이 없고 民主勢力의 結集이 弱하여 主体的 條件이 成熟하지 못했기 때문에 人民民主主義政權의 樹立에 解放後 약간의 期間을 거쳐서 漸進的으로 達成한 國家 ( 루마니아, 헝가리 )

## 第2項 「人民革命」戰略의 展開

### (1) 유고슬라비아

1919年 4月에 成立된 유고의 共產黨은 30年代 派閥紛爭으로 一時 弱화를 免치 못하다가 1940年代 티토傘下에 黨勢를 再整備한 以後 抗獨戰爭을 開始하여 1945年末 聯邦人民共和國을 樹立하고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하는 所謂 人民民主主義革命의 過程은 時期的으로 3段階를 밟았다고 해석된다. 第1段階가 民族解放鬪爭期, 第2段階가 民族的 民主主義革命期, 第3段階가 社會主義革命期이다.

第一段階의 共產主義戰略의 特徵은 ① 對獨抗戰의 세르비아 民族主義를 앞세워 共產黨 主導下의 聯合戰線의 結成 ② 聯合戰線의 運用에 依한 王党派勢力의 孤立化 ③ 共產黨勢의 擴張과 解放後 王政을 廢止할 基盤의 造成에 두었다.

旧유고軍이 獨逸의 侵入을 받아 潰滅하자 地下活動을 開始한 共產黨은 反나치의 슬로건을 前面 내걸고 民族主義運動의 偽裝下에 民族

解放戰線(後에 人民戰線으로 改稱)을 結成하고 黨勢擴張을 爲한 蓄力活動을 開始하였다.

유구共産黨 中央委員會는 41年 6월에 國內의 愛國者를 動員하여 占領軍에 對한 廣範한 빨치산鬪爭을 總動하였다. 共産黨指導下의 빨치산活動은 同年 7月과 8月에는 全國的인 規模로 먼저 9月에 이르자 많은 解放區가 發生하였다. 9月中旬에는 共産黨政治局은 티토를 中心으로 한 빨치산部隊의 最高司令部를 組織할 수 있었다. 41年末부터 42年初에 이르기까지 各 빨치산部隊로부터 兵士를 選拔하여 機動部隊가 編成되었고 42年 12月에는 最初로 旅團이 創設되었다. 이것은 그후 師團, 軍團으로 發展하였고 對獨抗戰의 구실을 理由로 聯合國側의 武器援助를 받아 終戰이 다가올 무렵에는 같은 빨치산運動의 王黨派인 미하일로비치의 勢力과는 比較될 수 없을 만큼 強力한 人民解放軍으로 發展하였다.

또한 이러한 共産黨勢力擴張을 爲하여 티토는 民族解放運動의 偽裝된 假面下에 所謂 民族的 民主主義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을 連結시킬 수 있는 基盤造成을 爲한 鬪爭目標을 내 걸었다.

「民族解放을 目的으로 하는 鬪爭과 占領軍에 對한 軍事抵抗과를 사보타주와 妨害工作의 形態로서 統行하여 各種의 色彩를 지닌 民族背叛者, 反動家를 人民大衆으로부터 隔離시키고 人民解放運動에 對한 勞動階級의 指導의 役割을 強化하여 屈辰의 降服의 責任者인 亡命政府內의 反動分子의 背叛行爲를 摘發하고 占領軍 및 그 幫助者 즉 國內의 背叛者에 對한 全面的 鬪爭을 展開함과 同時에 好機를 捕捉하여 全國的 武裝蜂起를 일으키기 爲한 政治的 및 組織的 準備運動에 愛國的 勢力을 結準한다」

即 初期의 鬪爭目標은 共産化革命의 基礎作業으로서 反獨聯合戰線

의 레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共產黨의 主導權下에서 愛國的 勢力을 結集하여 民族背叛者를 遂出하여 終局的으로 人民蜂起의 隊列을 갖추어 놓자는 消極的인 民族的 民主主義 革命段階에 있었다. 그러나 共產主義運動의 發展에 따라 解放區가 擴大되고 終戰이 臨迫하여오자 鬭爭目標과 活動도 共產主義運動의 本然의 色彩를 露骨의으로 나타내기 始作하였다.

첫째는 各 解放地區에 權力機關의 設立이다. 41年 가을부터 各 解放區에 民族解放人民委員會를 設置, 單純한 軍事活動의 補助組織으로서 存立시킨 것이 아니라 舊國家機關의 破綻에 依해서 새로운 人民의 權力을 구축하는 上級形態의 權力機構로 發展시킨 것이다. 이것은 尤高共產主義運動이 民族解放의 課業만이 아니라 社會的 解放이라는 課題 即 革命的 民主主義變革의 偽裝下에 共產化革命의 課題까지도 遂行할 수 있는 基層的인 權力機構를 獨逸軍의 敗退에 앞서 구축해 놓은 것이다.

둘째는 亡命政府의 拒否와 王室의 掃國禁止 措置이다. 42年 11月에는 民族解放反파소會議(AKVOJ)를 開催하고 執行委員會를 選出하였고 43年 11月 第二次會議에서 AKVOJ가 尤高의 最高國家機關임을 確認하고 舊權力的 存在를 一切 否認함으로써 未來의 尤高는 民族平等에 立脚한 聯邦國家임을 宣言하였다.

셋째는 獨逸占領下에서 一時 손을 잡았던 王黨派勢力을 排除한 것이다. 富樫과 부르코아지에게 基盤을 가졌던 미하일로비치의 勢力을 除去함으로써 1944年 가을 蘇聯軍이 敗走하는 獨逸의 敗殘兵을 追擊하여 尤高의 國境에 殺到하였을 때 AKVOJ는 이미 尤高 全境에서 國內의 獨逸協助主義者와 王黨派의 勢力을 구축하는 段階에 있었다. 때문에 44年 11月初에는 共產黨 主導下에 首都를 完全히 장악하고 同月 末까지 全國土를 解放함으로써 同時에 共產黨 主導下의 새로운 形態의 國家權力的 誕生과 強化가 可能하였다.

解放과 함께 極力을 장악한 AKVOJ 幹部회는 民族解放鬭爭은 終了되고 民主主義革命의 段階에 突入하였음을 宣言하고 그 作業에 着手하였다. 그러나 유고共産黨은 解放後 強大한 政治勢力으로 登場할 수 있었으나 바로 社會主義革命의 段階로 移行할 수 있는 政治, 社會, 經濟的 條件이 未熟하였다. 때문에 短期間的 民主主義革命의 過程을 거쳐 共產主義로 移行하는 人民民主主義 形態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民主主義革命의 段階에서 행한 政策의 두드러진 特徵은 勞農同盟 主導下의 民族資本家, 小市民 富農을 包含한 人民戰線을 維持한 點이다. 때문에 階級路線面에서는 大地主, 弁辦資本家 및 王党派勢力의 除去에 限定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勢力의 除去에는 共産黨 主導下의 人民戰線의 名目으로 施行되었으며 45年 11月에 實施된 憲法議會選舉에서 人民戰線은 95%의 支持를 획득하였음을 注目할 만한 事實이다.

44年 11月 AKVOJ 幹部회는 大資本家와 王党派勢力의 除去를 目的으로 獨·伊資本 및 占領軍과 協力한 資本家의 工業企業의 國有化를 一次的으로 斷行하고 聯合國과 中立系의 資本企業의 假差押을 決定하였다. 또한 45年 5月에는 民族的 財産의 保護에 關한 法律을 發布하고 8月에는 土地改革을 斷行함으로써 大地主를 除去하였다. 그러나 46年 1月 聯邦人民 共和國의 新憲法을 採択함과 同時에 이러한 所謂 民主主義革命의 成長을 바로 社會主義革命에 轉化시키려는 作業이 開始되었다. 富農과 民族資本家の 除去가 바로 그 것이다. 46年 12月에는 銀行, 保險, 會社, 工業, 運輸等の 全國的 重要 私企業의 國有化, 48年 4月 小企業을 包含한 第二次 國有化 富農總沒化 法令等으로서 48年 末에 別써 聯合獨裁의 政

治權力の 階級的 性格을 共產黨 主導下의 勞農階級으로 좁혀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革命의 建設期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2) 불가리아

東歐赤化의 第2類型에 屬하는 불가리아는 유고슬라비아 만큼 共產化 過程이 순탄하지 못하였다. 그 理由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對獨解放鬪爭에 共產黨의 勢力은 있었으나 主導權을 장악하지 못한채 解放을 맞이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相對的으로 社會民主黨 左派와 無黨派의 勢力이 強하여 이들을 除去하는데 時間이 要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는 第2次大戰時 불가리아政府가 樞軸國에 加盟하였기 때문에 47年 파리議和會議時까지 聯合國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있어야 했던 露骨의인 共產化革命으로 들고 갈 수 없는 國際的 狀況의 制約이 있었다.

1919年 5月에 創立을 본 불가리아共產黨은 34年 勞動黨이라 改稱되었고 36年에 이르러서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일환으로서 反 反獨人民戰線의 方針을 내세웠다. 第2次 世界大戰의 반발과 함께 中立을 宣稱한 불가리아政府가 獨逸軍의 無條件 進入, 通過를 認定하자 反獨 人民戰線의 具體的 結成에 黨의 一次的 關心을 表明하게 되었다. 그러나 事實上 人民戰線의 結成은 共產黨의 主導下에 이룩되지 못하였다. 42年 8月 農民同盟의 左翼 쑤웨노(反 獨士官團과 一部分의 反獨브르조아代表), 社會民主黨의 左翼 및 無黨派의 知識人들이 「祖國戰線」을 結成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祖國戰線이 44年 여름 소련軍의 進駐를 機會로 解放 即後의 불가리아 全域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背景下에서 불가리아에는 2次大戰의 終了와 함께 「祖國

戰線」政府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政府의 構成은 共產黨 4, 農民同盟 4, 쏘웨노同盟 4, 社會民主黨 2, 無所屬 2의 比率로서 聯立政權의 性格을 지녔으나 共產黨은 內相과 法相과 같은 重要 部署를 차지하였다. 불가리아 共產黨은 共產化 過程의 一段階로서

① 反 人民의 팻시스트 警察機關의 紛碎와 民衆에 依한 代替  
② 팻시스트制度의 一掃 ③ 農民同盟을 비롯한 社會主義黨派의 體質 改善等을 所謂 民主主義革命이라는 美名下에 實施하였다. 特別 注目할만한 事實은 當時 反獨士官團과 民族主義者들로 構成된 쏘웨노 同盟의 勢力이 強力하자 이를 弱화시킬 目的으로 그 指導者를 除去하고 共產黨에 追從할 수 있는 共產主義者로 代替시켰으며 이러한 手法은 農民同盟을 비롯한 社會民主黨에게도 加하여 둘러리 政 黨으로 軛落시킨 點이다. 또한 大衆의 反撥과 聯合國管理委員會의 抗議를 무마하기 위해서 大私有地, 銀行, 商業 等도 47年 末까지 私的 所有를 認定하였다.

이리하여 45年 11月의 國會選舉에서 祖國戰線의 圧倒的인 勝利 를 거두었다. (投票率 88.1%, 人民議會의 構成은 勞動黨 94, 農 民同盟 94, 쏘웨노同盟 45, 社會民主黨 31, 急進黨 1, 無所屬 1.) 또한 46年 9月에는 人民表決에 依해 92.7%의 贊成으로서 王 制를 廢止하였고 同年末에는 大國民議會選舉를 共產黨 特有的 選舉 方式인 政黨別 投票로서 行하여 祖國戰線의 得票率이 70%, 그 中 共產黨이 54%를 차지하게 되었다.

47年末 工業, 鉦業, 運輸의 國有化를 斷行하고 經濟復興 2個年 計劃을 發表하는가 하면 「祖國戰線」政府는 이미 프롤레타리아獨裁

의 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基礎 造成의 段階에 들어지게 되었다. 48年 2月 「祖國戰線」 第2回大會는 勞農同盟의 周圍에 놓아 둔 둘러리 政黨을 單一의 政黨組織으로 吸收하고 그 綱領을 社會主義 建設을 爲한 것으로 改正하였다. 以上과 같이 불가리아에서는 47年末의 國有化를 始點으로 社會主義의 基礎建設段階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 (3) 폴란드

1918년에 誕生한 폴란드 共產黨은 38년에 코민테른에 依하여 解體되었으나 39年 獨逸軍의 占領과 폴란드共和國 政府의 英國에의 亡命과 때를 같이하여 42年 1월에 폴란드勞動黨으로 改稱하여 다시 創設을 보게 되었다. 43年 5월에는 소비에트領域 內의 勞動黨 農民黨左派 社會黨이 結束하여 愛國者聯盟을 結成하고 抗獨鬪爭을 開始하였으나 抗獨鬪爭은 名分에 지나지 않았고 弱小的 共產黨의 勢力擴張에 급급하였다. 終戰이 다가오는 44年 런던 亡命政府의 指示를 받고 있던 抗獨團體는 보-르 코모로브스키將軍의 指導下에 事實上 國內 抗獨軍의 主導權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勞動黨의 一次的 關心은 보-르將軍의 民族主義團體의 弱化에 心血을 기울이게 되었다.

44年 8月 聯合國勝利가 到來하였을 때 國內抵抗軍이 獨逸占領軍에 對하여 有名한 瓦르소蜂起를 일으켰으나 폴란드 勞動黨은 奮力을 爲한 手段으로서 潛伏한 者 남아 蜂起에 加担하지 않았다. 때문에 獨逸占領軍에 依하여 國內民族主義者들을 포함하 25万名 (市民 包含)이 殺傷됨으로서 終戰의 解放과 함께 弱勢한 勞動黨



이 相對的으로 強化됨으로서 45年 6月, 聯立形態의 臨時統一政府에서는 主導權을 장악할 基礎을 굳힐 수 있었다.

臨時統一政府時期的 政黨分布를 본다면 勞動黨 6, 폴란드農民黨 3, 農民黨 3, 社會黨 6, 民主黨 1, 無所屬 2로 構成되어 있었다. 45年 2月에는 이미 工場委員會를 設置하고 私的 企業에 對한 勞動者의 統制를 確立하는가 하면 46年 1月에는 모든 銀行, 鐵道, 自動車運輸, 通信手段, 勞動者 50人以上の 工業企業을 國有化하는 措置를 取하였다.

한편 46年 6月 人民投票를 實施하여 自由民主主義的 二院制를 廢止하고 聯立政權의 諸黨派의 除去와 縮少作業에 焦點을 돌렸다. 폴란드 共產主義者들은 聯立政府에 強大한 勢力을 차지하고 있는 農民黨의 遂出로부터 始作하였다. 1947年 1月의 國會議員選舉가 그 좋은 例이다.

農民黨에 對한 共產黨의 戰術은 레닌이 1917年 러시아에서 社會革命黨에 對한 戰術을 援用한 것이었다. 農民黨 立候補者에 對한 公公然한 테러戰術, 暴力에 依한 立候補屈의 取下強要, 公開投票의 強行, 反對投票를 할 念慮가 있는 選舉人의 投票用紙破棄等 農民黨 立候補者 除去를 爲해서는 갖가지 手法을 使用하였다.

이같이 恐怖露困氣속에서 實施된 選舉結果 共產黨이 主誘하는 民主 불력은 80.1%로 壓倒的 勝利를 건우게 되었다.

다음 選舉가 끝나자 共產黨의 目標은 미코라이치크의 農民黨을 解体시키는 일이었다. 1947年 6月 共產黨이 支配하는 治安當局은 農民黨本部를 突然 손질하여 反政府 親西歐分子를 일제히 檢挙

하였다. 党幹部가 차례 차례로 逮捕되어 가는 가운데 生命의 危  
脅을 느낀 미코타이치크는 同年 10月 国外로 亡命하였다. 이리  
하여 党首를 잃은 農民党的 殘存分子는 政府에 협조를 안할 수  
없게 되어 農民党은 事實上 解体되었다.

前述한 바 있으나 聯立政府의 時代로 부터 共産党 一党獨裁로  
넘어가는 時期에 있어서 東歐의 共産主義者들이 農民党을 彈圧한  
것은 루마니아를 비롯한 헝가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4) 루마니아와 헝가리

44年 8月, 루마니아에서는 社会民主党과 共産党이 겨우 無  
任所長官을 차지하는 「民族民主戰線」 聯立政府가 成立하였다.  
共産党은 自体勢力的 強化를 爲해서는 國民의 同調가 必要하였다.  
때문에 共産党은 土地改革, 市民의 自由, 과시즘체제의 打倒 및 소  
련의 參戰을 要求하는 大衆데모의 組織等 一聯의 穩健한 鬪爭目標  
를 提示할 수 밖에 없었다.

44年 末에 共産党的 策動에 依하여 大衆의 基礎를 가진 民族農  
民党和 自由党에 主導權을 넘긴채 2次內閣의 成立을 보았으나 共  
産党이 아직도 主導權을 장악할 수 있는 段階는 아니었다. 겨우  
共産党은 法務長官, 通商, 內務次官의 部署를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  
았다.

이 內閣도 大衆데모에 仝해 붕괴되고 英·美와 緊密한 關係를  
가진 第3次內閣이 成立되자 共産主義者들은 大衆데모를 造作하여  
45年 3月에 民族民主戰線內閣을 結成하고 內務, 法務, 通信長官의

部署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단 聯立政府의 形態下에서 共産黨이 主導權을 장악하게 되자 土地改革과 選舉制度의 改革을 斷行하는 한편 反對政黨勢力의 除去를 爲한 工作을 開始하기 시작하였다. 46年 1月の 모스크바會 議의 決定을 契機로 먼저 社會民主黨 右派를 孤立시키기 위해 3月에는 所謂 民主政黨的 選舉블럭을 結成하고 이 블럭에는 共産黨을 비롯한 農民戰線, 人民黨, 農民黨만을 包含시키었다. 이러한 選舉블럭을 가지고 46年 11月 國會選舉에서 勝利를 거두자 中央銀行의 國有化, 大工業管理局의 設置等 一聯의 社會主義 改革을 爲한 基盤을 닦았다.

47年 12月末에는 國民自由黨을 國家機關에서 追放하고 國會選舉에 臨하였다. 이 選舉에서 共産黨의 目標은 最終적으로 大衆의 支持를 받고 있는 民族農民黨의 除去에 있었다.

共産黨은 反對派의 中心인 民族農民黨 黨首 마누를 國家叛逆罪로 투옥시키고 民族農民黨의 解体를 命令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事件에 關聯하여 社會黨 左派를 除外한 非共産黨 指導者가 차지하고 있던 外相, 藏相, 文化相 等を 해임시켰다.

이렇게 共産黨 反對派의 除去로 戰列을 갖춘 共産黨은 大衆基盤이 弱한 少數勢力의 둘러리 政黨만으로 構成되는 民主블럭의 選舉體制를 가지고 48年 國會에서 圧倒적으로 勝利하게 되었다. 同年 4月에 憲法을 發布하고 6月에는 工業, 銀行, 釵山, 運輸業 等の 國有化를 斷行함으로써 社會主義改革期의 基礎를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헝가리에서는 1945年 11月 런던外相會議의 決定에 根拠를 둔 總選舉가 行해졌다. 이에 앞서 共產黨은 急進불력에 有利한 새 選舉法을 公布했음에도 불구하고 公산당의 得票는 겨우 17%에 지나지 않아 小地主黨이 大勝하였다.

國會議席의 比率로는 小地主黨 65席, 共產黨 17, 社會民主黨 17, 農民黨 8의 順位였다. 이에 共產黨은 小地主黨의 除去를 위하여 46年 3月 共產黨 指導下에 民族獨立戰線의 內部에 左翼불록( 共產黨, 社會民主黨, 民族農民黨, 勞動組合)을 結成하였다. 이리하여 小地主黨은 反政府陰謀事件에 말려들어 무너지고 그 左派만이 名目을 維持하였다. 47年에 들어서자 소련軍이 介入하여 同年 5月 小地主黨 黨首 페렌츠 나지는 스위스로 脫出하고 首相 辭任을 表明하였다.

後繼首相은 小地主黨 左派의 디네슈였으나 그에 依해 改正된 選舉法아래 實施된 47年 8月의 總選舉에서 慘敗당했다. 共產黨 主導下의 民族獨立戰線이 60%를 차지하여 共產黨은 45年의 選舉에 比하여 40% 增大라는 勢力擴張을 보였다.

48年 初에 들어서자 共產黨은 다음으로 第2政黨인 社會黨 右派의 排除를 시도하는 한편 急進의인 쿠메타에 依해 一黨獨裁體制를 確立하였다.

## 第 2 節 東 南 亞 諸 國

### 第 1 項 情勢의 背景과 共產主義運動의 特徵

東南亞共產主義運動의 起源은 레닌의 볼셰비크命令以後 코민테른의 組織을 바탕으로 展開된 東方迂迴戰略과 關係된다. 東南亞에서는 大개가 1920年代 世界赤化를 위해 各 地域에 派遣된 코민테른 組織員의 指導下에 創設되었다. 1930年代 이 地域의 共產主義運動은 主로 植民地抵抗運動의 一環인 民族主義運動에 便乘하여 展開되었으나 中國을 除外한 餘他地域에서는 그 勢力이 強大하지 못하였다. 終戰이 다가오는 1940年代 中半期에는 中國을 비롯한 馬來, 필리핀, 인도지나半島의 共產主義者들은 抗日人民軍의 武裝力을 背景으로 民族主義運動의 假面을 벗어버리고 본격적인 各 地域 共產化를 위한 奪權鬭爭路線으로 轉換하고, 더욱기 1948년 스탈린의 이른바 兩大牌當論에 基礎를 둔 아시아全域에 걸친 赤化攻勢는 이 地域의 共產主義運動이 모두가 武裝鬭爭路線으로 轉換되는 契機를 만들었다.

20世紀 中엽 東南亞의 政治狀況은 外國의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 狀態에 놓여 있거나 政治的 獨立을 成就한 後일지라도 政治的 訓練이 未熟하고 指導者들의 指導力量이 不足하여 政治的 不安定狀態가 持續된 채 있었다. 國民들은 指向할 바 目標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方向感覺을 가질 수 없었다. 指導者들은 無能한데다가 腐敗하고 國民에 對한 적절한 統制力조차 發揮하지 못한 狀態에 있었다. 一部國家에서는 獨裁化 傾向을 나타내어 警察國家의 手法으로 國民들의 自由를 彈壓하며 이로 인해 國民들의 對政府

信頼度を 激減시킨 것이 그 政治的 狀況이었다.

經濟的으로는 長期間에 걸친 植民地統治로 말미암아 一般的으로 都市에서는 一部 資本主義的 經濟가 發展하고 있으나 全般的으로는 如前히 前近代의 封建的 經濟體制가 維持되고 있었다. 全般的으로 農村人口가 絶對多數를 占하는 農業經濟構造를 갖고 있으면서도 農民들은 農土를 갖지 못한 채 高利債에 시달려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植民地統治下에서 이룩된 不均衡인 産業構造로 말미암아 買辦資本以外的 民族資本이란 보잘것 없는 형편이었다. 政治的 獨立을 成就한 後에도 資本의 欠乏, 技術의 不足, 植民地的 産業構造의 偏頗性, 그리고 傳統的인 保守性 등이 經濟發展을 阻害하고 있었다. 또한 原料는 廉價로 被奪당하고 勞動力은 廉價이기 때문에 政治的 自由보다는 차라리 먹고 사는 問題가 심각한 問題로 대두되었다.

社会的으로는 傳統社會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前近代的 社會의 特徵을 共通的으로 가지고 있었다. 思考方式이나 生活方式은 如前히 封建的 또는 半封建的 狀態下에 놓여 있으며 全般的으로 教育水準과 保健管理水準이 낮고 文盲率과 人口增加率은 높다. 中産層은 아직 形成되지 않았고 傳統的 保守性에 執着하는 宗教的 思想的 影響은 크다. 한편 一部地域은 複合社會를 形成하고 있어 人種問題 내지 宗教問題조차 提起되고 있다.

이러한 脆弱性을 지니고 있는 東南亞地域 住民들 사이에는 政治的 獨立과 安定을 이룩하고 經濟的 貧困으로부터 解放되고 또한 社會的 後進性을 克服하여 짧은 時日內에 보다 높은 生活水準을 維持하려는 慾望이 漸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政治, 經濟, 社會的 背景下에서 東南亞地域의 諸般 脆弱性

을 利用하여 既存政權을 뒤엎고 共產主義政權을 세우려 한 이 地域 共產主義運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一般的 特徵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는 共產主義運動이 民族主義運動에 便乘하여 展開된 点이다. 植民地 또는 反植民의 예속狀態下에 놓여 있었던 東南亞諸國이 西歐에서 수입된 民族主義思想에 붙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第一次 世界大戰以後이다. 第2次大戰을 契機로 이 地域 民族主義運動은 高潮에 達하였고, 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民族主義運動이 達成한 成果를 橫取하여 共產化를 達成하려 한 것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民族主義運動의 便乘과 關聯된 聯合戰線의 戰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所謂 民族解放鬪爭期에는 民族 對 民族의 矛盾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民族의 團結을 모색할 수 있는 모든 階級과 社會勢力의 團結을 가장한 것이 바로 共產化戰略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東南亞에서의 聯合戰線理論의 적용원리는 毛沢東의 말을 빌린다면 中間勢力을 획득하여 敵을 孤立化시킴으로써 共產黨勢力을 強化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이 地域의 共產化革命을 人民民主主義革命 乃至는 新民主主義革命으로 내걸고 革命後에 樹立되는 政府形態도 人民民主主義 또는 新民主主義國家로 規定한 것이다. 이 點은 東南亞의 社會經濟的 構成이 半封建的 要素와 初期資本主義的 要素를 共有한 生産力 發展의 段階를 注視한다면 쉽게 이해가 간다.

넷째로는 셋째번의 情勢的 背景이 理由가 되는 것이지만 革命의 主体階級으로 農民을 利用한 것이다. 따라서 革命의 目標으로서와 鬪爭目標의 提示에 主로 土地問題가 強調된 点이다.

다섯째로는 共產化를 爲한 人民革命戰略의 類型으로 主로 毛沢東

方式이 適用되고 있다는 点이다.

## 第2項 中国的 革命戰爭

中国共産黨이 全中國을 장악하고 소위 人民民主專政을 實施하는 「中華人民共和國」을 樹立한 1949년에 이르기 까지의 中国共産主義運動은 4期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다.

第1期: 第1次革命戰爭期(또는 第一次 国共合作期) 1921 ~ 1927年

第2期: 第2次革命戰爭期(또는 井岡山鬪爭期) 1927 ~ 1936年

第3期: 抗日民族戰爭期(또는 第2次 国共合作期) 1937 ~ 1945年

第4期: 第3次革命戰爭期 1946 ~ 1949年 여기서는 毛沢東의 人民革命戰略理論에서 이미 言及된 內容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中国革命戰爭의 歷史的 展開過程만을 概觀하는에 그치기로 한다.

### (1) 中国共産黨의 結成과 初期共産主義運動

中国共産黨은 1921年 7월에 50餘名の 黨員으로서 創立되었으나 그것은 中国人 自身들에 依하여 創立된 것이 아니었다. 레닌의 東方迂廻戰略에 따라 콤민테른 極東部長의 손에 依해 共産黨이 組織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共産主義運動의 第1期の 特色은 中国共産黨路線과 鬪爭目標가 콤민테른의 指示에 依存하여 레닌式 路線을 中国에 適用하려 한 追從主義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中共黨은 最初 2年間 勞動運動에 과고 들고자 힘썼으며 全國의 大都市와 工業中心地에서 勞動者들의 罷業을 惹起시켰다. 그러나 콤민테른의 指示에 따라 1923年 부터는 強大한 革命的 組織體인 國民黨과 合作하게 되었다. 소련과 콤민테른은 現 中国情勢로



보아 「中國共產黨은 당분간 中國國民黨의 權威를 빌려 그 그늘 밑에서 大衆과의 接觸을 擴大하고 自體의 力量을 強化하도록 努力해야 한다」는 理由로 親蔣의 路線을 걷는 孫文의 부르조아黨에 「党内合作」할 것을 指示한 것이다. 이리하여 共產主義者들은 國民黨의 간판아래서 勞動者와 軍隊內에 뿌리박기 시작하였다. 勞動組合은 280 萬의 勞動者를 農民組合은 950 萬의 農民을 포섭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5年 3月 國共合作의 象徴인 求心體인 孫文이 死亡한 뒤로 國共合作 反對派의 成長에 不安感을 가지고 있던 共產黨은 당시 國民革命軍이 北伐을 成功한 後方에서 당장에 社會主義政策을 實施하고 自派勢力의 擴大를 피하여 왔다. 1927年 3月에 共產黨은 勞動者들의 蜂起를 일으켜 上海를 占領하였다. 蔣介石은 上海에서 쿠데타를 감행하고 共產黨에 對한 掃蕩戰을 開始함으로써 國共合作은 決裂되기 시작하였다. 1927年 4月以後 危險한 段階에 도달하게 된 共產黨은 소련의 指示에 따라 과격한 暴動主義路線으로 轉換하였다. 各地에 소비에트政權을 樹立함으로써 共產黨의 氣勢를 만회하고자 한 것이다. 8月1日에는 朱德, 賀龍, 葉挺 등이 共產黨 影響下에 있던 北伐軍隊 3萬餘名을 投入하여 南昌暴動을 일으키고 政權을 세웠으나 蔣介石의 假借없는 鎮壓政策으로 數日後에는 失敗하고 말았다. 또한 秋收期를 利用하여 江西, 廣東, 江蘇, 湖南 四省에서 이른 바 秋收暴動을 일으켰다. 그 중 湖南省의 暴動은 毛澤東이 指揮하였으나 모두 失敗하고 말았다. 12月에 廣東에서는 武裝暴動을 일으켜 廣東農會를 세웠으나 이 역시 3日을 넘지 못하였다.

暴動主義路線에서 完全히 失敗한 中共黨은 1928年 여름 다시 소련의 指示에 따라 일단 慎重主義路線으로 轉換하였다. 그러나 1929년에는 다시

暴動主義로 환언하였다. 李立三의 計劃에 따라 1930年 7月 長沙에서 暴動을 일으켰으나 역시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국 레닌의 東方迂迴戰略의 一環으로서 創立된 中國共產黨은 國共合作을 한以來 暴動主義로 轉換할 때까지 줄곧 소련의 指示下에 움직여 왔다. 그러나 中國의 現實에 맞지 않는 소련의 指令에 盲從함으로써 失敗를 反覆한 것이다. 中國共產黨의 再起와 發展을 爲하여는 中國의 具體의 現實에 알맞는 現實主義의 路線의 採択이 不可避하였다. 이른바 알스. 레닌主義의 普遍的 真理를 中國革命의 具體의 實踐에 적절히 結合시키는 길을 發見한 것은 毛沢東路線으로 부터 비롯된다.

## (2) 第2次 革命戰爭 (1927 - 36)

毛沢東은 中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革命運動은 勞働者들에 依한 「都市暴動」에 依存할 것이 아니라 農民을 爲主로 하는 農村地域에서의 「革命戰爭」에 依存해야 한다는 信念을 가지고 秋收暴動 失敗後 千餘名의 武裝農民들을 거느리고 1927年 10月 井岡山에 이르렀다. 「中國問題는 武裝力을 떠나서는 解決할 수 없다」 「政權은 銃口로 부터 생겨난다」 「革命의 中心任務와 最高의 形態는 武裝에 依한 政權의 奪取요, 戰爭에 依한 問題의 解決이다」고 信奉한 毛沢東은 井岡山 一帶에 根據地를 두고 있는 王佐와 袁文才를 頭目으로 하는 匪賊團과 聯合하였다. 1928年 5月에는 南昌暴動을 일으켰던 朱德이 2千餘名의 敗殘軍을 이끌고 와서 毛沢東과 合流하여 朱毛軍(紅軍 第4軍)을 形成하였다.

軍事經驗을 豊富히 지니고 있는 朱德과 그의 部隊가 온 以來 井岡山에는 學校와 兵舍를 세우고 部隊를 整備하고 軍事訓練도 本格化하기 시작하였다. 小銃 75挺을 單位로 하는 中隊 4個로서

1個大隊를 編成하고 3個大隊와 特務中隊機關銃中隊，迫擊砲中隊 그  
리고 聯隊本部로서 1個聯隊를 編成하였다. 이밖에 地方民으로 紅  
衛隊를 組織하여 主力部隊를 補助하게 하였다.

한편 朱毛軍은 農民의 支持를 얻고자 根拠地와 遊擊區에서 土地  
改革을 實施하고 政權을 세우고 黨과 大衆組織을 만들어 大衆動員  
의 幅을 넓혀갔다. 大衆을 動員하여 이를 武裝하고 그 勢力範圍  
를 넓히는 한편 敵의 強力한 攻撃에 견디어 내기 위하여 게릴라  
戰術이 使用되었다. 十六字戰法으로 要約되는 이 게릴라技術은 最  
初 3年間の 井岡山鬪爭을 통하여 體系化되고 그 實効性이 立証되  
었다. 특히 大衆動員을 担当할 兵士들에게는 「三大規律과 八項注  
意」가 強調되었다. 이렇게 하여 大衆動員은 擴大되고 蔣介石軍의  
散発的인 討伐戰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었으며 井岡山을 中心으로  
하는 根拠地以外에 다른 여러 곳에도 根拠地를 建設하고 그 面積  
을 넓혀갈 수가 있게 되었다.

1930年에는 一團 6萬名の 軍隊를 保有하게 되었고 드디어  
1931年 11月에는 瑞金을 首都로 하는 「中華 소비에트共和國」  
을 宣布하고 中國本土 總面積의 1/6 과 人口 6千萬을 支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1930年 여름에는 李立三이가  
主導權을 장악한 黨의 指令에 依하여 朱毛軍이 長沙 및 南昌  
等 大都市攻撃을 實施한 바 있으나 무참한 失敗로 돌아가고 말  
았으며 그 이후 毛沢東의 遊擊主義路線은 党内에서도 어느정도 확  
고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즉 中國革命이 都市에서는 強大한  
敵에 의하여 격파되어 버려 당분간은 도저히 都市에서의 勝算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條件下에서 革命勢力이 生存하고 또한 發  
展하려면 우선 農村에 革命根拠地를 建設하고 나중에는 反革命根

拋地인 都市로 包圍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1930年 10月부터 蔣介石의 掃共戰이 始作되어 1933年 10月에는 100萬의 大軍으로 第5次掃共으로 擴大되자 共產黨은 1934年 9月부터 1年間に 걸친 大敗走行進을 시작하였다. 1年後에 到着한 곳은 北部의 陝西省 延安地區이다. 368日間に 6,000마일의 行軍을 통하여 年中 내내 白晝에 쌓여 있는 五大山脈을 包含한 18個의 山脈과 24個의 河川 그리고 11個省을 거쳐 30萬大軍이 2萬 乃至 3萬의 兵力으로 減少되고 士氣는 極度로 低下되고 말았다.

그러나 中國共產主義의 運動에 있어서 第2次革命戰爭期間의 意義는 큰 것이었다. 로스토크우教授는 이 意義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첫째, 毛沢東과 그 一黨이 1934년에 軍事的 敗北를 당했지만 이미 貧農의 支持에 土台를 둔 武裝鬪爭의 戰略과 戰術을 完成하여 놓았고, 둘째, 都市暴動戰略에서 完全히 失敗한 中國共產主義運動의 基本戰略으로서 毛沢東의 戰略을 採択하게 된 契機가 되었다. 셋째, 中國의 一部地域에 對하여 統治權을 行使한 經驗을 가지게 되었고 土地改革의 施行이 가지는 意義를 重視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3) 抗日民族戰爭(1937~45)

陝西省 北部地方에 到着한 毛沢東은 天險의 地理的 條件을 利用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紅軍의 生存을 維持하고 第2의 長征을 避하기 위하여 그 救急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汎民族的 抗日民族統一戰線의 結成 提起가 바로 그 것이다.

1931년에 滿洲를 占領하고 35年末에는 華北地方에까지 侵略의 손을 뻗친 日本侵略者에 對한 中國人民의 抗日感情을 利用하여

「拳國一致，抗日鬪爭」의 슬로건을 내걸어 大衆의 支持를 얻고，蔣介石으로 하여금 內戰中止에 應하지 않을 수 없도록 壓力을 加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政策은 迅速한 反應을 불러 일으키는 데 成功하였다.

1937年 2月 蔣介石은 党外合作的 性格을 지닌 第2次国共合作的 決定을 내림으로서 일단 「共産党討伐停止，積極的 武装抗日」이라는 口号아래 毛沢東은 絶滅의 危險을 回避하게 되었다. 37年 7月 北京兩方의 盧溝橋事件을 契機로 日本軍의 本格的인 攻襲이 開始되자 共産党은 国民党政府下의 協義下에 紅軍을 八路軍과 新四軍으로 再編하여 戰線에 投入하였다.

그러나 毛沢東은 全体 共産軍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의 指示를 내렸다고 한다. 즉 共産軍은 絶對로 日本軍에 對抗해서 兵力消耗을 招來하는 戰鬪를 해서는 안된다. 兵力消耗을 가져오는 戰鬪는 오직 蔣介石軍에 全袒시키고 共産軍은 抗日戰鬪를 하는척 하면서 自己努力의 育成에만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中日戰爭을 「中国共産党 發展의 가장 좋은 機會이다. 우리의 政策은 七分發展，二分 應付，一分抗日(70%의 힘은 党發展에, 20%는 国共合作에, 그리고 나머지 10%만 抗日戰爭에 쓴다)이다」는 것이다.

한편 抗日戰爭을 持久戰으로 規定하고 戰後의 執權準備를 위하여 첫째, 軍事的 強化에 힘쓰는 한편 둘째, 「新民主主義論」을 發表하여 中国共産党이 以後에 樹立할 政權形態의 理論的 基盤을 밝혔다. 여기서 그는 諸階級の 聯合을 主張하면서 共産党的 絶對的 支配는 秘匿하고 新民主主義가 共産主義에 이르는 過渡的 段階란 것도 밝히려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抗日民族統一戰線을 내세워 보다 많은 大衆의 支持를 획득하고 動員하기 爲한 基礎로서

「新民主主義論」을 主張한데 지나지 않았다. 셋째, 大量 吸收한 黨員들을 鍛練하고 規律 있는 黨幹部들을 養成하기 위하여 많은 努力을 傾注하였다. 整風運動이 그 實例이다.

中日戰爭 발발 當時에는 4萬名에 不過했던 紅軍의 兵力이 그로부터 3年後인 1940년에는 近 50萬名으로 成長했고 여러곳에 抗日根拠地를 確保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리하여 聯合軍의 勝利를 目前에 둔 1944年以來 紅軍은 部力的인 反擊段階로 轉換하였고 急速히 그 勢力을 擴張해 나갔다. 1945年 4月 共産黨 第7回 全國代表者大會를 개최할 때에는 黨員數가 이미 121萬에 달하였고 全國에 19個의 根拠地와 9,550萬의 人口를 支配하게 되었다. 그들의 主張에 依하면 1937年 9月以來 紅軍은 11萬 5千餘回의 戰鬪에서 96萬名의 日本軍과 그들의 傀儡軍에게 戰死像을 입히고 28萬餘名의 日本軍과 傀儡軍을 捕虜로 하였다고 한다.

8月 8日 소련이 日本에 戰爭을, 宣布하고 滿洲地方에 進擊하자 紅軍은 이에 呼應하여 一大攻勢를 展用하여 都市로 進出하였다. 드디어 日本은 8月 15日에 無條件 降伏함으로써 中日戰爭은 終末을 告하게 되었다. 中日戰爭을 막강한 軍事力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大衆을 획득하게 된 共産黨에 있어서는 中日戰爭이란 한낱 새로운 「革命戰爭」을 準備하는 蓄力期에 불과 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戰爭이 그 속에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第3次 「革命戰爭」(1946~49)

第2次 國共合作期는 共産黨에 있어서 蓄力期에 지나지 않았다. 終戰을 5日 앞두고 共産黨은 先手를 써서 재빨리 「日本軍 占領 地域에 對하여 軍政을 實施하겠다」는 爆彈宣言을 發表하고 華北地方과 滿洲에서 日本軍의 武裝解除에 着手하였다. 한편 소련軍은

中國政府와의 協約을 어기고 ① 國民黨政府의 滿洲進出을 지연시켜 共產軍으로 하여금 滿洲農村地域 浸透을 助長하였고 ② 日本軍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武器와 彈藥等を 共產軍에게 引渡하였고 ③ 그 외에도 소련軍의 裝備를 供給하고 軍事顧問團을 派遣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共產軍은 이와같은 소련軍의 援助를 받아 蔣介石政府軍과 軍事的 對立을 背景으로 하면서도 美國의 주선아래 國民黨政府와 政治的 協商을 進行하였다. 共產黨은 當時 31對1이라는 軍事的 劣勢를 만회하기 위한 時間 획득을 위하여 이 協約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자 한 것이다.

1946年 1月에는 일단 國·共間의 休戰이 成立되었고 對外的으로는 美國이 大大的으로 勳員을 解除하였고 美國의 関心은 구라파 에로만 偏重되고 있었다. 또한 國民黨政府의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脆弱性이 점차로 크게 露呈되어 갔다. 官吏와 軍人들의 不正腐敗 그리고 不純한 對民態度와 行動의 不統一, 軍事政策 爲主로 인한 他政策의 犧牲等은 大衆으로 하여금 政府로부터 遊離하게 하는 要因을 만들어 냈다.

共產黨은 이러한 諸般 脆弱性을 最大限으로 活用하는 한편, 國民黨政府가 大衆으로부터 孤立되어 있고 内部的 分裂이 自体努力을 弱화시키고 있는 現實과 相對的으로 共產黨의 힘이 增強되고 있는 有利한 狀況을 背景으로 하여 共產軍은 1947年 初부터 「反蔣, 反蔣, 民族解放戰爭」이라는 旗幟를 들고 漸次的으로 攻勢로 轉換하였다. 毛沢東戰略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農村으로부터 都市包圍戰略」의 窮極의 段階가 開始된 것이다.

48年末에 이르러 共產軍은 本格的인 反蔣作戰을 開始하여 滿洲의 거의 모든 都市를 속속 함락하기 시작하였고 11月 1日

奉天陷落을 클라이막스로하여 政府軍을 滿洲에서 完全히 送出하였다. 1949年初에는 共產軍이 이미 政府軍보다 훨씬 圧倒的인 戰鬪力을 維持할 수 있게 되었다. 1949年 4月以來 共產軍은 全國的인 마지막 總攻勢를 展開하여 10月 1日에는 이른바 「中華人民共和國」를 宣布하였다.

1947年 10月 情勢가 共產軍에게 有利하게 展開되자 毛沢東은 過去 抗日戰爭時에 發表한 新民主主義路線에 修正을 加하였다.

그것은 抗日戰爭時期的 路線과 같이 蔣介石國民政府와도 和解하고 美國과도 接近하고 地主階級과도 妥協하는 妥當의 穩健한 路線이 아니라 이들과의 合作을 清算하고 이들을 孤立시킴으로서 이들을 打倒하려는 過激하고 徹底한 新民主主義로 變質했던 것이다. 즉 毛

沢東의 新民主主義는 戰後 새로 展開된 國共의 最後決戰이라는 中國革命의 具體的 實踐에 完全히 合致될 수 있도록 새로운 新民主主義로 修正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毛沢東은 國共內戰의 最終的 勝利가 거의 確실히진 1949年 7月 1日 中國共產黨 創立 28周年 紀念式에서 行한 演說을 通하여 장차 樹立될 中華人民共和國의 統治方式은 明確히 「人民民主主義專政」이어야 한다고 宣布하였다.

中國共和黨은 勞働者, 農民, 小市民, 民族資本家 等 人民에 對해서만 政治的 自由를 부여하고 나머지 人民이 아닌者들 特히 蔣介石國民 黨勢力에 對해서는 無慈悲한 彈壓政策을 쓰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 이다. 오늘날 이러한 人民概念은 프롤레타리아獨裁化 過程에서 또 다시 修正을 받고 있다. 文化大革命期의 民族資本家와 小市民의 프롤레타리아에의 改造作業이 바로 그 것이다.

以上으로서 毛沢東의 革命戰略이 中國共產化 過程에 어떻게 具體的으로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말해 毛沢東戰略의



核心은 時間과 空間을 人間意志와 調和시킴으로서 聯合戰線과 武裝 鬪爭을 兩支柱로 하여 中國社會와는 歷史的 主客觀的 條件에 잘 부합시킨 點이라 할 수 있겠다.

### 第3項 越南의 「民族解放戰爭」

#### (1) 抗仏戰爭(1945~54)

越南 共產主義運動은 一般的으로 3個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獨立以前(1920~45.)이 第1期에 해당한다면 所謂 抗仏「民族解放」期(1945~54.)라는 8年 戰爭이 第2期이고 제네바會議以後 오늘날 까지 越南에서 共產化 努力을 계속하는 狀況이 第3期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抗仏民族解放期와 오늘의 共產主義運動을 살펴봄으로서 그 戰略的 特徵만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1858年 仏國西의 侵略을 받은 越南은 政治的으로는 租民地的 分割統治를 받아들였으며 經濟 및 社會的으로는 全農土의 1/6以上이 仏國西人에게 直接 奪取당하였고, 農民들에게 對한 地主의 封建的 착취가 助長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重稅와 高利貸 등으로 全人口의 90%나 되는 農民을 가혹히 얹어 매었다.

1920年代부터 散發的으로 活動하다가 30年에 統合 發足을 본 印度支那共產黨은 당시 이 地域에서 싹트고 있는 民族主義運動에 便乘하여 成長하였는데, 30~31년에는 農民과 勞動者를 선동하여 各種 蜂起와 經濟鬪爭을 일으켰으나 失敗하고 退潮期를 맞이하였다. 第2次世界大戰의 발발과 함께 仏國西가 敗北하고 日本軍이 印度支那를 占領함으로써 情勢가 根本的으로 變하였다. 民族主義運動은 抗仏 抗日獨立運動으로 擴大되었다. 印度支那共產黨은 이러한 好機會를

最大限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즉시로 武装蜂起를 일으켰으나 失敗하고 말았다.

1941年初 胡志明이 28年間의 亡命生活로부터 帰國하여 第8次 中央委員會를 開催하고 여기서 汎民族的 抗日, 抗仏 救國運動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大衆을 動員하기로 決定하였다.

「地主的 土地를 沒收하여 耕作者에게 配分한다」는 從前의 標語는 「帝國主義者和 民族叛逆者의 土地를 沒收하여 貧困한 耕作者에게 分配한다」는 標語로 代替되었고 「勞動者, 農民, 兵士에 의한 소비에트政權의 樹立」이라는 政策대신에 「階級的 利益을 民族問題에 從屬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中國共產黨式의 民族矛盾을 우선적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政策이 採択되었다. 이렇게 하여 印度支那共產黨은 民族統一戰線을 形成하고 全面的인 武装蜂起를 위하여 계릴라戰을 展開하기로 決定하였다.

이 決定에 의거하여 1941年 5월에 地主 및 資本家들까지 망라한 越南獨立同盟會(越盟)가 組織되었고 44년에 이르러서는 보·구엔·잠에 의하여 武装宣傳隊가 結成되었다. 이리하여 終戰을 앞둔 1945年 8月初 印度支那共產黨은 全黨大會를 열어 ① 全國적으로 大대의인 武装蜂起를 일으키기로 決定하고, 蜂起指揮의 3大原則으로 據地에 對한 集中, 政治와 軍事活動의 統合, 好極의 포락 등을 강조하였다. ② 權力을 爭取한 後 取할 10大內外政策을 決定하고 ③ 聯合隊이 到着하기 以前에 日本軍의 武装을 解除하고 이 나라의 主人으로서 聯合隊을 받아들인다는 原則들을 決定하였다. 臨時中央政府가 組織되고 全國的인 武装蜂起가 일어났다. 8月末까지는 全 越南이 越盟의 手中에 들어갔으며, 9月 2日에는 「越南

民主共和國의 獨立을 宣布하고 胡志明이 大統領으로 就任함으로써 이른바 「8月革命」은 일단 무난히 成功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日本의 敗戰과 同時 進駐한 英國軍과 交替하여 10月부터 來到한 仏國西軍은 16度線以南에서 5周以內에 全越盟軍을 武裝解除하고 協商을 通하여 以北에 進駐한 中國軍을 撤収케 하고 16度線以北 特定地域 進駐의 길을 터놓았다.

難關에 直面한 胡志明은 全 越南의 民族主義勢力을 糾合하기 위하여 共產黨을 解体(45.11)하고 民族統一戰線을 結成하였다. 드디어 1946年 11月 하노이에서 反仏暴動이 일어났다. 仏國西軍이 이에 爆發을 加함으로서 暴動은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12月에 越盟軍과 併蘭西軍의 交戰이 하이퐁을 中心으로 번져갔으며 이리하여 所謂 抗仏 8年戰爭이 시작된 것이다.

開戰과 함께 越盟指導者들은 毛沢東의 「革命戰爭」戰略에 따라 持久戰方針을 決定하였다. 第1段階인 戰略的 防禦段階에서 越盟은 「兵力을 保存하고 農村根據地를 防禦」하기 위하여 秘密細癩組織과 宣傳活動의 強化, 그리고 小規模의 地雷戰의 展開에 힘썼다. 보·구엔·잠에 의하면 1947年 가을부터 第2段階인 戰略的 膠着段階에 突入하였으며 1949年 겨울부터 50년에 이르는 기간중에 第3段階로 들어갈 수 있는 情勢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부터 시작된 軍事的인 反暴作戰에 이어 급기야

大規模인 正規戰段階로 突入하였다. 그러나 1951年 1月부터 하노이로 이르는 閘門인 빈 옌 및 其他 要塞에 對한 攻襲을 實施하였으나 처음으로 登場한 仏國西軍의 네펜탄 洗禮下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慘敗하고 말았다. 越盟軍은 다시 兵力과 裝備를 정비하고 다음 攻襲을 準備하기 위하여 다시 3年間の 小戡狀態로 들어가게 되었다. 1950年 總反擊의 失敗는 確實히 越盟이 仏國西軍의 能力을 過小評價하고 反擊의 時期, 즉 第3段階에로의 轉換時期는 잘 못 判斷한데 있었다.

그후 蓄力活動을 統行한 越盟軍은 1954年 4월 26일 (제네바 會議가 시작되는 날)을 期하여 越盟軍은 第 308 師團을 主力로 하여 디엔 비엔 푸 (라오스에 이르는 要地)에 對한 攻襲을 開始하였다. 3個月間의 斷腸의 激戰끝에 越盟軍은 1萬5千名을 잃었으나 仏國西軍은 印度支那를 잃고 말았다.

裝備나 兵力이나 訓練狀態가 모두 貧弱한 越盟軍이 強力한 仏國西軍을 날리치고 勝利한 原因이 어디 있을까? 보·구엔·잡의 말을 그대로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民의 革命的 武裝部隊 即 越南人民軍隊가 있었다는 것 둘째, 広範한 民族統一戰線이 形成되어 있었다는 것 셋째; 人民의 政權이 樹立되어 있었다는 것. 넷째, 共產黨의 올바른 指導가 있었다는 것 여섯째, 소련을 위시한 反邦人民의 支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戰略的 分析을 통하여 「人民의 戰爭; 長期戰戰略 그리고 段階的으로 極動戰術(正規戰術)로 發展하는 게릴라戰術 등이 越南解放戰爭에서 얻은 가장 高貴한 教訓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 (2) 越盟 및 베트남에 의한 「民族解放戰爭」

1954年 제네바協定에 依하여 17度線을 境界로 南北이 分斷되고 6月에 고·딘·디엠이 首相으로 任命되어, 이듬해 10月에는 南部越南 單獨으로 國民投票를 實施하여 越南共和國을 宣布하자 然시 越南의 共產主義者들은 越盟의 支援下에서 越南의 共產化에 努力을 競走하였다. 1957年初부터 베트남(Viet Cong)이라는 새로운 用語가 빈번히 使用되기 始作하였다. 越南에서 活動하고 있는 共產主義 政治工作員, 테러分子 및 게릴라들을 總稱하는 이 말은 원래 越南共產主義者(Vietnamese Communist)의 尊稱이다. 베트남은 胡志明이 將來에 대비하여 남겨둔 5千余名の 精銳 共產主義 政治工作員과 게릴라專門家, 傳統的 左翼分子 그리고 以北으로부터 訓練되어 南派된 政治工作員과 게릴라要員으로 構成된 것이다.

1958년부터는 主로 大衆動員을 위한 手段으로 테러戰術을 強化하고 戰略的인 防禦에 集中하면서 戰術的으로는 小規模의 武裝攻擊을 開始하였다. 게릴라의 各種 總兵力은 1959년에 이미 9千名에 달하였으며 1960년에는 大隊規模의 兵力을 單位로 攻擊할 수 있는 段階까지 擴大되어 越南政府軍과 戰略的으로 膠着할 수 있는 狀態에까지 發展하였다.

1960年 9月 越盟勞動黨 第3次全黨大會는 「北部越南에서 社會主義革命의 遂行」과 南部越南에서 「民族的 民主主義 人民革命의 展開」를 決定하였다. 또한 「南部越南解放」을 爲한 「民族解放革命(戰爭)」은 「大衆의 革命的 力量을 養成하여 이를 堅固히 하고 發展시키기 爲해 各種의 적극적인 活動과 융통성있는 諸形態의 鬭爭을 結合한 長期的이고도 복잡한 過程의 鬭爭」이라고 性格지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目標의 達成을 爲하여 以南에 광범위한 反美, 反政府

民族統一戰線을 結成할 것을 呼訴하였다. 드디어 이로부터 3個月後인 1960年 12월에 「美帝와 고·딘·디엠政權의 打倒」와 「獨立·民主主義·平和·中立·民族的 統一의 争取」를 내걸고 南部越南民族解放戰線 (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South Vietnam)이 結成되었다.

1962年 2月에는 民族解放戰線 第1次大會가 열려 中央機樞를 結成하여 政綱政策을 結成하고 또한 12個의 前衛組織이 結成되었음을 發表하였다. 여기서 政綱政策과 主要 前衛組織을 列挙해보면 다음과 같다.

#### 民族解放戰線의 政綱政策

- (1) 모든 政治犯의 無條件 석방
- (2) 모든 政黨團體의 活動自由 保障
- (3) 意思發表와 言論의 自由保障
- (4) 現行憲法의 廢棄, 現國會의 解散
- (5) 民主精神에 立脚한 新國會 構成을 爲한 選舉實施, 新國會에 의한 政府性格과 形態의 決定
- (6) 美國의 貿易獨點 排擊, 모든 外國의 經濟 技術援助 受諾
- (7) 統治形態에 拘束이 없이 모든 外國으로부터 文化輸入
- (8) 반동會議原則에 따라 모든 外國과의 外交關係樹立, 어떤나라라도 軍事同盟을 체결하지 않는 中立主義政策 堅持
- (9) 平和統一의 達成

主要 前衛組織으로는 南部越南解放農民同盟, 南部越南解放學生聯盟을 비롯한 青年, 作家 및 藝術家, 言論人 印支戰參戰勇士, 山族勞動者, 女性, 캄 (Cham) 同盟 등이다.

여기서 強調해두고 싶은 것은 위에서 列挙한 9個의 政綱政策중 어느 하나도 共產主義政權樹立을 爲한 標語가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民族主義者 내지는 議會民主主義者가 부르짖을 수 있는 內政改革案에 不遇한 것이다. 이러한 理由는 共產主義者들이 越南에서의 當面の 革命目標을 民族的 民主主義革命으로 내걸고 이것을 다시 社會主義革命이라는 窮極目標로 連結시킨다는 2段階革命論을 追求한 때문이다. 따라서 當面の 革命戰略으로서 人民革命戰略은 執權層인 고·딘·디엠政府와 그 支持勢力인 美國의 介入을 막자는 것이었다. 때문에 階級鬭爭路線에 관한 한 고·딘·디엠을 비롯한 執權層을 大衆으로부터 격리시키고 仏蘭西가 敗退한 後 介入하기 始作한 美軍의 影響력을 반동原則, 中立化, 外國文物에 對한 門戶開放 等을 내걸어 排除하자는 것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外形上으로는 「諸階級, 諸政黨, 諸民族, 諸宗派, 諸團體 및 愛國의 人士 等 愛國의 勢力의 總聯合」으로 假裝된 이 「民族解放戰線」은 事實上 越盟勞動黨과 胡志明 政權 傘下 統一省(Reunification Department)의 한 從屬機關이라 볼 수 있다. 이 戰線을 實際上 장악 控制하고 있는 것은 越南人民革命黨이라는 偽裝名稱을 가지고 있는 共產黨인 것이다. 人民革命黨은 公式的으로 1961年 12월에 創立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45년에 그 企圖를 음폐하고자 印度支那共產黨을 解体하고 맑스主義研究會라는 부드러운 이름으로 둔감했다가 1951년에 勞動黨으로 改稱한 共產黨 分身以外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 人民革命黨은 1964년에 이르러서는 民族解放戰線이 「南部越南에서의 革命鬭爭에 맑스·레닌主義의 敎理를 全的으로, 그리고 創造的으로 適用할 것」을 公公然하게 부르짖기에 이르렀다.

1960年 12月 民族解放戰線의 結成을 契機로 하여 계림라活動은 急激히 增大하고 根拠地 내지 그들의 影響地域은 擴大되어 갔다. 한편 고政權의 獨裁化 傾向에 對한 不滿이 增大해가면서 1963年 5月 후에 (Huế)에서 宗敎紛亂이 일어나고 그해 11月에는 민 (Minh) 將軍에 依한 軍事쿠메타로 고政權이 넘어지자 政治的 不安

과 混亂은 激增되었다. 그 以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軍事쿠데타로 생겨난 政治不在現象은 베트남勢力 확장에 좋은 機會를 마련해 주었다. 1963年과 64年에 越南軍은 月平均 1千名以上の 死傷者를 내고 있었으며 1964年 9月에는 베트남의 死傷者數가 1,740名인데 비해 越南軍은 그 二倍에 가까운 3,240名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베트남은 全越南領土의 1/3以上과 人口의 半을 確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지 않은 其他 地域과 大衆들도 그들의 影響圈內에 두게 되었다. 南部越南의 39個省中 3個省을 除外한 全地域에서 베트남은 稅金을 徵收하게 되었으며 特別히 이중에서도 37個省에서는 稅金徵收事務가 正常化되어 있었다.

1964年末 越盟과 베트남은 이제 第3段階인 總反擊段階로 突入할 수 있는 條件이 成熟한 것으로 判斷한 것 같다. 베트남은 主力部隊로 5個聯隊를 保有하게 되었으며 越盟軍 第 325師團과 304師團이 戰鬪에 參加하여 1965年 여름에는 全國 領土의 2/3와 人口 55%以上을 完전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5年 2月の 베트남의 美軍基地攻襲에 對한 報復으로 美軍이 越盟북쪽을 占領한 것은 전기로 越南形勢는 小規模의 制限戰爭과 게릴라戰이 混合된 國際的 制限戰爭의 段階로 옮겨갔다. 越盟 및 베트남勢力의 增強에 對應하여 美軍도 派越兵力을 增大시켜 나갔으며 65년부터는 越南政府側 要語에 따라 大韓民國을 비롯하여 태국, 필리핀, 호주, 뉴우질랜드와 같은 周邊의 自由諸國도 越南에 派兵하거나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越南을 支援하게 되었다. 美軍을 主軸으로 하는 自由諸國의 派兵이, 弱勢에 있는 越南政府軍을 強化하는 契機가 되어 越南事態는 雙方의 戰略的 地位를 招來하고 다시 長期敎化 하는 事態로 發展함에 따라 同戰爭의 終結을 위해 協商을 희구하는 國際與論도 漸高되어 왔다. 1968年 5月 파리 子備會議을 契機로 越南戰爭은 戰鬪 및 協商併行段階로 突入하게 된 것이다.



### 第 3 章 北韓의 人民革命戰略

#### 第 1 節 概 要

70年 11월에 開催된 朝鮮勞動黨 第 5 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은 事業總括報告를 하는 가운데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는 對南戰略을 學論하고 있다. 이 人民民主主義革命을 統一戰略의 一環으로서 들고 나온 金日成의 底意는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61年 9月の 第 4 次黨大會에서 提起된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 즉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과는 次元이 다르기 때문이다. 70年代에 접어들어, 北韓共產主義자들이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對南工作路線으로 굳히고 나오는데는 이른바 「第 2 的 越南化」를 実行에 옮긴, 對內外情勢에 如何 있다고 判斷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第 2 的 越南化를 促進할 時點에 접어들었다고 金日成集團이 判斷을 내리게 된 要因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 美國과 日本의 軍事基地政策과 殖民地政策에 反對하여 民族의 解放과 自主的 統一을 希求하는 反帝·反美·反日軍國主義民族解放運動은 더욱 高潮되고 있다.

둘째 : 現執權層을 反對하는 反政府鬭爭이 高潮되고 있다.

셋째 : 地主·買辦資本家·官僚等 支配階級과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人民大衆間의 階級的 矛盾은 더욱 銳利化하고 있으며 南韓內 마르크스·레닌主義政治部隊(統一革命黨)가 날로 그 力量을 擴大하고 있다.

✓ 넷째 : 北韓地域의 「革命的 民主基地」는 더욱 強化되었고 南韓人民의 民族解放運動을 支援할 수 있는 充分한 準備를 갖추게 되었다.

✓ 다섯째 : 70年代 國際情勢는 國際共產主義運動에 有利한 方向으로 轉換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金日成의 情勢概觀은 극히 偏見의인 共產主義도그마에 기초한 것이고 不正確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金日成의 이와같은 獨斷의인 判斷이 어떤 根柢에서 導出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銳意 檢討할 必要가 있다.

✓ 이러한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은 71年 4月의 許談의 「8個項統一方案」의 骨幹을 이루는 것이며, 더 나아가 71年 後半期에 접어들면서 平和攻勢를 펴고 있는 그 基本이 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에 北韓共產主義者들이 應한 姿勢도 本質的으로 이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拋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金日成集團은 對內外情勢에 銳敏하게 反應하면서 彈力的으로 이를 利用, 자기네들의 基本的인 統一構想인, 이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有效適切히 추진해 나가자는데에 目的이 있는 것이다.

결국, 許談의 「8個項統一方案」과 이方案의 延長線上에서 「7.4 共同聲明」에 應하면서, 영무새처럼 되외고 있는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은 70年代 이時點에서 그네들이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 始筵은 일찌기 6.25 戰爭準備를 음폐하기 위해서 對外的으로 캄부라쥬 宣傳한 49年의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 내 놓은 構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統一政策은, 어디까지나 赤化統一政策이며, 對內外的 情勢에 비추어 偽裝된 平和統一의 애드·벌룬과 武裝게릴라의 大量兩派에서 보여지는 暴力

戰術을 兼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을 分析·批判하는데 있어서, 一次的으로 指標로 삼아야 할 變數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첫째 : 人民革命戰略은 基本的으로 赤化統一路線에 입각하고 있다.

√ 둘째 : 이 人民革命戰略은 韓半島의 對內外情勢를 감안하여 戰術的 展開過程에 있어서 두가지 樣相을 內包하고 있다. 즉 平和統一의 애드·벌룬과 暴力手段의 두가지 義味內容을 兼用하고 있다.

√ 셋째 : 71年後半期에 접어들면서 이 平和統一의 애드·벌룬을 띄워 올리는데 있어서는,

- ① 對소·對中共關係의 복잡한 樣相
- ② 美·中共接近에서 비롯되는 國際政治의 多極化現象
- ③ 「自主路線」의 意味內容 등을

銳意 檢討할 일이다.

√ 넷째 : 따라서 70年代의 北韓共產主義者들의 人民革命戰略은 50年代, 60年代에 비해 다분히 「政治的」인 考慮가 優先된 統一戰略이다.

√ 다섯째 : 이 軍事為主觀點에서의 政治優先路線으로의 轉換은 根本적으로 第2의 越南化를 促求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는 根本的인 要素가 되며, 따라서 이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은 50年代後半期 특히 60年代의 赤化統一路線보다 더 교활하며 더욱 彈力的인 「戰略的 布石」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時點에서의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과 이 戰略을 具體的으로 實現키 위한 平和攻勢를 銳意 分布·排判하기 위해서는,

6.25 動亂以前, 50年代後半期 및 60年代에서 그제들이 越南人民

革命戰略을 如何히 構想·展開해 왔느냐를 詳盡히 考 査해 그 眞 髓를 檢討·判別해 볼 必要에 말다다른다.

## 第 2 節 6.25 動亂以前의 人民革命戰略

1945年 8月 소련軍이 38度線以北에 進駐한 그 時點부터 6.25 戰爭이 勃發할 때까지, 北韓은 完전히 對소一辺倒政策을 취했 다. 우리는 그 좋은 보기를 第 2 次 黨大會 (48年 3月) 에서의 金 日成報告에서 看做할 수 있다. 즉 「戰後의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심각한 變化는 우리祖國의 政治情勢에도 가장 鮮明하게 反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朝鮮問題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問題가 아니고 國際舞臺에 있어서의 民主勢力과 反民主勢力과의 鬭爭의 一環이 되 어 있는 問題입니다」.

따라서 統一政策도 對소一辺倒外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애당초 소련은 信託統治實施의 要望에서도 表現되드시, 38度線以北 의 占領地帶에서 「革命基地」를 公認히 하고, 反面 38度線以南에서 의 힘의 弱화 즉 内部攪亂을 企圖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對소一 辺倒로 치달았던 北韓共產主義者들의 統一戰略도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對소一辺倒統一政策의 始 初的인 보기를 「朝鮮共產黨과 朝鮮5道黨責任者 및 熱誠者大會」에 서 보고도 남음이 있다. 즉 45年 10月 10日 平壤에서 개최 된 同大會에서 金日成은 北韓을 革命基地로 만들어야 한다고 強調 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 그후 發刊된 北韓의 歷史教科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우리혁명의 복잡성과 견고성이 조성되었다. 우리조국에 조성된 이 복잡한 정세는 전조선적으로 되는 혁명의 동시적 발전을 불가능케 하였다. 우리혁명의 장기간에 걸친 견고한 투쟁에서 중극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혁명역량을 축적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 과업의 수행을 보장하는 문제가 필요하였다. 때문에 김일성동지는 우리나라 북반부에 소련군대가 진주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였다. 민주기치창설에 대한 이 방책은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가장 정확한 노선이었으며 완전한 통일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물량적 기초를 축적하게 될 혁명적 방침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소련이 北韓을 分割하여 共產化시켜 壓制화하려고 한 政策路線에 따라 民族의 念願이야 어떻던 자신도 없고 결과도 밝지 않은 민주적 의사에 의한 統一의 追求보다는 오히려 共產化統一을 위하여 자체내부의 物質的 및 思想的 突力を 조성하는 것을 先行시키기로 한 것이다.

요컨대,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이 時期에 北韓을 「革命基地」로 強化하는 政策을 수립하는 동시에 相對方 즉 韓國의 弱화를 위하여 內部分裂과 瓦解가 스스로 이루어지도록 그 工作을 더욱 중시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期間에 있어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統一을 위하여 南北協商을 거듭 주장하였고 또한 49年 6月 25日에 행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宣言을 통하여 자주적 원칙에 의한 南北韓總選舉를 통해 統一을 實現시키자고 하여 平和統一의 제안등을 하였는데 사실은 그 모두가 韓國의 對共戰列을 分裂시키기 위한 戰術的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北韓共產主義者가 상술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共產化統一

을 그들의 鬭爭課題로 내 세우지 않고 「革命基地」建設을 當面課題로 내 세운 것은 統一問題가 國際政治權力과 깊이 관련이 있어 이 問題를 無視하고는 解決할 수 없다는 判斷에서 온 것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北韓權力 또는 共產主義가 아직도 확고한 勢力으로 形成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 金日成은 45年 10月 13日 「새조선건설과 민족통일 전선에 대하여」라는 포제의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2차대전후 조성된 유리한 국제정세와 아울러 북위 38도를 계선으로 하여 제국주의국가인 미국군대와 사회주의국가인 소련군대가 남북에 진주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우리당의 역량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한 조건을 또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볼때 北韓共產主義分子들이 6.25 動亂을 惹起한 것은, 물론 以上の 戰略과 배치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당시의 情勢를 볼때, 50年 1月 韓國을 美國의 防衛圈밖에 둔다는 에치슨 聲明, 이와 때를 같이 한 소련과 중공간의 軍事同盟의 체결 그리고 柏林에서의 緊張高潮로 표현된 東西冷戰의 極度化등의 一聯의 情勢變動이 소련의 韓國問題에 대한 急轉換의 態度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急轉換의 態度를 그대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뒤따랐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할 것은 朴憲永으로 대표되는 南勞黨系의 助言 즉 兩韓의 革命情勢는 우리 (北韓側)가 全面戰에 呼託하여 兩進할 경우 到處에서 人民武裝蜂起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릇된 情勢判斷을 金日成이가 곧이 들었다는 事實도 추가할 必要가 있다.

아름든 北韓共產主義分子들은 이 6.25 動亂挑發에서 여실히 立証

되드시 완전히 對 소一辺倒政策에 코미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결국 6.25 動亂 이전의 時期는 對南統一戰略에 있어서 소련의 사주에 호응할 수 밖에 없었던, 非自主的 向 소一辺倒時期였다는 事實을 대변하는 것이다.

### 第3節 第3次党大会 (56年4月) 이후의 50年代 後半기에 있어서의 人民革命戰略

엄격히 말해서 50年代는 이른바 「民主革命基地」建設에 一念했던 時期이며, 積極的인 對南戰略은 展開되지 않았다. 그것은, 休戰後 固着手된 戰後復旧 3個年 人民經濟計劃과 57년부터 착수되어 60년에 끝난 第1次 5個年計劃 등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소위 「3大革命力量」의 第1段階에 해당하는 北韓의 革命基地建設에 餘念이 없었던 事實에서 立証된다.

그 「基地」建設을 위한 一次的 사무리는 58년에 農業의 協同化, 商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抹殺) 등의 完了로 보여지는 바, 이 結果 階級基盤의 大變動은 그대르 金日成 1人支配體制를 굳히는 土台구실을 한것도 留意해야 할 일이다.

53年 7월에 休戰이 成立되자 金日成을 비롯한 海外出身 共產主義 엘리트들은 6.25의 敗戰을 들켜워 南勞黨系를 肅清했다. 이것은 단지 表面的인 權力鬭爭 자체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對南戰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중요한 事實이다. 즉 6.25 戰爭挑發前에 北韓에 있었던 「금강학원」을 金日成이 목인. 조장한 일은 결국 南韓에 基盤을 갖고 있는 南勞黨系가 全面戰開始를 信號로 南韓內에서 人民武裝蜂起를 同時的으로 劃策하도록 하기 위한 「아지

트」로 삼았다는데에 그 底意가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金日成을 비롯한 海外出身共產主義分子들이 南韓의 赤化統一을 달성하기 위해서 朴憲永을 비롯한 南勞黨系를 利用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점에서 그네들이 對南人民革命戰略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는 事實을 立証해 주고 있다. 또한 그것이 失敗했을 경우 南勞黨系를 숙청할 구실을 마련하는 것이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休戰後 敗戰의 責任을 물어 南勞黨系를 肅清했다는 事實은 단순히 權力鬭爭이라는 現象論의 次元에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對南赤化統一路線에 있어서의 試行錯誤를 겪었다는 보다 높은 次元에서 檢討될 일이다.

아름은 金日成을 頂點으로 한 海外出身共產主義엘리트들은 당분간 자체내의 基地建設에 沒頭할 수 밖에 없었다. 즉 積極的인 對南人民革命戰略을 실시 行動面에서 展開하지 못했던 時期이다.

다음으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이 積極的인 對南人民革命戰略을 果敢하게 遂行치 못한 歷史的 要因으로 1956年이라는 「미친 해」(Das Tolle Jahr)를 들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56年 2月の 소련共産黨 20次黨大會에서 비롯된 스탈린排判은 東歐一円에 스탈린主義的 獨裁體制의 格下를 가져왔고, 그것은 급기야 「第2의 10月革命」을 바르샤바와 부다페스트에 불고 왔으며, 결국 고물카體制로 대변되는, 「民族的 次元에서의 自主的 共産主義」(國內派의 地下工作分子가 核心이 되어 모스크바의 優等生을 去勢하는 過程에서 副出되었음)의 씨앗을 남게 되었다.

이러한 회오리바람이 平壤에도 到來하여, 숙청 「5月宗派」事件을 벗어내게 되었다. 즉 56年 6月1日 金日成을 團長으로 하는



經濟使節團이 57년부터 始作될 第1次5個年計劃을 위해서 資金과 技術供與를 구걸차 모스크바에 出他한 사이에 造成된 「金日成除去陰謀」가 일어났다. 不幸하게도 이 陰謀는 失敗로 끝났으나 우리는 이 事件에서 金日成의 무모한 重工業優先政策에 대한 黨高位層內部에서의 反應과, 스탈린主義에 입각한 金日成의 모노릿트體制에 대한 不滿이 相當히 컸었다는 歷史的 事實을 直視케 된다.

아름은 이 50年代의 「民主革命基地」建設은 상당한 試練을 克服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결국 積極的인 對南人民革命戰略을 展開할 主·客觀的인 立場에서 있지 못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5月宗派」事件의 餘韻은 50年代를 내내 가로질렀다. 延安派와 一部소련 2世派의 反金日成運動은 58年 8月の 金科率淸正으로 一段 落되었지만 궁극적으로 金日成 1人支配體制를 굳히기 위해서는 61年 9月の 第4次黨大會直前까지의 「黨中央集中指導事業」이라는 大肅淸이 잇달아 繼續될 수 밖에 없었다.

對南赤化統一路線으로서의 人民革命戰略을 言及하는 立場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事實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 政治的인 要素에서는 「民主革命基地」建設이라는 金日成 1人支配體制의 기틀을 다져 놓아, 60年代에 들어와서 積極化된 對南人民革命戰略의 遂行을 위한 政治的 基礎를 50年代의 숙한 試行錯誤와 肅淸선 功속에서 確立해 놓았고,

둘째 : 經濟的인 要素에서는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第1次5個年計劃을 그런대로 遂行하여, 60年代에 展開될 積極的인 對南戰略의 執行을 위한 經濟的 土臺로 삼았으며,

셋째 : 軍事的인 要素에서는 必需産業의 기틀이 되는 重工業의 一次的 確立이라는 면에서 62年の 「4大軍路線」의 길을 닦아 놓

있고,

넷째 : 社会文化的인 要素에서는 一種의 부즈한 集團指導體制에 머물러 있던 黨指導體制을 50年代의 몸부림에서 청산하고 난후, 金日成 1人獨裁確立이라는 脈絡속에서 相互關連되는 「金日成唯一思想體系」를 62年말부터 強行해 나갈 策地를 50年代가 마련해 놓았다는 것等이다. 그러나

다섯째 : 對外的인 面에서 中·소의 對決이 國家關係의 惡化로까지 이르지 않았던 時点에서, 金日成을 둘러싼 黨高位層은 앞으로의 進展에 그 어떤 暗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事전에 캐치할 수가 없었다는 點을 증시할 必要가 있다. 이 對外情勢의 愚屯함은 60年代에 접어들어, 내내 金日成獨裁體制를 뒤흔들어 놓는 最大의 脆弱點이 되었다는 事實이다.

아름은 50年代前半期는 6.25의 敗戰에서 低迷逡巡하던 때이어서 對南戰略의 履行은 커녕, 자체내의 體制維持에도 汲汲하던 時期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對南人民革命戰略이라는 面에서는 거론될 수 없는 때였다.

50年代後半期 즉 56年 4月の 第3次黨大會이후의 後半期는 上述한 바와 같이 3大革命力량의 基礎的 力量이라고 볼 수 있는 北韓의 「民主革命基地」建設을 위해서 尙한 試行錯誤를 겪은 時期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對南赤化統一路線으로서의 人民革命戰略의 具體的 發現은 없었던 時期였다.

#### 第 4 節 60 年代의 人民革命戰略

50年代後半期에 일단 北韓의 「民主革命基地」를 建設했다고 생각한 金日成集團은 드디어 61年9月の 第4次党大会에서 이른바 「平和的 統一構想」이라는 것을 正式으로 들고 나오게 되었다. 물론 이 偽裝된 平和攻勢는 6.25前이나 56年4月の 第3次党大会에서도 수시로 거론된 것이기는 하지만 党大会에서 正式으로 「戰略과 戰術의 衣裳」을 입고 제기된 것은 第4次党大会가 처음이었다. 따라서 이 4次党大会에서의 平和統一構想은 綱領的 文獻이 되는 것이며 그네들 나름대로 자체내의 力量을 일단 길렀다고 생각하는 時點에서 나왔다는 事實을 直視할 必要가 있다. 이 平和統一構想은 결국 4次党大会에서 채택된 7個年經濟計劃과 밀접한 相互關係를 갖는 것으로서 60年代를 南北間 民衆生活의 상호형편에서 실증되는 南北間 經濟 및 社會發展의 競争에다가 중요한 意義를 賦與하였다는 것을 立証한다. 즉 4次党大会에서 報告한 金日成의 演說要旨를 보면 이러하다. 「7個年計劃은 승리한 社會制度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개선과 文化혁명을 수행하여 人民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 . . .

우리당은 人民들의 생활을 社會주의사회에 상승하는 높은 수준에 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우리앞에 나선 과업입니다. 우리는 7개년 계획의 상반기에 근로자들의 부리를 향상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 하반기에도 이에 계속 관심을 돌림으로서 6~7년후에 가서는 전체인민의 모든 면에서 유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

요컨대 50年代 후반기에 對南赤化統一의 土臺를 길렀다고 그네들 나름대로 믿고 있는 터전위에서 계속 經濟發展을 試圖한다면 구태

이 武力赤化統一에 直接 呼訴하지 않더라도 經濟와 社會發展次元에 對한 競爭을 이겨낼 功算이 선다는 어쭙지 않은 期待에서 平和統一構想을 밀고 나가자는 戰術인 것이었다.

하지만 62년에 들어와서 金日成集團의 計劃은 자기의 核保護者인 朝鮮의 降伏主義態度로 말미암아 暗礁에 걸리게 되었다. 10月の 쿠바事件이라는 속크로 말미암아서이다. 이 쿠바事件에서 속크를 받은 金日成集團은 두달 후인 12月 黨第4期5次全員會議에서 「4大軍路路線」을 채택하여 平和統一構想이라는 對南戰略을 一大修正하여 金日成集團의 根源的인 暴力戰術을 더 強化케 된다.

이러한 戰爭準備政策的 次元에서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은 越南戰의 에스칼레이션으로 더 굳어지고 급기야 66年 10月の 黨第2次代表者會議에서 67年, 68年, 69年の 武裝게릴라大量南派戰術이라는 基本的인 暴力革命戰爭戰術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것은 遊移戰의 次元에서 統一問題를 다루려는 共產主義者들의 本然의 姿勢를 들어내는 一聯의 事實을 立証하는 것이다.

따라서 60年代初의 第4次黨大會에서 제기된 平和統一構想과 62年の 黨第4期5次全 그리고 66年の 黨第2次代表者會議등을 劃分된 時期로 劃定하여 綱領的으로 60年代의 暴力革命戰術으로서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을 言及해 보기로 한다.

第1項 第4次黨大會에서 提題된 人民革命戰略 -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路線

61年9月11日에 召集된 第4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은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의 內容과 路線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前制譯에서의 革命은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民族解放革命이며 封建勢力을 反對하는

民主主義革命입니다. 이 革命的 基本要求는 朝鮮에서 美帝國主義侵略 勢力을 구축하고 그의 殖民地統治를 粉碎하여 兩朝鮮社會의 民主的 發展과 나라의 統一을 達成하는 것입니다. 南朝鮮人民이 反帝, 反封建鬪爭을 成果的으로 進行하여 이 鬪爭에서 勝利를 爭取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指針으로 하여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광범한 人民大衆의 利益을 代表하는 革命的인 政黨을 가져야 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第4次黨大會에서 표방된 平和統一構想이라는 것은 결국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戰略에 입각하는 것이다. 이 革命戰略은 요컨대 地下黨組織에 重點을 두는 것으로서 이 戰略의 기본바탕은 그 表現의 差異를 不問하고 60年代를 내내 가르치던 基本戰略이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으로 대변되는 人民革命戰略은 그 기본바탕이 다음과 같은데에 있다. 즉 南韓에서의 人民革命的 基本路線은 反美鬪爭을 포상한 民族解放運動과 封建的 殘滓인 地主, 買辦資本家와 軍·警을 포함한 反勳官僥(執權層)를 打倒하는 民主主義革命을 結合하는 方式이다.

그러던 全日成禁團이 第4次黨大會에서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戰略」이라는 對南人民革命戰略을 내 놓았던 理由를 간추려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제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南韓情勢는 反共力量이 너무 強하여 그들이 組織하여던 勞動階級의 救黨(共產黨)이 合法的으로는 물론 非合法的인 方法(地下組織)으로조차 組織할 수 없었으며, 특히 5.16 軍事革命的 結果 이러한 反共力量은 보다 強化된데에 比해 在南革命力量은 在大한 打擊을 받아 退潮하였다.

둘째,南韓의 社会發展은 아직 封建的 殘滓要素가 남아 있으며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을 거쳐 勞動階級이 보다 數的으로 組織上으로 長成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反面 60年代南韓情勢로 보아 毛沢東의 理論을 適用할 수 있을 정도로 地主와 農民간의 矛盾이 存在하는 것도 아니며 地域이 좁아 武力鬪爭조차 展開하기가 困難하였다.

셋째,南韓내의 인텔리와 民族부르조아들은 自身の 2重的 傾向 (階級性) 즉 反動的 傾向과 進歩的 傾向중 두럿이 進歩的 傾向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특히 6.25 事變을 겪은 관계로 共產主義에 대해서는 깊은 嫌惡感을 갖고 있으며 反面 美國의 對韓政策을 植民主義政策으로 認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民族的 統一은 外勢에 의해 達成되리라고도 믿지 않으며 그것은 보다 우리民族의 主体的 努力에 의하여 成畧되어야 한다는 基本態度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民族主義的 傾向外에 北韓共產主義分子들이 利用可能한 要素는 없다.

넷째, 실사 南韓내의 共產主義革命勢力이 組織的이거나 非組織的이거나를 막론하고 革命에 動員되었다고 하더라도 北韓의 支援이 없는 限 獨自的인 抗爭을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北韓地域은 이를 支援할 수 있는 高級의 準備를 갖추어야 하며, 必要에 따라 즉시 動員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北韓의 對南攻鋒(支援力量)을 위한 準備가 完了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南韓내에는 最少限 6.25 事變이전의 경우와 같이 共產主義者의 活動이 存在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存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階級的 힘의 관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位階에서 거나 또는 相當한 組織的 力量을 保有할 수 있을 때까지」反帝.

反植民, 反封建의 이른바 「3反運動」을 표방하면서 「人民」이라는階級的 概念을 알세우기 보다는 「進步的 愛國勢力블력」이라는 보다 광범하며 非階級的이고 民族主義的 傾向을 擴大할 수 있는 「民族統一戰線」노선을 挾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에서 表示되어 나오는 對兩赤化統一路線의 意味內容이다.

金日成은 64年 2月 27日 黨第4期 8次總會에서의 演說인 「祖國統一의 偉業을 實現하기 위하여 全力을 다하여 革命勢力을 強化하자」에서 다음과 같이 장광설을 늘어 놓고 있다.

「... 南朝鮮의 革命勢力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問題는 各界各層의 大衆을 統一戰線으로 結集하는 일입니다. 南朝鮮의 知識人과 靑年學生, 都市小부르조아지와 良心의인 民族부르조아지를 비롯한 民主主義를 志向하는 各界各層의 大衆이 統一戰線에 망라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統一戰線活動을 훌륭하게 이행해 나갈 必要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活動을 훌륭하게 이행해 나가면,

첫째, 革命의 主力部隊를 育成하는데 지극히 有利한 條件을 갖출 수 있습니다. 광범한 大衆을 統一戰線으로 結集해야만 反革命勢力을 한층 孤立시켜 革命의 主力部隊에 대한 敵의 攻擊을 弱化할 수 있으며, 革命勢力을 保存하여 항상 擴大 強化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革命의 主力部隊를 補助할 強力한 部隊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各界各層의 大衆은 革命의 主力部隊로는 될 수 없으나 勞働者 農民과 힘을 합할 때에는 敵에게 큰 打撃을 줄 수 있는 重要한 補助的 力道로 됩니다.

따라서 革命的 主力部隊를 튼튼히 굳히는 한편 各界各層의 大衆을 革命側에 끌어드리도록 統一戰線活動을 훌륭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統一戰線에는 上層統一戰線과 下層統一戰線의 두가지 形態가 있습니다.

革命勢力을 強化하기 위한 基本은 어디까지나 大衆을 爭取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統一戰線活動에 있어서도 下層統一戰線을 強化하는 일을 基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下層統一戰線에 입각하지 않는 上層統一戰線은 堅고하게 될 수 없으며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上層統一戰線을 위해서도 진지하게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支配階級의 政党内에 있는 一部の 進歩的 人士라던가 中間政党的 上層部와의 統一戰線은 下層統一戰線을 強化하는데 있어서 有利한 條件을 만들어 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統一戰線活動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基本方針은 革命的 主力部隊의 指導的 役割을 항상 높이는 條件하에서 各界各層의 大衆을 爭取하기 위한 下層統一戰線을 強化하여 그것에 입각하여 上層統一戰線을 實現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볼때 60年代의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南戰略의 基本目標은 그 前半期와 後半期에 있어서 表現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그리고 66年10月の 黨第2次代表者會議에서 보다 暴力戰術에 코미트했다 하더라도 共產黨 또는 勞動黨의 組織化 즉 地下黨組織과 이를 위한 광범한 民族, 民主主義統一戰線形成에 있었음을 直視케 된다.



第2項 黨第4期5次全에서의 4大軍事路線 -  
戰爭準備政策的 次元에서의 人民革命戰略

1962年10月 쿠바危機가 소련의 對美양보로 수습된 事實로 因하여 金日成集團은 커다란 衝擊을 받아 同年 12月10日부터 14日까지 만 5日동안 소집된 勞動黨第4期5次全員會議에서 소련의 對美양보를 降伏主義的 態度이며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서 離脱한 修正主義의 發露라고 비난하였다. 즉 金日成은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에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발전을 일정하게 지연시키더라도 국방력을 일층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黨第4期5次全은 「全人民의 武裝化」 「全土의 變質化」 「人民軍의 幹部化」 및 「人民軍의 現代化」라는 4大軍事路線을 채택하였다. 또한 61年11月27日~30日의 黨第4期2次擴大總會에서의 「自力更生」슬로건을 加添하여 이른바 「自主路線」을 표방케 되고 더 나아가 「思想에 있어서의 主体 政治에 있어서의 自主 經濟에 있어서의 自立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즉 金日成唯一思想體系의 初歩的 推進을 내던게 되었다. 물론 이 自主路線과 唯一思想體系가 더 클로즈·업되는 것은 60年代 後半期에 가서이지만 이때 쿠바危機의 속크는 이러한 北韓當局者의 独自の 모색을 하게 하는 契機가 된것 만은 事實이다.

63年2月8日 金日成은 「人民軍創建15週年」記念演說인 「우리人民軍은 勞動者階級の 軍隊, 革命의 軍隊이다. 階級的 政治教育活動을 계속 強化하지 않으면 안된다」에서 「戰爭準備政策的 次元에서의 人民革命戰略」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즉 「나라의 防衛力을 強化하는 것은 敵이 挑發하는 戰爭에 對備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南朝鮮에서 革命勢力이 成長하여 人民의 鬪爭이 漸高하여 우리의 支援를 要求할때에 우리들이 南朝鮮革命을 支援해야 할 準備를 굳건히 整備하기 위해서 입니다. . . . 現在의 情勢는 革命에 대해서, 극히 有利합니다. . . . 다만 修正主義가 침투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修正主義는 우리들의 團結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鬪爭意識을 純化시킵니다. . . . 우리들은 항상 緊張된 態勢를 견지하면서 南朝鮮人民의 鬪爭을 支援할 準備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 第3項 「自主路線」에 입각한 人民革命戰略

世界各國의 注目을 받았던 1966年 8月 12日 字 노동신문의 社說 「자주성을 옹호함에 대하여」 그리고 이 社說을 全載한 勞動黨理論機關紙 「근로자」 8호의 「자주성을 옹호하자」 중에는 現代修正主義 敎條主義 그리고 이 兩大主義에 追從하고 있었던 宗派分子들에 대한 激烈한 非難이 가득 담겨져 있다. 그 非難의 한 句節을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5년에 우리당은 모든 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할때 대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종파분자들의 맹렬한 반항에 부딪혔다. 1956년에 그들은 당의 자주노선에 정면으로 항거하여 나섰다. 종파분자들의 반당적 활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혁명도 건설도 더 전진시킬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종파분자들은 예외없이 수정주의자들이며 교조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사대주의자들이며 민족허무주의자들이었다. 이리하여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현대수정주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었다.

우리당은 종파분자들의 반당적 진출을 단호히 물리쳤다. 그 결과 당은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당원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이 든든히 서게 되었다.

모든 사업에서 당의 자주노선이 관철되었다. 주체의 확립은 당내에서 실로 새로운 사상해방을 가져 왔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물질적 힘으로 나타났다.」

上記非難에서 거론되고 있는 現代修正主義는 소련을, 教條主義는共을, 그리고 宗派分子들이란, 延安派와 一部 소련 2世派를 가리키는 것이다.

60年代에 들어와서 熱度를 加한 自主路線表明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을 分析·批判하는데 있어서 重要的 指標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自主路線이 60年代後半期에 들어와서 急激히 論議된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中·소粉爭의 國家關係의 次元에서의 惡化

둘째, 越南戰의 擴大

셋째, 親소, 反中共偏向을 견줄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提起되는 北韓内の 對內的 事情

넷째, 韓國의 急激한 經濟成長과 政治的 安定性 등을 그 理由로 들 수 있을 것이다.

中·소粉爭은 63年の 「部分核禁條約」(NPT) 체결로 美·소平和 共存體制가 스타트되자, 이전 이데올로기次元을 넘어서 國家關係段階로, 까지 擴大되어 더 이상 收拾할 수 없는 境地가 되었다.

이러한 事情에 대하여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그 高충을 自白하고 있다.

「오늘 우리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매우 복잡합니다. . . . 社会主义陣營과 國際共產主義運動内部에서는 많은 複雜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산당 및 노동당들은 統一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越南戰의 에스칼레이션이, 金日成集團으로 하여금 自主路線을 보다 강하게 천명케 한 큰 理由중의 하나이다.

1966年 10月 5日에서 12日까지 滿 8日間 개최된 黨第 2次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은 67年, 68年の 2年間に 걸쳐서 激化된 武裝계렬라兩派戰術의 모체가 된 「現情勢와 우리黨의 課業」이라는 연설을 했다. 동연설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전쟁확대음모는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박정권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전쟁을 적극 준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 월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에 직접 가담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한층 더 긴장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마지막의 건반적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 . 미제국주의자들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월남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며 조선, 쿠바, 동부독일등 분열되어 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 하나 먹어들이 가려고 하는데 대하여 응당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金日成이 지적하고 있는 「큰나라들과의 關係」란 分明히 美·소의 平和共存體制를 이야기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1964年 8月의 통천萬事事件을 계기로 한 65年 2月의 北爆開始에 즈음해서 소련과 中共은 말로만 對美攻勢를 하였을뿐 有効適切한 対応措施를 강구치

않았다. 金日成으로서는 이러한 事態에서 언필칭 自主路線의 必要性을 痛感했을 것이다.

세번째로 北韓 자체내의 事情으로 인해서이다. 즉 金日成直系派內의 賡濟과 「自力更生, 自主路線」과의 相互關連性을 들 수 있다.

金日成이 60年代後半期에 經濟援助를 받기 위한 必要上 親소路線으로 方向 轉換을 하자. 寸한 副作用을 맛보았다.

이 副作用을 두가지 次元에서 열거해 보자.

(1) 67년부터 再開된 소련의 經濟援助는 金日成直系派내에 一大 政策論爭을 惹起케 했다. 즉 戰爭準備優位論과 經濟建設優位論의 對立이었다. 朴金喆, 李孝淳등은 先經濟建設論을 내 세웠다. 말하자면 後進國共產獨裁體制에서 노상 보여지는 是非인데 北韓의 경우도 이 「變形된 近代化論爭」에 말려 들었다. 金日成 1人獨裁體制는 그 體制의 永續化를 위해서도 戰爭準備의 效果를 利用해야 한다는 地盤 만에 빠져 있으므로 以北版 實權派인 朴金喆, 李孝淳등의 先經濟建設優位論은 후르시조프의 修正主義의 씨앗을 孕胎하기 때문에 그 대로 金日成 1人支配體制를 위협하는 要素로 등장하는 것이다.

(2) 金日成直系派內部에서 黨僚엘리트들이 分裂을 이르고 있을때 軍部엘리트들에게 있어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金日成의 軍事路線은 「4大軍事路線」이 말해주듯이 中共式人民戰爭 戰略概念에 기본적으로 입각하고 있으며, 人民軍의 現代化路線도 소련式 現代戰略을 그대로 直輸入하는 것이 아니라 山岳戰과 遊擊戰에 有利하도록 現代式武器와 在來式武器를 配合하는 이른바 「現代戰과 革命戰의 合法則性」에 입각하고 있다.

北韓의 軍部엘리트들은 金昌奉, 許鳳學, 崔光 등 過去 소련의 軍事 大學出身과 中共의 影響하에서 成長하여 遊擊戰에 익숙한 崔賢,

吳振宇 등 人民戰爭戰略信奉자들이 뒤섞여서 共存하여 왔는데 戰爭準備가 대대적으로 推進됨에 따라 民保相 金昌奉 등 소련戰略派와 崔賢을 中心으로 한 人民戰爭戰略派間に 對立을 鬧게 되었다.

드디어 金日成은 68年11月 黨第4期18次全에서 民保相 金昌奉, 總參謀長 崔光, 對南工作總責 許鳳學 등 소련軍事大學出身의 高級將星들을 대거 解任하고, 崔賢을 民保相으로 任命하는 등 人民戰爭戰略信奉者들을 起用하였다. 事懸는 以北版 彭德懷, 羅瑞卿의 解任과 以北版 林彪, 黃永勝得勢를 보는것 같으며, 결국 軍의 「現代化·正規化路線」과 「現代化·革命化路線」의 角逐戰인 것이다.

소련式現代化戰略에 코미트할때 호루시초프路線이 黨, 軍高位層에 스며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탈린式個人崇拜에 1人獨裁體制의 基盤을 두고 있는 金日成으로서는 이러한 「現代化·正規化路線」의 直輸入을 許容할 수 없었다는, 별리케이트한 立場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對內外的인 試練을 克服하기 위해서 金日成은 보다 狂의으로 「唯一思想體系」를 내 세우는 金日成神格化運動에 拍車를 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自力更生·自主路線」은 이러한 dilemma를 打開하기 위한 金日成 1人獨裁體制의 보다 堅固化를 다지고저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北韓내의 dilemma를 對南人民革命戰略과 연결시켜 풀이할수 있는 文獻으로서는, 1967年12月16日 第4次內閣을 組織함에 즈음하여 行한 金日成의 政策演說을 들 수 있다. 金日成은 동연설에서 「...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자주적 입장을 계속 확고히 견지할 것입니다. ...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에 의하여서도 해결될 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입니다.」라고 하여 소련, 中共까지도 포함하여 統一問題解決을 위한 政策 및 戰略의 決定에 대한 外部로 부터의 干渉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韓國의 急激한 經濟成長과 이에 따른 政治的 安定性에  
놀란 金日成集團은 급기야 赤化統一構想에 차질이 오지 않나 우려  
하여 韓國의 經濟混亂과 社會不安을 造成키 위하여, 그리고 政治的  
混亂을 초래키 위해서, 언필칭 自主路線을 金日成唯一思想과 結合시  
켜 이른바 「먼저 게릴라戰을 發動하라. 그러면 革命的 條件은 게  
릴라戰을 推進되면서 커가는 過程에 있어서 造成된다.」는 게바라式  
게릴라戰術을 援用하여, 韓國의 內部攪亂을 企圖코져 했던 것이다.  
여기에 自主路線의 對南戰略에 있어서의 政治的 效果의 企圖가 있  
는 것이다.

아울러 北韓만이 韓國民族의 唯一한 主体意識에 코미트하고 있고  
南韓은 「美帝國主義, 日本軍國主義의 앞잡이」라는 惡宣傳을 일삼는  
데 利用된 것이 自主路線이었고 67年以後 激화된 對南武裝게릴라의  
出沒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政治的 效果를 노린 術策이기도  
했던 것이다.

#### 第4項 人民革命戰略의 第3의 手段-게릴라戰術

상술한 對內外的 디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捷起된 것이 바로  
이 게릴라戰術이다. 즉 1966年 10月 5日에 개최된 黨第2次代表者  
會議에서의 金日成報告「現情勢와 우리黨의 謀策」이 이 第3의 手  
段인 게릴라戰術을 지명한 文獻이다.

그리고 이 黨第2次代表者會議가 12日 끝났는데 바로 그날 개최  
된 黨第4期 14次總會에서의 選舉結果를 보면, 前抗日遊擊隊의 軍事派  
가 대거 登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選出된 新任委員과 政治委  
員會소속候補委員들 가운데는 7名이나 되는 軍部要人이 포함되어 있  
어 67年의 山間密居地稱桑工作戰術 및 68年의 1.21 暴亂의 戰術이  
채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對南人民革命戰略의 第3手段이라고 부를수 있는 이 게  
릴라戰術을 採択했는가.

첫째, 「南朝鮮革命」을 先行시키는 平和統一의 戰略에 있어서 革命力량의 蓄積을 重視하고 있지만 劇的인 情勢變化가 없는 限, 「決定的 時期」를 主動적으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게릴라戰術에 呼訴하여 革命條件을 早期에 앞당겨, 이른바 「革命的 大事業을 主動적으로 맞이하자」는 속셈에서 이 게릴라戰術을 채택한 것이며,

둘째, 平和的 統一戰略이 디렘마에 빠졌을때 提起될 수 있는 代案은, 第2의 6.25와 같은 軍事的 行動이 學論될 수 있으나 中, 소의 全面的 後援을 期待할 수 없는 狀況에서 軍事的 行動의 開始는 사실상 不可能하기 때문에 第3의 手段인 配合戰術로서의 게릴라戰에 呼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게릴라戰術의 遂行過程에서 들어난 特徵들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67年度 - 山間密居地構築工作
- (2) 68年度 - 大規模게릴라侵透, 後方에서의 支撐, 復掃能力등의 檢討
- (3) 69年度 - 게릴라의 小規模的인 波狀侵透와 地下黨組織

하지만 休戰後 最大規模인 120 명이나 되는 게릴라가 侵透한 「三陟, 蔚珍事件」( 68年 10月 30日 ~ 11月 2日 )의 結果가 立証하듯이, 이 第3의 手段인 게릴라戰術은 하나도 소기의 目的을 達成치 못하고 게릴라는 모두 全滅되고 말았다.



## 第5節 70年代의 人民革命戰略

### 第1項 展開過程

#### (1) 第5次党大会에서 提起된

####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

70年 11月2日에 개최된 第5次党大会에서 金日成은 事業總括報告를 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人民民主主義革命을 提起하고 있다. 「……南朝鮮革命은 美帝國主義를 反對하는 民族解放鬪爭인 동시에 美帝의 앞잡이인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官僚階級들과 그들의 搾取統治를 反對하는 人民民主主義革命입니다. 이 革命의 基本任務는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侵略勢力을 내쫓고 그 植民地統治를 없애며 軍事搾取獨裁를 뒤집어엎고 先進的인 社會制度를 세우므로써 南朝鮮社會의 民主主義的 發展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위 引用文에서 보듯와 같이 革命의 目標과 課業內容은 61年 9月의 第4次党大会報告 및 66年10月의 党第2次代表者會議에서의 金日成報告 「現 情勢와 우리黨의 課業」에서 表現되고 있는 內容과 아무런 差異가 없으면서도 단지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이라는 데 代身「人民民主主義革命」路綫이 제시되었다는 점이 特異하다.

共產主義理論에 있어서 提示되고 있는 人民民主主義는 예컨대 「라코시」(Rákosi, 「Der Weg der Volksdemokratie」, 1952)나 毛沢東(「人民民主專政論」, 1949)의 定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人民民主主義란, 소비에트의 形態를 취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獨裁 또는 共産黨이 指導하는 階級獨裁」를 말한다. 따라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이란, 國家權力이 共產主義者와 非共產主義者간에 共有된 것으로 아직도 完全한 共産黨의 一黨獨裁下에 들어가지않은 狀況속에서

共産黨이 實質的인 指導權을 장악하게 하는 革命이다.

그러던 共産主義者들의 理論대로 人民民主主義革命이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보다 一段階 發展된것이라면 南韓情勢를 北韓共産主義者들은 이러한 革命造成에 副應한것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될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 韓國의 情勢는 그러한가, 여기에 北韓共産主義者들의 도그마가 깃들여 있다.

金日成集團은 現南韓情勢를 國際情勢와 對內情勢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分析, 評價하고 있다.

먼저 國際情勢의 趨勢는 平和共存, 民族主義高潮 脫이 데올로기의 인 實制追求등의 要因으로 전반적인 緊張의 緩和와 美·中共 또는 日·中共의 接近에서 보여지는 4極體制로의 이행을 초래하고 있는 現象을 金日成集團은 銳意 注視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에 대한 美國政策의 可變性과 이에 따라 發生한 對韓支援의 消極化와 美軍의 部分的 撤收를 눈여겨 보고있으며 나아가서 美國이 韓國에 대해서 韓半島의 分斷을 固定化하여 南北韓의 接觸을 容용할수 있으리라고 그네들 나름대로 豫想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한편 韓國의 對內的 情勢에 대해서는 60年代에 이룩한 韓國의 飛躍的인 經濟發展을 金日成集團도 是認할수밖에 없으면서도 이 發展에 따른 副作用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자 狂奔하고 있는 것이다. 이 副作用으로 그네들은 雜農의 增大, 勞働者數의 急增 所得格差, 不正腐敗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派生되는 社會的인 階級矛盾을 부채질하고자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니라 金日成集團은 國際情勢變化의 韓國에로의 投射는 새로운 世代的 感傷的 統一論, 南北交流主張, 統一問題의 內部的 解決을 要求하는 與論으로 까지 作用케 될것이라고 그네들 나름대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一部學

生들의 反政府口號 및 買辦資本家打倒의 의침은 自家利用하여 反美·反體制階級鬭爭으로 發展시킬수 있을것이라고 判斷을 내리고 있다.

아름든 이러한 모든 情勢를 金日成 集團은 충분히 포착하여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을 70年代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의 基本方針으로 삼고 온갖 宣傳攻勢와 韓國內에서의 人民蜂起를 劃策, 궁극적으로 「第2의 越南化」를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人民民主主義에 대하여 第5次黨大會에서의 金日成報告에는 작으먼치 네곳에서 言及되고 있다.

## (2) 許 淡의 「8個項統一方案」

1971年 4月12日 北韓最高人民會議第4期第5次會議에서 許 淡外相은 「現國際情勢와 祖國의 自主的 統一을 促進하기 위하여」라는 報告를 하면서 끝머리에서 이른바 「8個項統一方案」이라는 것을 내 세웠다.

그 項目들의 要旨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南韓에서의 美軍撤収
- ② 美軍이 撤収한 후, 南北韓의 軍隊를 各各 10萬 내지 그 以下로 縮少
- ③ 「韓·美相互防衛條約」과 「韓日條約」을 비롯하여 韓國이 外國과 체결한 모든 條約과 協定の 廢기 및 無効宣言.
- ④ 自主的으로 民主主義的인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的인 中央政府를 樹立
- ⑤ 南韓에서의 모든 政治犯을 無條件釋放
- ⑥ 完全한 統一에 앞서서 必要하다면 南北의 相異한 現存社會制度를 그대로 둔 채 過渡的인 措置로서 南北韓聯邦制度를 實施

그러나 韓國이 이것을 곧 받아드릴수 없다면 그때에는 南北韓의 現存社會制度를 그대로 둔 채 民族共同의 利益을 위해 雙方의 相互協力과 交流를 꾀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

⑦ 南北韓의 通商과 經濟協力, 科學, 文化, 藝術, 體育 등 各分野에 걸친 相互交流와 協力を 實現하여, 南北韓의 通信交換과 人士來往을 實現

만일 韓國이 聯邦制를 실시하는 것을 받아드릴수 없다면, 南北韓 代表로서 經濟委員會를 組織

最少限의 人道主義의 措置로서 오랫동안 南北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父母, 妻子, 친척, 친구사이에 서로의 安否라도 伝하고 面會할수 있게 하는 일,

⑧ 以上の 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各政黨, 大衆團體와 모든 人民의 性格을 가진 人들로서 南北韓政治協商會議를 開催

上述한 「8個項統一方案」은, 그 根柢를 5次黨大會에서의 金日成 報告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즉 金日成은 5次黨大會報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군을 철수시킨 후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혹은 그 이하로 축소하여, 서로 무력을 행사치 않는다는 협정을 체결하여 南北韓의 經濟 文化交流와 인사내왕등 일련의 措置를 취해 조선인민의 자주적 의사에 입각하여 平和적인 方法으로 祖國의 統一을—實現할수 있는 基本的 條件이 갖추어졌을 때, 자유로운 南北總選舉를 실시하여 民主主義統一政府를 樹立할것을 남조선당국에 되풀이 제안했습니다. 만일 이러저러한 이유로 南北 조선의 총선거를 즉시 실시할수가 없다면, 우선 民族公同의 관심사로서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여 祖國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인 對策으로서 南北朝鮮의 연방제라도 실시할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許 淡報告에서 새로 追加된 것이라고는

- ① 最高民族委員會
- ② 經濟委員會
- ③ 父母, 妻子, 親戚, 親旧사이의 面會
- ④ 南北韓政治協商會 該開催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71年 8月 6日 시아누크公 歡迎平壤市民群衆大會席上에서, 金日成은 韓國의 執政黨인 民主共和黨하고도 接觸할 用意가 있다고 淸명한바 있다.

### (3) 說亮新聞記者와의 金日成인터뷰

1972年 1月 10日, 金日成은 說亮新聞의 高木健夫記者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南北間의 軍事的 緊張緩和策」을 제의했다. 즉 金日成은 「南北이 平和協定을 체결하고, 서로 相對方을 攻擊치 않을것을 宣言하고,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侵略軍을 撤収시키는 條件에서 南北朝鮮의 兵力을 大幅 縮少할것을 主張한다」고 平和攻勢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政治協商」을 다시 提議하고 있다. 金日成은, 이 協商에서 民主共和黨을 포함한 南北의 諸政黨이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관한 「合理的 方途를 모색하는 双務的 또는 多務的 交渉을 활발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主張하는 한편, 美軍의 撤収를 政治協商의 前提로는 보지 않고 「政治協商을 열므로써 美軍도 더욱 빨리 撤収시킨다고 할수 있다」고 言明했다.

그리고 72年 1月 14日 金日成은 「民族内部的 問題인 우리의 祖

國統一問題가 外部의 干涉에 의하지 않고 朝鮮사람자신의 손에 의해서 그러면서도 平和의 方法에 의하여 解決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여 總래의 自主的 平和統一論을 되풀이 했다.

72年4月28日에는 5次黨大會에서 제기한 「南北聯邦案」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즉 金日成은 南韓에 「社會主義를 強要하지 않고」거꾸로 北韓은 「資本主義를 強要당해도 받아드릴 생각은 없다」고 斷言하여 聯邦制를 다시 들추고 있다. 그러면서 金日成은 聯邦制度가 外國과의 平和共存과는 別個의 問題라는 點을 강조하고 있다

#### (4) 뉴욕·타임즈의 「솔즈베리」記者와의 金日成對話

1972年5月26日 金日成은 솔즈베리記者와의 對話에서 우선 祖國統一을 위해서는 美軍이 철수해야 한다고 序頭를 꺼내면서 読売新聞記者와의 인터뷰內容을 다시 되풀이 강조했다. 그리고 끝머리部分에서 「自主性」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작은 나라의 人民일수록 自尊心은 보다 強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은 나라의 人民이 自尊心까지 상실해가지고는 살아갈수 없습니다. ……朝鮮人民은 옛부터 勤勉하고 예지가 풍부한 人民입니다」

이와같이 이른바 「民族의 主体性」을 내세우면서, 實은 駐韓美軍의 撤收를 再三 強調한 것이다.

#### (5) 「7.4 南北共同聲明」에 대한 勞動新聞社說

7.4 共同聲明이 發表된 바로 다음날 勞動新聞의 社說內容을 보면, 序頭에서 金日成과 勞動黨이 이 聲明의 基本內容을 提示한 것이라고 자가선전을 하면서 여전히 對南人民革命戰略의 一環으로서의 平和攻勢를 展開하는 것을 잊지않고 있다. 즉

- ① 自主性の 原則
- ② 美軍撤収
- ③ 平和協定締結과 軍隊縮小
- ④ 南北韓의 政党·大衆団体등의 會談開催

등을, 이 社說은 되풀이 拳論하고 있다.

72年 9月 13日에 개최된 南北赤서울會談에서 자문위원인 勞動党中央 党 科学教育部 副部長 尹基福이와 朝總聯第1副議長 金炳植의 祝賀 演說에서도 北韓共産主義者들의 政治宣傳을 직접 귀로 들은 우리韓 國國民들로서는, 南北赤會談의 進展을 위해 꾸준한 忍耐를 堅持하면서도 北韓共産主義者들의 기본바탕을 항상 경계해야 할 일이다.

## 第2項 人民革命戰略의 一環으로서의 「平和攻勢」의 底意

1971年度 後半期부터 對南人民革命戰略의 一環으로서, 北韓共産主義者들이 平和攻勢를 展開하고 있는 背景의 要因으로, 다음 두가지 事項을 들수 있을 것이다.

우선 國際政治의 次元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72年 2月 21日의 닉슨大統領訪中으로 代弁되는 冷戰體制의 解氷은 금기야 美·소兩極體制의 瓦解와 多極體制의 具體化를 물고 왔다. 72年 1月 10日자 統亮新聞特派員과의 金日成인터뷰는 이러한 緊張緩和의 趨勢에 便乘하려는 彈力的 姿勢임에는 틀림없다.

다음으로 워싱턴·포스트紙의 「해리슨」記者도 지적하고 있드시 앞으로의 南北韓對決이 軍事的 次元보다는 經濟的 次元에서 그 競爭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그네들 나름대로 내다보고, 北韓

자체내의 對內的 整備를 서두르기 위해서는 그 一次的 表現을 「平和攻勢」에서 찾으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즉 自己네 들이야 말로 언필칭 「平和로운 環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對內外的으로 전시하여, 그 効果를 軍備豫算 減少와 消費材生産증가에서 찾자는데에 平和攻勢의 對內的 要因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戰爭準備의 永続化로서 金日成 1人獨裁体制의 기반을 유지해 왔던 權力構造에 금이가지 않도록 事前に 措置를 강구해 두어야 한다는, 보다 根源的인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對南人民革命戰略이라는 次元에서 볼때 金日成集團이 平和攻勢를 표방하고 나선 底意는 나변에 있는 것일가, 대충 세가지로 要約할수 있다.

✓ 첫째: 美國과 日本과의 接觸과 交流를 이른바 「위로부터의 統一戰線路線」에 따라 積極的으로 試圖하면서 多角的 外交活動을 推進하여 韓國에 對한 逆弧立化政策을 試圖, 展開하자는데에 있다.

✓ 둘째: 美軍이 撤收하기 이전이라도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체결하여 結果的으로는 駐韓美軍의 駐屯에 필요한 大義名分을 빼앗아버리자는 속셈이다.

✓ 셋째: 韓國의 執權黨인 民主共和黨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政黨, 社會團體가 參加하는 南北間의 「政治協商」과 相互交流와 「平和協定」의 체결을 제의하므로써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平和統一의 熱意를 對內外的으로 示威하여 이러한 提議에 應하지 않는 韓國의 立場을 守勢로 몰아 넣으려고 圖策하자는데 그 基本底意가 있는 것이다.

金日成集團은 韓半島의 統一을 希求하는 韓國國民들의 民族感情에 더욱 呼訴하면서, 客觀的 合理性을 弄길려는 策略하에서, 高次的인 對南人民革命戰略에 보다 具體的인 眩惑의 衣裳을 입힐려고 갖인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具體的인 統一政策을 提議하므로써 韓國政府가 이것을 受諾할 경우에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策略에 빠지고, 拒否할때에는 韓國國民과 國際的 與論으로부터 孤立될 것이라는 打算에서 이러한 術策을 發展시키고져 劃策하는데 그 狡猾한 底意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 第6節 小 結 論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을 6·25動亂 以前, 50年代後半期, 60年代 및 70年代로 나누어 그 展開過程과 特質을 分析·批判해 보았다.

요컨대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은 基本的으로 赤化統一路線에 입각하고 있으며, 對內外的 與件을 감안하여 그 樣相이 平和統一構想과 6·25와 같은 軍事的手段 그리고 60年代後半期에 보여졌던 第3의 手段인 게릴라戰術에 코미트하는, 多樣한 戰術的 可變性を 노정하여 왔음을 直視했다.

그런데 70年11月の 第5次黨大會에서 提起하고 있는 人民民主主義革命 路線은 종래의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路線보다 한층 發展된 對南人民革命戰略이라는 엄연한 事實을 똑바로 認識하고, 모든 要素에서 이러한 畧안이 孕胎되지 않도록 보다 한층 警戒心을 發揮해야 할 일이 切實히 要望된다.

그리고 「對南人民革命戰略의 一環으로서의 平和政勢의 底意」에서 明白히 밝힌바와 같이 71年度 後半期부터 끈질기게 展開하고 있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南統一에 프르오취는 50年代後半期, 60年代前半期에 提起하고 있는 이른바 「平和統一構想」하고는 그 偽裝性에

있어서, 高次元的인 「戰略的 高地」를 構築하고자 狂奔하고 있다는 冷澈한 主·客觀的 情勢를 드라이하게 파헤치, 이에 彈力性있게 対応하여 그 底意를 우리의 國家能力發揮과 國民의 自發的 參與하에서 粉碎해 나가는 果敢한 政策的 衣裳을 입혀야 할 焦眉의 어려운 時點에 맞닿았다는 認識을 새로히 해야 할 것이다.

## 第4章 問題点 및 對備策

### 第1節 問題点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은 對內外的 与件에 따라 時代的으로 그 内容을 달리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展開되어 왔다. 그러나 그 基本이 되는 것은 “北半部の 人民을 党的 思想으로 武装시켜 革命基地로서의 北半部를 盤石과 같이 強化하며 그 위에서 南半部の 人民이 反帝·反蔣을 위하여 闘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北韓의 人民革命戰略概念의 基本이 되고 있을진대는 韓國 安保上에 提起하는 問題点은 바로 韓國内部에 있다고해도 過言이 아니다.

첫째로 꼽을수 있는 問題点은 政治의 非能率性이다. 우리가 民主制度를 輸入하여 實施한지도 이미 4半世紀가 經過하였다. 그러나 25年이라는 긴 歲月을 통해 우리는 한번도 民主主義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보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25年동안에 있어서의 韓國의 民主主義는 無能과 非能率로 아로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政黨人들은 國家와 民族을 위하기 보다는 党利·党略을 위해서 움직이기 일수였을 뿐만 아니라 同一政黨内에서도 派爭에 餘念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國會는 自然히 反對를 위한 反對를 일삼기 일수였고 아무리 좋은 政策, 아무리 훌륭한 施策이라도 일단은 否定하는것이 正當한것 같이 되어 버렸다. 國會는 自己機能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였다. 韓國의 民主主義는 非能率과 浪費의 代名詞처럼 되어 버렸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國民은 政治에 對하여

無關心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憎惡感마저 품게 되었다. 이것은 政治的不安定을 造成시키는 要因이며 이러한 要因은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을 展開시키는데 좋은 溫床地를 提供해주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둘째의 問題點은 우리 民族의 分散과 離合集散現象이다. 우리 社會에는 特하면 너와 나를 区分하고 外편과 內편을 가르는 分派主義의 性向이 支配的인 要素가 되고 있다. 그 위에 남이야 어찌됐건 나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利己主義가 充満되어 있다.

서로가 理解하고 協調하여 生産하며 創造할 생각은 고사하고 政府가 하는 일에도 不滿, 社會의 모양에도 不平, 심지어는 同僚와 戰場에 對해서까지도 不滿을 늘어 놓기만 하는 不平不滿이 오늘날 우리 社會를 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自己에게 맡겨진 責任과 使命은 다 하지 않으면서 오직 自己權利만을 主張할 줄 아는 似而非民主市民을 增加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社會風潮는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을 위한 溫床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째의 問題點은 우리 社會에 있는 不條理現象이다. 우리 社會의 不信風潮는 너무도 넓고 깊게 퍼져 있다. 또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치와 허영은 極度에 達했다고 할수있을 程度의 狀態이다. 1人當 國民所得이 아직도 250달라纒에 머물러 있는 우리 나라에서 오늘의 生活相은 너무나도 奉隨한 것이며 그런 奉隨한 生活은 國民大多數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極히 限定되고 있는 一部 特殊層이라는 問題의 甚刻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一部特殊層은 國民大多數의 눈에는 우리 國民으로 投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敵對視될 可能性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現象은 民族分裂을 助長하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 개의 問題點은 所得間의 隔差와 아울러 地域間의 隔差이다. 經濟發展에 따라 생기는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問題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所得間의 隔差는 날이 갈수록 貧富의 隔差를 넓혀 貧益貧과 富益富의 結果를 가져와 經濟發展의 惠沢은 一部層에 局限되고 마는 結果를 가져온다. 또한 都市와 農村間의 隔差로 말미암아 都市人은 農民을, 農民은 都市人을 마치 異邦人으로 생각하게 되는 傾向을 갖게 된다.

이러한 現象은 한결같이 民族分裂을 助長하는 結果를 가져오며 北韓이 人民革命戰略을 展開시키는데 提示하고 있는 이론과 “南韓人民이 反帝, 反착소運動으로 걸기 해야한다”는 可能性을 提供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問題點으로 捷起할수 있는 것은 우리 国力이 떨어졌다는 事實이다.

힘에는 힘으로, 組織에는 組織으로 對処해야 한다는 것은 對決에서 이길 수 있는 最少限의 必須要件이다. 이미 世上에 널리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北韓은 金日成의 唯一體制로 물של틈없이 組織化되어 있다. 즉 그들이 말하는바와 같이 “北半部의 人民을 黨의 思想으로 武装시켜 革命基地로서의 北半部를 盤石과 같이 強化”시키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北韓은 主体思想을

基本으로 하여 『黨과 人民이 社会主义革命과 建設로서 獲得한 偉大한 成果를 法的으로 固着시키며 나아가 政治, 經濟, 文化, 軍事等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諸原則을 集約하여 社会主义의 勝利와 祖国統一을 促進시킬수 있는 法的 뒤받침』이 되기 위해서 北韓의 新憲法을 制定하려는 段階에 있다. 다시 말하면 北韓은 人民革命戰略을 더욱 積極的으로 展開시키기 위하여 金日成唯一思想體系로서 보다 더 北韓住民들을 組織化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는 너무나 对照的인 實情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北韓과의 關係가 『對話 없는 對決』에서 『對話 있는 對決』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決코 對決狀態의 解消나 北韓으로부터의 危脅이 減少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面에 있어서는 오히려 北韓의 人民革命戰略展開의 積極化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운 對決狀態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態勢確立은 그만큼 더욱 切實하게 必要한 것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지난 10餘年 동안 온갖 어려운 逆境을 무릅쓰고 祖国 近代化課業과 經濟建設事業을 成功的으로 推進한 結果 物量的인 面에서는 確實히 北韓을 능가할 만큼 国力이 성장되었다.

그러나 國民의 精神姿勢 + 社会體制面에서는 北韓에 比해 많은 弱點을 안고 있는 것이다.

## 第2節 對 備 策

이러한 問題點에 對備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다음아닌 「維新憲法」인 것이다. 이 維新憲法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體制를 마련하여 維新課業에 邁進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提起한 問題點에 對備하고 보다 效果的으로 維新課業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要素別 對備策을 提示한다.

### 가. 政治面

#### (1) 政策決定의 効率化

(가) 在野人士 가운데 有能하고 참신한 人士를 登用하여 國政에 參與시키므로써 健全한 政策形成과 効率化를 期하여 國民一體化에 寄與토록 한다.

(나) 健全한 政策形成에 効率化를 期하기 위하여 各계각층의 多様な 情報源을 組織化하여 活用토록 한다.

#### (2) 國民의 組織化

(가) 維新을 위한 國民意思를 綜合하고 國民을 指導하는 各界各層을 網羅한 民間團體로서의 統一促進會(假稱)를 構成함으로써 國民組織化를 推進토록 한다.

(나) 統一促進會는 行政區域單位로 編成함으로써 基層組織으로서의 役割을 担当케 한다. (極稱表 參照)

(다) 鄉土豫備軍을 統一促進會에 積極參與시키므로써 國民政治動員의 主要役割을 担当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한다.

(라) 統一促進會는 새 마을運動展開의 母體로서 全國民의 生涯隊列에 參與하는데 寄與토록 한다.

(마) 統一主体 国民會議 代議員 및 国会議員 立候補 希望者를 推薦함으로써 立候補者의 亂立을 防止한다.

(3) 官界의 維新體制 確立

(가) 行政各部의 機能을 細分化하고 이를 強力히 統合 調整하여 一元的인 指揮統一體系를 確立함으로써 行政의 能率化를 極大化시킨다.

(나) 監査院의 監査機能을 強化하여 行政実績을 監査함으로써 不正을 防止하는 同時에 官吏에 使命感과 責任感을 鼓吹시킨다.

(다) 下級官吏의 処遇改善으로 士氣를 振작시키며 責任을 다하도록 한다.

(라) 公務員의 創造的이고도 生産的이며 熱誠的인 職務完遂를 奨勵하고 不正腐敗를 嚴罰하기 위하여 特別法을 制定한다. 特히 不正腐敗에 對한 處罰規定은 公務員의 職位에 따라 加重處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公務員의 財産登錄制를 實施한다.

(例: 一般職은 書記官級以上)

(4) 官民協調 體制의 確立

(가) 第一線에서 對民業務를 直接 担当하는 官吏는 國民의 公僕으로서의 精神姿勢를 確立하기 위하여 對民業務의 公正과 迅速한 處理로서 官에 對한 住民들의 信賴度를 높이며 官民의 융합을 期하도록 한다. (例: 稅務公務員, 교통순경, 區·洞職員)

(나) 行政末端 組織의 統(里)長 및 班長의 精銳化를 期하여 官과 民의 協調體制 維持에 主導的 役割을 担当토록 한다.

(다) 中央教育機關을 통하여 새 마을運動 指導者를 養成한다.



(5) 政党 및 各種社会团体的 健全한 育成

(가) 政争을 加熟化시키고 国論分裂의 支配的인 要素가 되고 있는 政党的 機能弱화와 有名無実한 群少政党的 亂立을 整備함으로써 統一促進會와 積極的인 協調體制를 維持토록 한다.

(나) 各種社会团体 및 職能別 团体는 類似团体를 廢, 統合하고 그 組織을 強化한다.

(다) 지난날 國家利益을 저버리고 党利, 党略에만 치우쳐 斗争을 일삼고 国論分裂를 助長해온 非能率的인 政治人을 規制함으로써 政治活動에의 참여를 排除한다.

#### 나. 社会文化

(1) 韓国的 民主思想体系의 確立

(가) 새마을運動을 通하여 國家利益을 優先視하는 生産的인 價値觀을 確立한다.

(나) 我執과 因襲의 遺習을 打破하여 思考와 行動을 科學化한다.

(다) 實事求是의 文化遺産을 繼承發展시켜 民族文化 共同体 意識을 涵養한다.

(라) 民族을 一次的 準拠集團으로 昇華시켜 自主的인 主体意識을 培養한다.

(마) 自助 自立 協同精神을 生活化하여 國家와 個人的 發展을 同時에 追求한다.

(바) 自由와 民主를 爲한 計劃의 重要性을 國民各自의 意識

내에 扶植한다.

(사) 業績本位の 均等한 機會를 賦與하여 分수에 맞는 健全한 生活態度를 涵養한다.

(2) 社会的 不条理의 果敢한 拔本塞源

(가) 不正腐敗의 根源의 素地가 되는 報酬의 絶對水準을 增大하고 公正한 公配體系를 確立한다.

(나) 民族的 使命感을 忘却한 一部指導層이 大悟覺醒하여 示範의 模範을 보임으로써 國民의 信賴를 獲得한다.

(다) 業績本位の 一貫性있는 人力管理로써 職業構造를 合理化하여 安定된 生活바탕을 造成한다.

(라) 청와대 司正担当補佐官室 監査院등 既存機關의 機能을 最大限 活用해서 果敢한 庶政刷新의 實踐狀況을 隨時로 点檢한다.

(3) 維新的 社会氣風의 振作

(가) 凡國民의 새 마을運動의 社会教育的 効果를 極大化하여 各種 社会惡과 頹廢風潮의 素地를 一掃한다.

(나) 奢侈性 品目에 對한 需要者 負擔을 過重케 하여 奢侈와 浪費가 없는 生産的 生活風土를 造成한다.

(다) 各種 社会機關의 連帶的 責任을 賦課하여 社会惡의 發生 根源을 共同으로 抑制한다.

(라) 社会福祉 및 社会保障 制度를 扩充하여 未来 志向의 生活条件을 提供함으로써 国民精神의 安定을 图謀한다.

(마) 国民儀禮準則을 生活化하여 儉素, 節約, 勤勉, 奉仕의 精神을 高揚하며 貯蓄性向을 드높인다.

(바) 모든 社会惡의 標本을 設定하여 公開적으로 処罰한다.

(4) 韓國的인 標準的인 生活基準의 制定

(가) 거치장스럽고 非能率的인 韓服式을 簡便하고 活動的인 維新的 服裝으로 改造하여 衣生活의 實利化를 기한다.

(나) 經濟的이고 韓國風土에 적합한 維新的 建築樣式을 制定하여 住生活의 奢侈와 浪費가 없도록 規制한다.

(다) 非衛生的이고 浪費가 심한 食生活方式을 韓國人에 適合한 食生活體制로 科學化하여 國民體位를 向上시킨다.

(라) 非生産的이고 美風良俗을 阻害하는 消費的 外國風을 抑制하여 職場人과 大學生身分에 맞는 外貌를 갖춘다.

(5) 民族主体 爲主의 教育強化

(가) 産學協同體系를 強化하여 近代化 目標達成에 寄與하는 科學技術教育을 高度化시킨다.

(나) 長期的이고 一貫性있는 政策으로 地域社会開發을 뒷받침할 地域的 特殊教育을 伸張하여 教育의 平準化를 圖謀한다.

(다) 「國民倫理」教育을 通하여 韓國國民으로서의 資質을 涵養하는 政治教育을 勵行한다.

(라) 恒久的인 國家人力需給計劃에 依拠해서 上級學校 進學을 재조성하여 教育의 浪費를 極少化한다.

(마) 敎員의 生活保障을 提高하여 敎育者의 資質과 德成을

向上시켜 學生으로 부터의 信賴받는 人間像을 定立한다.

(바) 現地 學習을 통한 實業教育을 強化하여 熟練工 養成에 拍車를 加한다.

(사) 進學為主教育을 시정하고 兒童教育을 系列化하여 維新的 國民像을 早期에 習得시킨다.

(야) 小規模의 各單科大學은 機能別로 統合調整하여 各己 專門 學校로 發展시킨다.

(6) 言論機關의 再整備 強化

(가) 言論을 國民總和의 公器로서 活用하여 社會的 參與를 極大化하므로서 國民的合意를 이룩한다.

(나) 肯定的 心理를 造成키 爲하여 反社會的側面的 誇張을 規制한다.

(다) 民族自主意識을 鼓吹하고 國家利益을 優先視하는 維新的 價值觀形成에 容與한다.

(라) 營利本位의 無定見한 群少 言論機關을 統合하여 言論活動의 基盤을 補完한다.

(마) 言論人 再教育制度를 強化하여 專門人으로서의 資質을 向上시킨다.

(바) 海外 弘報活動을 더욱 強化하여 새로운 韓國像을 紹介함으로써 外國 言論界의 友好的 性向을 鼓吹한다.

다. 外 交 面

(1) 外交能力의 強化

(가) 外交官의 資質을 高度로 向上시키고 適材適所에 配置한다.

(나) 對外活動費를 增加하여 公館活動의 效率化 및 積極化를

期한다.

(다) 各地域別 研究活動을 積極 推進하는 同時에 專門家를 養成하여 活用한다.

(2) 对僑胞活動改善

(가) 僑胞의 保護와 善導活動을 積極 強化한다.

(나) 僑胞의 國威를 損傷할 言行을 強力히 規制한다.

(다) 移民에 對한 過度한 抑制을 止揚한다.

(3) 海外旅行者에 對한 規制

(가) 不必要한 外貨浪費를 招來하는 海外旅行은 強力히 抑制하되 科學技術習得等 目的의 海外留學은 積極 勸獎한다.

(나) 海外旅行者의 事前教育을 強化한다.

(4) 友邦 및 中立諸國과의 紐帶強化 및 支援確保

(가) 特別使節을 派遣하여 10月維新의 背景과 不可避性을 說得케 한다.

(나) 友邦諸國에서의 親韓勢力 擴充에 努力한다.

(다) 外國人들의 投資를 積極勸獎한다.

(라) 友邦 및 中立諸國에 對하여 招請, 訪問, 外交를 推進하는 同時에 弘報活動을 強化한다.

(마) 友邦諸國 特히 美, 日이 韓國에 先行하여 北韓에 接近하는 것을 最大限 抑制한다.

(바) 美國에게 軍의 現代化 計劃의 約束을 積極 推進할 것을 促求한다.

(사) 友邦諸國 特別 美·日의 ASPAC 支援을 繼續토록 促求한다.

(아) 對이스라엘, 南阿聯邦 및 羅메시아와의 外交關係를 中東諸國 및 아프리카諸國과의 寒利外交追求에 支障을 招來치 않토록 消極化한다.

(자) 對自由中國과의 外交關係는 繼續하되 軍事交流는 止揚하고 經濟交流에 보다 置重한다.

(5) 對共產圈接近摸索

(가) 共產諸國에 對하여 敵對視 態度·表明을 可能한 限 抑制하고 關係改善用意을 表明한다.

(나) 直接 또는 第三國을 通하여 蘇聯 및 中共과의 接觸을 摸索한다.

(다) 東歐諸國과 非政治的 接觸 및 交流을 積極的으로 擴大한다.

(라) 中南美의 共產諸國과 非政治的 接觸 및 交流을 積極的으로 推進한다.

(6) 對北韓政策

(가)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活動을 主導的으로 繼續推進한다.

(나) 文化·스포츠 및 經濟交流을 慎重히 摸索한다.

(다) 南北韓의 緊張緩和을 爲하여 不必要한 對北韓刺戟을 回避한다.

(㉔) 南北對話를 北韓이 宣傳에 利用하는 것을 沮止하고 이를 우리의 對外活動에 効果적으로 利用토록 한다.

## 라. 經 濟

### (1) 維新的 經濟体制의 確立

自由資本主義 經濟体制를 바탕으로 하되

(㉕) 經濟開發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政府의 機能을 擴大한다.

(㉖) 福祉國家를 指向하는 所得配分の 均霑化를 爲한 政府의 施策을 強化한다.

(㉗) 公益과 社会的 利益을 增進시킬 수 있는 部門에 對한 政府의 統制를 強化한다.

(2) 資源 및 技術의 効率的 開發 輸入代替를 爲한 國內資源 및 大陸棚開發을 繼續 推進하되

### (㉘) 輸入代替資源의 開發促進

輸入代替資源의 開發은 그 代替效果가 높은것을 優先하여 이에는 財政金融上的 支援을 強化한다.

### (㉙) 全國山野開發의 革新

<1> 山林綠化를 爲한 造林事業은 用材林을 爲主로 하여 汎國民의으로 展開하고 部落單位의 責任管理制를 實施한다.

<2> 全國野山の 利用度를 높이기 爲하여 有實樹 또는 酪農을 中心으로 하는 「全國野山 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하고 그 實踐 方案으로서 國公有 野山을 優先의으로 開發(對民賃貸制方式)한다.

技術開發에 있어서는 科學技術의 振興을 爲한 技術導入의 積極化 研究開發의 推進 技術教育의 強化 및 生活의 科學化를 繼續 推進 한다.

(2) 科学技術者の 兵役義務 免除

有能한 科学技術者の 養成을 爲하여 自然科学部門에 對한 別途의 國家考試制을 設定하고 이에 合格된 者에 限하여 兵役義務를 免除시킨다.

(4) 技術導入의 選別

技術水準을 向上하기 爲하여 技術導入은 技術導入 選別委員會를 設置하여 嚴格히 規制한다.

(5) 研究開發資金確保의 義務化

國內의 技術開發을 積極化하기 爲하여 企業은 資本金의 一定比率에 該當하는 研究開發費를 確保토록 義務化한다.

(6) 生活의 科學化

生活의 科學化를 促進하기 爲하여 一人一技主義의 技術習得을 汎國民의으로 展開한다.

(3) 重化学工業化의 促進

重化学工業化를 爲하여 鉄鋼 機械工業 石油化学工業 및 電子工業等 基幹産業建設을 重點의으로 繼續 推進하되

(7) 重化学工業企業의 大單位化

製品의 質을 向上하고 原價를 切下시킬 수 있도록 企業의 大單位化를 推進한다.

(8) 企業系列化의 促進

中小企業의 業態를 再評價하고 育成對象이 되는 中小企業에 金融支援을 積極化하여 企業系列化를 促進토록 한다.



(4) 農漁村開發의 促進

農漁村의 近代化를 爲한 새마을 事業을 繼續 推進하되

(가) 새로운 食糧資源의 開發

食糧自給을 早速히 達成하기 爲하여 食糧增産政策을 定着  
化하고 새로운 食糧資源의 開發을 促進한다.

(나) 農漁村所得構造의 改善

農漁村 副業을 積極開發하여 所得構造를 改善한다.

(다) 近海漁撈의 科學化

近海漁業에 있어서의 漁撈의 科學化를 爲하여 漁船의 動力化와 漁撈器具 및 裝備의 改善을 促進한다.

(라) 農水産物の 二重價格制

所得増大와 輸出増大를 爲하여 主要農水産物の 二重價格制  
를 實施한다.

(로) 全國土의 5時間生活圈化

全國土의 5時間生活圈化를 爲하여 旧道路의 高速化와 高  
速道路 및 鐵道網을 補充하고 이와 連結되는 農漁村의 進入路도  
補充한다.

(5) 財政 金融의 健全化

財政의 安定 및 金融의 正常化施策을 繼續 推進하되

(가) 豫算制度 및 企劃調整의 改善

<▷ 豫算制度의 非合理的인 要素를 除去한다.

<◁ 豫算事業(重疊되는 事業)간의 非經濟的 要素를 除去

하기 爲하여 各部如間の 事業調整을 할수 있는 予算事業 企劃調整 業務를 強化한다.

(4) 政策金融機關의 運營合理化

經濟開發金融의 効率化를 爲하여 政策金融機關의 運營을 合理化한다.

(5) 金融의 近代化

金融의 近代化를 爲하여 私金融을 公金融으로 積極 轉換 한다.

(6) 企業體質의 改善

企業體質改善을 爲한 企業公開 및 産業合理化 運動의 展開를 繼續 推進하되

(a) 企業에 對한 政策支援의 選別

企業이 政府에 依存하려는 風土를 改善하기 爲하여 企業에 對한 政策支援을 選別한다.

(b) 企業公開의 促進

企業公開를 促進하기 爲하여 公開要件을 갖춘 非公開法人이 企業을 公開할 것을 指定하여 公開法人에 對해서는 稅制 및 金融上의 利益을 준다.

(7) 流通秩序의 確立

商道義의 昂揚과 不良製品에 對한 束縛을 繼續 推進하되

(a) 中間流通過程의 改善

生産者와 消費者의 利益을 最大限으로 擁護하기 爲하여 中間流通過程을 改善한다.

(4) 公正去來制度의 確立

消費大衆의 利益을 擁護하기 爲하여 公正去來制度의 確立으로 獨寡占을 統制한다.

(5) 定札制의 實施

主要商品價格은 價格査定委員會를 거쳐 定札制를 實施한다.

(6) 不良製品의 根絶

不良製品의 製造 및 賣行爲를 徹底히 團束하는 한편 「에스·메디아」를 通하여 不良製品을 定期的으로 告發措置한다.

(8) 國民福祉 및 生活安定

國民福祉와 生活安定을 爲한 政策을 強力히 推進하되

(1) 生必品價格의 安定

生必品の 物價安定을 爲하여 生産原價의 上昇要因을 抑制하고 生必品の 備蓄을 擴大한다.

(2) 勤勞所得稅의 免稅點 引上

所得隔差를 緩和하기 爲하여 高所得層에 對한 綜合所得稅의 累進率을 擴大하고 勤勞所得稅의 免稅點은 最低生活을 考慮하여 引上한다.

(3) 完全雇傭

完全雇傭을 目標로 雇傭效果가 큰 企業의 育成을 積極推進한다.

(4) 勤勞者의 權益保障

<1> 勤勞基準法에 따르는 勤勞者의 基本權益을 保障할 수 있도록 徹底한 監督을 實施한다.

<2> 私企業의 退職金制를 義務化하고 産業災害保險을 擴大한다.

(5) 農漁村의 完全電化

農漁村의 電化事業을 積極 推進하기 爲하여 電化事業資  
金の 特別支援을 推進한다.

(8) 醫療機關의 地域分散

<1> 農漁村地域에 公營醫療機關을 面單位로 設置한다.

<2> 醫療機關의 都市集中을 防止하고 農漁村分散을 促進시  
키기 爲하여 病院開業許可를 都市에 限하여 T/O 制로 實施한다.

(8) 多樣한 食品의 開發

食生活의 改革을 爲하여 새로운 食品의 多樣한 開發을  
積極 推進한다.

(8) 豪華住宅建築의 限界

<1> 豪華住宅의 建築을 抑制하기 爲하여 1世帯當 50 坪  
을 超過하지 못하도록 現行建築法을 改正한다. (但, 公館은 除外)

<2> 一家口一住宅을 達成하기 爲하여 住宅金融은 庶民  
住宅(世帯當; 15 坪以內로 制限)의 建立에 限하고 融資對象은 實  
需要者(但 庶民아파트는 除外)에 限한다.

(8) 人口의 地域分散促進

人口의 地域分散을 積極 誘導하기 爲하여 地方生活의  
便益을 向上할 수 있도록 教育 文化 産業等에서 中央集中主義  
行政을 止揚하며 大都市에 있어서는 衛星都市의 開發을 積極 推  
進한다.

(8) 健全한 消費風土의 造成

奢侈性消費에 對한 諸稅를 大幅 增設하여 奢侈生活을  
抑制하고 國民의 健全한 消費風土를 造成한다.

(9) 國際收支의 改善

國際收支改善을 爲한 輸入의 抑制과 輸出振興政策을 繼續

推進하되

(가) 輸出産業의 大單位化

輸出基盤을 強化하기 爲하여 輸出産業을 國際規模로 大單位化한다.

(나) 새로운 輸出市場開拓의 促進

輸出市場의 擴大를 爲하여 海外市場 情報調査를 爲한 輸出企業의 海外活動을 促進한다.

(다) 觀光開發의 促進

觀光資源을 積極 開發하는 同時에 觀光서비스 改善을 爲하여 觀光事業學校를 設置하고 觀光業體 從事員은 資格證制로 한다.

## 建 議

維新體制 確立으로서 南北對話를 主導的으로 推進하면서 北韓  
의 人民革命戰略을 拋棄토록 하는 한편 人民革命戰略 展開를  
위한 溫床地提供의 可能性을 一掃하기 위하여 위에 提示한 對  
策의 具項을 建議합니다.